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708 1981년12월29일(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Tuesday, December 29. 1981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광 고 부 장 : 홍 광 호
편집자문위원 : 박 상 현

김대중·문익환·이문영씨등 제외

성탄맞아 1,113 가석방

광주사태 관련자포함 9명집행정지·장기수 23명도

(서울=연합통신) 한국정부는 25일 광주사태 관련 홍남순 변호사(68), 명노근(48)전 전남대교수, 김대중 사건 관련 박정훈(40)씨, 기자협회사건 관련 김태홍 (39) 기자 등을 비롯, 1,113명을 일제석방했다. 그러나 국내외의 관심이 집중됐던 김대중씨, 문익환 목사, 이문영 교수등 인사에 대한 사면은 없었다. 성탄절인 이날 아침 10시를 기해 전국 30개 교도소, 구치소및 소년원에서 형집행 정지, 가석방, 가출옥등의 조처로 석방된 모범복역자들은 각 교도소 앞에서 새벽부터 줄지어 기다리고 있던 가족·친지들의 마중을 받고 얼싸안으며 재회의 기쁨을 나누었다. 출감자중 홍남순 변호사는 홍성교도소에서, 전기자협회장 김태홍씨는 광주교도소에서, 그리고 전 한국정치문화연구소 부소장 박정훈씨는 대전교도소에서, 이외 광주사태 관련혐의자 6명도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홍남순 변호사는 작년 5월 징역 7년형을, 김태홍씨는 징역 18월형을 선고받았었다. 147명의 소년범을 포함, 가석방조처된 1,104명 가운데는 무기수 1명, 장기수 23명이 포함돼 있다.

◇메리크리스마스 : 산타와 토론토시장 아트·에글턴이 25일 어린이병원에 크리스마스 기분을 가지고 왔다. 1시간반 동안의 방문중 산타할아버지(Dr. 클리브 슈바르 분장)와 시장은 2살난 블랑세 에이미, 엄마 캐시와 함께 환담을 나누고있다. 시장의 아내 브렌다·이글턴은 이들을 미소로 지켜보고 있다.

파타임하며 실직수당 타

불황업계에 긴급보조금 5천만불

(오타와) 연방정부는 불황으로 종업원을 감원시켜야하는 업체를 위한 5천만달러의 긴급원조기금을 마련, 해고대신 파타임 으로 고용하면서 실직수당의 일부를 탈수 있도록 하는 것과 기술직이민의 제한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액스워디이민장관은 22일 의회에서 통과,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시행될 이 계획이 불황타개의 근본해결책은 못됨을 인정했다.

캐나다통계국의 통계에 따르면 81년11월현재 캐나다의 실업자수는 92만8 천명이다.

기술이민의 동결은 실업자가 많은 광산업등에서 시급히 요구되고있다.

「액」장관은 3천만달러의 추가보조금이 기존직업 창출계획안에 이미지급돼 25개지역에 분배 될 것이라고 했다.

이 계획안의 보조금이 사용될지역은 주로 대서양연안, 온타리오, 퀘벡주등의 임업, 어업, 광업등 실업문제가 심각한지역이다.

해밀톤TV한국특집방송

28일~30일 저녁뉴스시간

CHCH-TV(Ch11)—해밀톤방송은 28일부터30일까지 정규뉴스시간(저녁 6시~7시)에 한국관계특집방송을 보여준다.

동 방송국은 오타와주재 켄·로랜스기자를12월초 한국에 파견한바 있다.

동프로그램에서는 캐나다의 월성 캔두원자로 건설현장등 캐네디안의 한국생활을 위주로 한국전반을 소개할 예정이다.

음주운전은
여러분의生命과
財產을 위협 합니다.

캐 나 다
외환은행
364-2890
2 FIRST CANADIAN PLACE SUITE 1140

▲ 폴랜드사태를 주시하는 교황.
교황 요한·바오로2세는 조국 폴랜드의 계엄령 선포해제와 평화적인 협상재개를 폴랜드 공산당정부에 요구했다.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믿고 살수있는
「로렉스 지정판매 대리점」
B) 534-7791, 534-9977
653 BLOOR ST. W(한국관앞)

◁금주의 행사▷

(81년12월28일~82년1월3일)

◇12월29일(화) 하오7시 공군발기모임
곳 : 거 구 장
연락처 : 857-1683(김대억)

◇12월31일(목) 하오7시 신우회 주최 송년파티
곳 : 거 구 장
연락처 : 743-8220(미스타 정)

◇12월31일(목) 하오11시 경희동문 송년파티
곳 : 63 CROOKED STICK RD. CONCORD, ONT.
연락처 : 669-5084

◇1월2일(토) 하오1시 노년회 정기총회
곳 : 한인회관
연락처 : 755-8079(노년회)

◇1월2일(토) 하오2시~4시 한인Y 교민을 위한 신년교례회
곳 : 한인Y.M.C.A.
연락처 : 536-1166(Y.M.C.A.)

〈새해연재예고〉

소설「영원의 방랑객」

칼럼 경제생활과 우리

◇고종옥 신부

본지는 보다 가깝게 독자에 접근하고, 정보, 지식, 정서등 생활 각방면에서 독자 여러분에 밀착된 반려(伴侶)가 되고자 아래와같이 새 연재물을 기획, 보내드립니다.

더한층의 애독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①장편소설「영원의 방랑객」, 고마태오 지음

신작소설「영원의 방랑객」은 토론토한인천주교회 주임이며 작가인 고마태오신부(본명 고종옥)가 펴낸바 있는「사랑의지도」「예수없는 십자가」,「이세상의 이방인」의 3부작 스토리를잇는 소설이다.

지은이가 1963년5월 프랑스에서 가톨릭 사제(신부)로 서품된후 캐나다에 와서 도밍고수도회에서 2년간의 수련을 거쳐 몬트리얼 대교구에 배속되어, 69년7월까지의 생활을 소재로삼은 자전적 소설이될 것이다.

고신부는「영원한 방랑객」에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시행한 쇄신의바람속에 격동하는 교회안에서 한젊은 신부로서 겪은 보람과 긍지, 그런가 하면 좌절감과 고독, 그속에서도 신의섭리에 생명을걸고 모험하는 신앙체험을 그려내고 있다.

한편으로는 이민교포들을 위한 사목을 실행하면서그들과 더불어 한인사회의기틀을 구축하는데 있어서의 수많은 에피소드를 묘사하고 있다.

「영원한 방랑객」은 15장으로 엮어질 것이다. —①잔느 수녀님께/②첫부임(고삿갓)/③보좌신부의 첫시련/④딴따라 미사의파동/⑤교포들과 더불어/⑥어린이 궁전/⑦이런일저런일/⑧세명의 사생아/⑨생일날에/⑩샘터에서/⑪베르나의 귀가/⑫모든길은 신에게로/⑬뒤집어진양말사건/⑭현의죽음/⑮영원한 방랑객

신년초부터〈한국일보〉에 연재할 내용은 위의순서중에서 제1장, 8장, 10장, 13장, 14장은 생략하고, 이부분은 지은이가 단행본으로 출판할때에 포함키로 했다.

고신부는 81년도에 수상꽁트집「고향에 못갈지라도」도 출판했다.

◇강상욱씨

②경제생활과 우리

81년은 부동산붐, 이자율의 상승, 하락등 유난히 경제문제가 신문 뉴스란을 장식했다.

81년 3/4분기, 4/4분기 연달아 캐나다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경기가 침체되었다.

80년 한때 화제가 됐던 금, 은등의 급상승은 81년은 잠잠했다.

연재할 예정이다.

우선 그 첫번째 시리즈로 강상욱씨의 〈투자상담〉을 10여회에 걸쳐 싣는다.

강씨는 서울상대 졸업, 미국 애틀란타시청 예산전문가등으로 활약했던 경제전문가로, 캐나다에는 74년 이민, 주식회사 삼화지사장등으로 무역업에도 관계했다.

78년부터 이곳 증권시장등 투자시장에 뛰어들어 투자전문가로 활약하던 중, 81년 미국계열의 증권회사 메릴·린치(Merrill Lynch)에 발탁돼 투자상담가로일하고 있다.

메릴·린치 증권 회사는 북미에서 가장 큰 회사로 북미 전역에 약 200개의지사가 있으며, 증권, 금, 은, 곡물등 투자물을 대상으로 상담을 해주는 회사이다.

독자 여러분이 본〈특집〉에서 의문점이 있으면 직접 메릴·린치의 Mr. Kang에게 전화하면 된다.

(416) 361-3428

◁알 림▷

크리스마스 연휴관계로 28 29일자 합판 발행합니다.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상점보험

B) 497-3800
R) 284-9052

여러분의 단골백화점
미도파로 오십시요.
미도파백화점
B.536-1692
R.245-3533
454 BLOOR ST. W. TORONTO. O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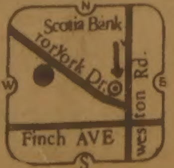
강화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주식회사 황용현부동산
HWANG
謹賀新年
지난해 동안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리오며, 부디 여러분과 온가정이 즐거운 성탄 맞이하시고, 보다 밝고행복된 새해 되시길 하나님께 기도드리 옵니다.
황용현 배
TOM HWANG REAL ESTATE LTD.
REALTOR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ONT.
TEL. (416) 449-8644, 8645(B), 286-1548(R) M3B 1Z3

NORTH YORK AUTO BODY
■사고시 보험관계 일체처리

★24시간 토잉써비스★630-0000
어느때를 막론하고 토잉해 드립니다.
● 사고차량 완전수리
● 페인팅(OVEN BAKED FINISH)
● 수리중 차량대여
● 각종차량 일체취급
TOWING 완전설비된 LICENSED
교포우대
송 대 헌
749-0555(B)
881-4053(R)
215 TORYORK DR.
1 block North of Finch
West of Weston Road.



MARVIN STARR
〈취급종류〉
소형차 : ACADIAN, PHOENIX SKY LARK, J2000
중형차 : LEMANS, GRAND·PRIX, CENTURY, A6000, FIRE·BIRD RIVIERA
대형차 : 스테이션웨곤, PARISIENNE, LESABRE, ELESTRA, PARK·AVENUE, 벤트러, USED·CAR
*Best After Service
*Best Pr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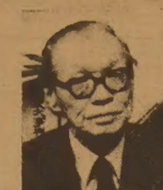
264-2311
(PAUL SHIN)
3132 EGLINTON AVE. E.
(Markham × Eglinton) 신 성 우

2ND CLASS MAIL NO. 5246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노년회장 선거열기

박학수, 조영호씨로 압축



◇박학수 후보

◇조[illegible]호 후보

22일로 마감된 노년회회장 입후보에 2팀이 등록을 마쳐 선거 분위기가 서서히 고조되고 있다.

지난 14일 박학수(회장 입후보), 전승윤.양혜신(부회장입후보)팀이 입후보등록을 한후 일주일이 넘어도 다른 팀의 등록이 없다가 등록마감날인 22일 하오4시반 조영호(회장입후보) 성용창, 김대보(부회장 입후보)팀이 등록, 양파전이 되었다.

원래 3개월전부터 김재용씨가 회장입후보로 등록하려고 규정대로 회원 30인 이상의 추천을 받는 등 만반의 준비를 했으나 같은 임마뉴엘교회 교인인박학수씨가 입후보하자 김씨는 등록을 포기했다.

김씨는 자신이 입후보않는 대신 현 정인기회장에게 재출마를 권고,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다짐했다.

정씨는 지난 16일 노년회성탄파티석상에서 재출마를 공언했으나 그후 태도를 바꿔 조씨를 차기 회장으로 밀기로 하고 22일 노년회 영어학교 종결식에서 정식 지지발표를 했다.

정회장은 조씨를 추천한 이유에서 "조씨는 전 김심도 노년회 회장시(78~79)부회장, 현재는 고문으로 뒤에서 숨은 봉사를 해왔다. 그동안 수고한 공로를 높이 인정, 내가 재출마하는 것보다 조씨가 한번 앞서서 노년회를 이끌게 기회를 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번 조씨의 추천인들이 대부분 원래 김씨를 추천한 사람들이었으나 김씨의 출마포기로 바턴이 정씨, 조씨로 옮겨갔다.

본보와 통화를 한 조씨는 추천인앙도의 합법성에 대해 추천인 본인들의 사전양해와 동의를 얻고 추천을 원치 않는 사람은 추천인 명단에서 빠졌다며 아무런 법적하자가 없다고말했다.

2년전 노년회회장선거때는 입후보했던 현 정인기회장과 김시몬씨 모두 토론토한인천주교인이었다.

이번 노년회 회장입후보자는 모두 임마누엘교회교인으로 재미있는 양상을 띠었다.

노년회 총회는 1월2일로 11시부터 선거인 접수시작 1시에 선거를 할 예정이다. 60세이상으로 81년도 회비를 낸 회원만이 투표권이 주어진다.

서울인구 870만
인구밀도 세계 3위

(서울 23일=연합) 서울의 인구는 금년 10월1일현재 8,676,037명으로 작년보다 3.69% 증가했다.

서울의 인구밀도는 13,836명/s.km로 파리(21,119명/sq.km), 도꾜(14,538명/sq.km)에 이어 세계3위이다.

남성인구는 총서울 인구의 49.4%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중 서울의 총가구수는 3.63% 증가, 191,514가구가 되었다.

올해의 인구증가율은 작년보다 0.58% 높았으나79년(3.71%) 78년(3.95%), 77년(3.73%)보다는 낮았다.

주간女性

제6대회장에 조정대씨
문협, 망년회겸한 정기총회

27일 저녁 이정원 부회장댁에서 모인 캐나다한국문인협회(회장 박충도) 망년파티겸 정기총회에는 회원내외및 초대손님으로 토론토대학 초빙교수 박동규박사내외까지 30여명이 저무는 세모의 밤을 즐겼다.

파티에 앞서 열린 총회에서는 82년도 제6대 회장에 조정대씨, 부회장에 박순배, 유정자씨, 감사에 손성호씨를 선출했다. 총무, 재무, 서기는 회칙에 따라 회장단이 추후 임명키로 했다.

만찬을 겸한 망년파티는 디스코 댄스, 노래등으로 긴 겨울밤을 수놓았다.

<송구영신> 수상

조국을 위하여 우는 사람들

강 신 봉(전 한인연합회장)

◇강신봉 씨

문자 그대로 연말연시라고 하면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계절이기에 으레히 할 일이라면 지난해를 돌이켜보며 새해를 설계하는 일이 될 것이겠고, 일가친지 어른들과 친구들에게 송구영신의 인사를 나누는 일이 또한 중요한 이 계절의 행사라고 하겠다.

일년중 그 어느때보다도 가장 엄숙하게 인생을 회고하고 설계하여야 할 이즈음이건만 실로 오늘날의 사회풍조는 꼭 그렇지가 못한 듯하다. 크리스마스하면 우선 친구들과 모여서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춤을 추고, 갖은 음란한 이야기와 행동을 일삼는 것이 모처럼의 기회인 듯이 생각하는 경향이 많고, 조심을 한다는 것은 기껏해야 취중운전으로 면허증을 빼앗길까봐 벌벌대는 것 뿐이다.

쏟아져 들어오는 크리스마스·카드마다 "즐거운 성탄절과 새해에 복 많이 받으라"는 귀절 귀절, — 모두가 고맙기는 하나 틀에 박힌 공식귀절이다 . 글자 열자를 쓰기 싫어서 장에 가서 돈 주고 사온 카드 에다가 그저 싸인만을 해서 열심히 띄운 귀찮은 인사차림의냄새를 그 좋은 종이위에서 읽을 뿐이다. 글쎄! 메카나이즈된 인사방법이라고 덮어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무가치한 크리스마스파티와 송구영신의 껍데기 인사차림이 싫어져서 나는 비교적 시간을 절제하고자 출입을 삼가며, 이번 휴무기간에 좋은 책이나 한두어권 읽고 싶어졌는데 , 어디 그렇게 한가하게 느껴질수가 있겠는가? 집에 있자니 아이들이 성화를 대고, 또 한편으로는 매스미디아 가 내 성미를 자극한다. 어쩌다 텔레비를 트니 긴박한 뉴스가 흘러나왔다.

"66명 사망, 오백여명이 부상, 앞으로 계속되는 공산주의와 자유의 투쟁속에서 얼마나 더 큰 비극이 터져나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우리가 예상하는 것은 피의 바다가 계속될 징조가 있음을 느끼는 것뿐이다. 마이너스 21도를 오르내리는 극한의 추위 속에서 연료가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자유가 없는 속에서 총칼앞에 울부짖는 폴랜드의 사람들! 수만명의 노조요원, 대학교수, 학생, 자유인사들이 계엄군에 의하여 체포되었고, 그들은 감옥이 모자라서 냉방의 군대 바락스수용소에 분리수용되어 이 추운 날씨에 떨고 있다. 폴랜드 남부에 주둔한 계엄군은 자기 동족에게 총을 쏠수 없다하여 반기를 들었다고도 한다. …캐나다를 비롯한 세계각국에서 쏠리대리티를 외치는 데모가 계속되고 있다. 오타와에서 천명, 뱅쿠버에서 2천여명, 퀘벡시에서도 4백명··일본의 노조원들도 수천명이 데모를 벌였고, 유럽 각처에서 수만명의 인사들이 데모를 계속하고 있다. ··"

이것은 지난 12월19일밤의 뉴스였다. 이러한 소식을 듣고 어찌 마음이 한가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술을마시며 흥겨운 내 육신을 파묻을 수 있는가? 팔순이나되어 보이는 늙은 노파 위에 화면이 확대되었다. 목이쉰 목소리로 폴랜드의 애국가를 부르며 조국의 자유를 외치는 그 노파의 눈에서는, 보는 이도 가슴이 찢어질듯한, 아픔의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조국을 위하여 우는 사람들— 이것이 어찌 폴랜드사람들만이 울어야할 일인가!

사람은 제 설움 속에서 남의 설움을 울어 주게 마련이다. 이 지상에 150여개의 나라가 있고, 40억이나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전쟁은 그칠 사이없고, 생존경쟁은 나날이 극심하여지고 있지만 폴랜드의 경우는 왠지 내 가슴을 찢는 듯이 애처롭게 한다. 왜냐하면 폴랜드는 무언가 우리 민족과 유사한 슬픔을 안고 몸부림치는 나라이기 때문이리라. 지정학적으로 강대국 틈에 끼어서 그들의 역사에 따라 이리 찢기고, 저리 흘러가야 하는 표류의 역사속에서 몸부림치는 나라이기 때문이리라.

거르만민족과 슬라브민족 사이에 끼어서 독일에게당하고, 소련에게 당하는 것이 폴랜드의 역사이었다면, 중국, 일본및 소련의 틈에 끼어서 언제고 강대국의 바람에 흔들려야 하는 운명이 우리 민족의 역사였다는것을 돌이켜볼 때에 동양의 폴랜드는 한국이고, 유럽의 한국은 폴랜드가 아닌가하고 느껴진다.

조국의 힘이 약할 때에 강대국의 입김을 벗어나지못하고, 자유를 그렇게 찾고 싶어도 헤어날 길이 없는사람들—굶어 죽고, 얼어죽고, 동족의 총에 맞아 죽고, 칼에 찔려 죽고, 나아가서는 서로 때려죽이는 이 비극—이것이 누구를 위한 슬픔이요, 아픔이란 말인가?

남북이 양단된 우리의 지난 날의 비극과 계속되는아픔이 저 폴랜드의 경우와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즐거운 크리스마스, 복받는 새해를 다짐하기에 앞서 조국을 위하여 우는 저 사람들이 남의 일이라고만 보아질 수 없는 아픔이 있다. 우리 민족이 다 같이 울어주어야 할 일들이 아닌가?

나는 캐나다로 이민온지 14년동안 내 민족아닌 남의 민족을 위하여 두번을 같이 울어 주었다. 그 첫번째는 월남인을 위하여 울어 준 일이고, 그 두번째는 이번에 폴랜드인을 위하여 울어준 일이다.

월남이 패망하고, 소위 "보우트·피플"이란 방랑의 비극이 시작될 무렵의 일이었다. 어쩌다 월남에서 왔다는 10여명의 학생들이 나의 농장에 와서 하루는 파트·타임일을 하게 되었다.

일이 지루하지 않기 위해서 심심치 않게 이야기를하면서 무우도 뽑고 있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이야기의 실마리가 "조국"이란 말로 유도되었다. 나는 나대로 조국이란 말, 민족이란 말, 그리고 세계정의란 말등을 정의하면서 그저 깊은 의미 없이 대화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 학생들에게는 그 말들이 상당히 무겁게 들려졌던 모양이다. 월남전과 결부하여 이런저런이야기를 하며 다소의 위로의 말을 건네주고 있었는데, 얼마쯤 나의 이야기를 듣던 한 학생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무슨 약속이나 했다는듯이 2십여명의 학생들이 들판에 주저앉아 다 같이 훌쩍 훌쩍 울기를 시작하는 것이었다. 나는 무엇이 잘못되었나하고 주의를하면서 왜 우느냐고 물었으나 아무도 선뜻 대답하는 학생은 없었다. 그러더니 한 학생이 갑자기 나에게 대들기나 할듯이 다가서며 목이 멘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나의 조국에 대하여 더 이야기하자 마세요. 우리는 조국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조국이 없어서 이렇게 지상으로 방랑하는 민족이 된 것입니다. 왜 우리의 아픔을 자꾸 찔러 주시는가요?·· 조국은요, 조국이란 것은 말입니다. 잘살 때는 잊어버려도 좋은 것입니다. 못살 때는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조국이 없을때는 이렇게·· 이렇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는 겁니다. 선생님! 캐나다같이 잘사는 사람들에게는 조국을 떠들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같이 조국이 없어진 사람들에게는 그 이상의 슬픔이 없어요. 우리는요, 우리「보우트·피플」은 어느 누가 취직도 잘 안 시켜줘요." 얼마후 후에 울음을 고정하고 그 학생은 다시 입을 열었다.

"따이한(대한)은 고마워요. 우리나라를 도와줬죠. 고맙습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따이한의 젊은이들에게 말씀 전해 주세요. 우리같이 조국이 없어진 후에울지 말고, 조국이 있을때에 잘 지키라구요."

그 학생은 다시 땅을 치며 통곡하고 울었다. 나도그 학생들과 같이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나는 그 학생들에게서 조국을 눈물로 배웠다.

그날 나는 농장일을 중단하고, 그들을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다. 모두가 넋을 잃고 울고만 있으니 어찌하라! 조국이 없어지기 전에 조국을 잘 지키라는 그 학생의 유언같은 말이 지금도 내 귓전에 들려오는 것같다.

나는 지난 19일밤 텔레비속에 비쳐나온 그 폴랜드인 노파의 눈물속에서 똑같은 말을 읽을 수 있었다.

월남학생들이 울었고, 폴랜드인이 우는 속에서 내눈에 눈물이 고임은 무엇 때문일까? 거기에는 분명히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이다. 약소민족, 외세에 흔들림, 공산, 민주, 억압과 자유, 지정학적 위치, 그리고 동족의 비극이란 공통성을 내포한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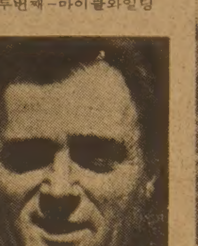
이 모든 비극은 이념의 대결에서 유래된 것이다. 공산, 민주란 말이 우리의 산물도 아닌데, 모두가 서구강대국이 세뇌시켜 준 구호물자들인데 우리는, 아니 모든 약소국가들은 그 이념에 중독이 들어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고 갈라놓는다. 그 갈라져 피흘리는 모습을 보고 강대국들은 희열을 느끼고 있는지도 모른다. 약소민족의 피흘림속에 무기를 팔아 먹으며 포식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우리 교포는 그러한 포식하는 무리에 끼어 내 조국의 비극을 잊어가고 있는 것이나 아닐까? 세계 정의와 힘의 균형이란 미사여구를 앞세워 무기장사를 하고,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란 용어가 만병통치약이나 되는 듯 때를 갈라놓는, 그 정치이념의 철학속에서 우리는 민족도 잃어가고, 부모형제에게 총질을 하는 것이나 아닌가?

새해 아침부터는 보다 차원높은 각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조국을 위하여 울어야 하는 저들의 슬픔이 무엇인가를 남의 일로 보지 말고, 우리의 경험으로 삼을수있는 높은 지혜와 아량을 느끼며 살았으면 하는 것이 새해인사대대신 드리고 싶은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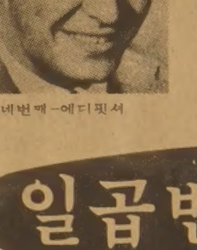
▲첫번째 남편-닉키힐튼

▲두번째-마이클와일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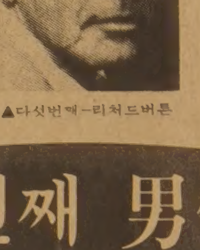


▲세번째-마이클토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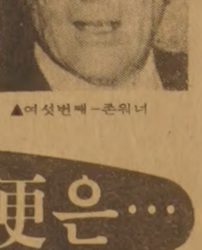
▲불행한 여인인가, 행복한 여인인가—남편을 여섯번이나 바꾼 엘리자베스 테일러의 남자편력은 영화화해도 괜찮을 정도로 화려하다.



▲네번째-에디핏셔



▲다섯번째-리처드버튼



▲여섯번째-존워너

일곱번째 男便은…

여섯번째 男便 워너議員과 別居선언한 리즈

워너와는 5년 結婚生活, "단순한 別居"라지만
거쳐간 男子는 모두 6명·버튼과는 두번式올려
前남편 3명死亡·혼차살리라' 믿는사람 없어

엘리자베스·테일러가 남편 존·워너 연방상원의원과의 5년간의 결혼생활을 청산하고 별거생활에 들어갔다.

테일러의 대변인 첸·샘은 21일 테일러와 워너를 대신하여 성명서를 발표하고 부부가 합법적인 별거를 하기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샘은 쌍방이 서로 원한을 품고 별거생활에 들어간것이 아니라 원만한 합의끝에 이뤄진 결정이라고 말하고 현재 아무도 이혼할 의사는 없다고 덧붙였다. 두 부부는 지난 1976년 12월4일 결혼했었다.

워싱턴 D·C의 워너 상원의원 보좌관들은 별거생활에대한 질문을 받을때마다 테일러의 대변인에게 물도록 요청했다.

전 해군장관이었던 54세의 워너는 버지니아주의 근대선거사상 가장 적은 표차이로 지난 1978년 연방상원의원에 당선되었다.

테일러는 남편의 선거운동을 도와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끌어모았었다.

테일러는 남편대신 공식석상에 나타나는등 정치가의 부인노릇을 하다가 최근에 『작은 여우들』이라는 브로드웨이 연극에 출연, 무대위에 데뷔했었다.

테일러의 대변인을 통해 뉴욕에서 별거가 발표되었을때 워너는 워싱턴에, 테일러는 LA에 있었다.

두 부부는 크리스머스의 의의를 살리기위해 테일러의 자녀들과 함께 크리스머스휴일을 함께 보낼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워너는 테일러와 2번째 결혼을 했으며 테일러는 워너와 7번째의 결혼을 했었다.

테일러의 첫남편은 호텔상속자 닉키·힐튼이었고 둘째 남편은 영국배우 마이클·와일딩, 셋째남편은 영화제작자 마이클·토드, 넷째남편은 가수 에디·핏셔, 다섯째 남편은 영국배우 리처드·버튼(두번째 결혼), 그리고 6번째 남편은 방금 별거생활에 들어간 워너다.

이들중 힐튼, 윌딩, 토드등 세남편은 이미 사망했다.

노년회 회장선거에 대한 호소의 말씀

동포 여러분께서는 새해에 만사형통 하시옵소서. 오는 1982년에는 우리 노년회가 새회장을 선출하게 됩니다. 그러하온데 이 노년회는 우리 부모님들로 조직된 회로써 때때로 어른들께서 회동하시어 친교를 도모하시는 한편, 젊은 우리들 세대에 우리민족 5000년 역사의 전통인 미풍양속을 시범해주시는등, 실로 이곳 우리사회의 중요한 기관인 만큼 그 회장선거 행사는 회원들은 물론, 우리3만교포는 직접적으로는 투표로 또는 간접적으로는 성원으로 이번선거에 꼭 참여하여 보다 적임자인 회장단을 선출해야 되겠읍니다. 그리하면"우리 교포들이 원하는 회장단은 과연 어떠한 성격의 인사들이겠읍니까?"라는 설문에 대하여 저희들은 다음의 결론을 가지고 이번의 회장단 후보를 대조, 참고하여 그 우열을 판단코저하는 바입니다.

①높은 관록의 저명인사가 바람직 합니다.

먼저의 말씀과같이 이회는 토론토 우리교포사회의 가장 중요한 단체로 1천 명의 회원까지도 가질수 있어 실로 우리대한민국의 재외 노인회로서는 가장큰회의 하나임을 자인하는 바로 이회의 대표자인 회장은 과연 저명한 인사로서 국내외의 어느곳에서나 정당한 인정과 존경을 받으시는 인사라야 하겠읍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박학수선생은 일찍부터 국내 금융계에 활약하시와 국가산업발전에 많은 공헌을 쌓으셨으며, 그후 이곳에 나오셔서도 실로 노익장의 기세와 청장 년을 능가하는 건강한 모습으로 년중무휴의 활동을 계속 하시므로 동료 노인들의 선망과 젊은이들의 존경을 한몸에 지니시면서 오랫동안 이곳 한인회와 노년회의 이사직과 고문직에 시간과 정력을 경주하시었을뿐만 아니라 물질적의 희사도 때를 거듭하면서 많이 하시었으므로 과연 우리교포사회의 존경을 받으시기에 합 당한 인사로 노년회장되시기에 만족한 공적과 능력을 구비하신 분이십니다.

②여유있는 재력의 소유자

우리노년회 회원다수는 생산력이 없는 노인들이기 때문에 그회의 재정은 늘빈곤한 상태에 놓여있읍니다. 그러므로 본회회장은 음으로 양으로 금전상의 봉공이 가능하여야 그회의 운영이 원만할것은 우리가 다 시인하는 바입니다. 이점에있어서도 박학수선생은 본시 봉사심이 크신 분으로서 70여평생을 근면 저축으로 많은 재력을 보유하시었는데 지금까지도 우리 교포사회를위해 물심양면으로 희사봉공이 많으셨음은 앞에 말씀하였거니와 이번 본회 회장이 되시면 배전의 희생을 각오하신것으로 선생을 회장으로 모시는 금후의 노년회는 그 운영이 크게 원활해질것은 믿기에 어렵지않은 사실입니다.

③외유내강의 인사

우리노년회 회원들은 이미 노쇠된후에 언어의 장벽등으로 항시 고독감을 느끼게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회회장은 그 회장직이 권도의 자리가 아니며, 봉사의 가시길인것을 자인하고 늘 온유겸손한 마음과 언동으로 회원들을 위로 무마하셔야 하겠읍니다. 또 우리회장은 외유에 내강도 겸비하셔야 하겠읍니다. 왜냐하면 이곳 토론토에는 많은 이민족들이 모여살고있어 물질적 또는 정신적으로우리 교포들을 범죄의길로 유인하려는 불순분자가 없지않은 데다가 특히 작금에는 평양의 망국적인 이질사상이 갖가지 관제와 감언이설로 이곳에사는 선량한 대한민국의 충성하는 우리들을 집요하게도 그민족멸망의길로 유도하려는 징조가 농후한 이때이니만큼 우리회장은 항상 명철한 두뇌의 판단과 강철같은 내강의 결심으로 그들의 갖가지 술법을 타파함과 동시에 회원들을 선도하여 행여 한사람이라도 그들의 함정에 빠짐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셔야 하겠읍니다. 이점으로 볼때 박학수 회장단은 실로 외유내강을 겸비하신 인사들로 조국 대한민국에 충성을 다하며 반공정신이 강철보다 더 굳건한 인사들이므로 이 시국에있어 우리 노년회의 지도자로서 가장큰 적임자라 하지않을수 없읍니다. 존경하는 토론토의 3만동포여러분, 저희들은 우리 노년회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위의 말씀드린 설문과 해답에 비추어 박학수선생 회장단이 월등한 회장의 자격을 구비하 였다고 확신하여 이같이 삼가 여러분께 호소하는 바이오니 특히 유권자 여러분 께서는 지연이나, 혈연등의 정실관계를 떠나서 오직 우리 노년회를 위하는 깨끗 한 양심의 투표로서 박학수선생 회장단을 선택하여 우리회를 그 본연의 자세를 견지케함과 동시에 그 건전한 발전을 이룩하시도록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1981년12월 일

박학수선생 회장단 당선 추진위원일동 근배

한국·북한 무기수출 활발

NYT보도, 남미국가들도 수출국 대열에

한국, 북한, 대만과 브라질, 아르젠틴등 중소공업국 혹은 개발도상국들이 지난 10년동안 주요무기수출국으로 등장함으로써 세계무기시장을 변형시키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이신문은 미국군비축소처 통계를인용, 중소공업국과 개발도상국의 무기수출액은 70년에 3억달러이던 것이 10년후인 80년에는 15억8천만달러로 무려 5배이상이 증가했다고 밝히면서 미국정부는 이에따른 대비책을 세우려고 골치를 앓고 있다고 전했다.

타임스가 보도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중소공업국이나 개발도상국과 함께 중공을 제외한 제3세계국가들이 생산한 무기는 액수로따져 70년에 10억달러이던 것이 80년에는 60억달러로 증가하여 세계 전체 무기생산액의 5%를 차지하게 되었다.

새로운 무기수출국으로 등장한 국가는 브라질,아르젠틴, 남아프리카, 이스라엘등이며 중소공업국이나 개발도상국으로서 무기수출국으로 특히 두드러진 활동을보인 국가는 한국,북한, 대만,유고슬라비아를 들수 있다.

미국정부 관리들은 이들 대부분의 무기수출국들이 미국산 부품으로 무기를 생산, 수출하고 있기때문에 이들이 생산한 무기를 제3세계에 수출하려면 미국의 승인이 필요한데 만일 미정부가 이를 승인치 않을 경우 흔히 미국과 수출당사국간에 긴장상태가 조성된다고 지적했다.

그예로 이스라엘은 카터행정부 당시 24대의 제트전투기를 에쿠아돌에 판매하려다가 미정부의 승인을 얻지못해 불만스러워 하던 중 수개월전 레건행정부의 승인을 얻어 수출했고 지난 77년 리비아에 4백대의 CASCAVEL 장갑차를 팔았던 브라질은 현재도 미국이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에 무기를 판매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일부 군사전문가들은 미국정부의 이같은 고민은 미국정부자체가 제3세계 국가들과 무기합작생산협정을 맺은 그들정책 자체의 소산이라고 지적하면서 미국정부는 이러한 현실에따라 무기합작생산정책와 재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따라 새로 부상한 무기수출국들도 미국의 간섭에서 벗어나기위해 그들의 무기수출전략을 바꾸고 있는데 예를들어 세계10대 무기수출국의 하나인 브라질은 이태리와 합작으로 항공기를 제작할것을 계획하고 있다.

▲크리스머스 자선연주회에 참석키위해 무거운 몸(임신중)에도 불구, 외출하고있는 영국의 찰스황태자비, 눈이 쏟아지는 밤거리 풍경을 둘러보며 입장하고 있다.

송구영신의 변

—「세계신체장애자의 해」를 보내면서

원종필

(온타리오한국맹인후원회장)

매년겪는 일이지만 12월이되면 누구나 할것없이지난 한해를 돌이키고, 다가올 새해의 계획을 위하여 분주하여지게 마련이다.

금년은 특히 몸과 마음이 제구실을 못하는 심신장애자들을 위하여 1976년 제31차 유엔총회에서 전세계 장애자들의 사회적 통합을 가하기 위하여 제정된「세계지체장애자의 해」(International Year of Disabled Persons=I.Y.D.P 약칭)로 선언 되었던 해다. 그동안 세계각곳에서 크고작은 많은 행사가 이루어졌고, 이에 뜻을 함께한 고국정부(보사부)도 법으로 제정하고 있는 각종 신체장애자의 자격제한 규정을 완전히 풀어 신체장애때문에 받는 불이익을 일소하고, 모든 자격취득과 이민법 제한규정을 신체장애를 결격자로 규정하는보사부 관계법을 모두 개정하여 모든 직종에 면허를 취득하여, 취업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등 각 사회단체, 종교단체, 연예인단체에서 합동으로 지체장애자들을 위한 모금운동을솔선함으로 세상사람들의 무관심속에 좌절을 거듭하며 사는 지체 부자유자들에게 신체적 어려움을 이기고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운동에 참여함은 어느 정부나 단체 또는 특별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만의 행사가 아니라 우리 개인개인이 참여함으로 세상에 살고 있는 일원속에 나를 발견하고, 나아가서는 인간은 영원히 산다는 진리를 실감 하여야 할 줄로 생각한다.

지구상에는 아직도 많은 빈곤과 병약속에 시달리는 불우한 이웃이 많지만 특히 어려운 가운데 고생하는 우리 동포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 문명의 혜택은고사하고, 기거할 거처가없어 거리를 헤매는 지체장애자들, 따뜻한 사랑을 모르는채 저버려진 고아들— 이 모두가 우리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불우한이웃들이다.

이제 한해를 보내는 시점에서 이때가 되면 선물 주고 받기, 또는 망년회, 신년회등 각종 모임이 많아지게 마련이나, 각자가 정도에 맞게 검소하고 조촐하게 지내며절약 하여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도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의 손길을 펴나감으로써 보다 인정이 넘치는 연말과 새해가 되기를 바란다.

교민동정

◆김하걸(UBA도매상 세일즈맨)=지난5월 결혼한 김씨는 지난 8일 1녀의 아버지가 됐다. 노스욕·제너럴 병원서 태어난 아기와 산모는 모두 건강하다.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0. yr. $8. mo. 구독료(선금)연 $99, 월$9. 영구구독 $500, ISSN03192962, 2nd Class Mail 5248.(416) 533—2361~4

한국관

연중무휴
오전11시
새벽1시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회의실 마련

봉사합니다.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성심성의껏, 염가로
단체손님 환영.
결혼피로연등 회의실 60석, 각종회의석 준비.

531 0277
대표 나옥녀
한국관

O.K. Auto Body
Call 251-9889
Hee-Sam Kim Res. 242-4551
138 SIXTEENTH ST.
M8V 2K1
WE ACCEPT ALL INSURANCE WORK

한국일보
광고문의처
533—2361

<매일연재 소설>

사슴을 먹고 사는 사람들(112)

팔리·모왓 원작, 원재훈 옮김

남아있던 개들이 이지의세상으로 내려가 살게되었는데 이것들이 당신과 당신의 먼 선조들의 시조인 카블루나이트 백인들이지요.

그때에는 그여자가 낳은 개들을 모두 태워 보내지않고 몇마리가 남아있었는데 이개들은 그 여인이 제일 좋아하는 것들이었읍니다. 그후 이 남은 개들이 나와 내종족의 조부가 되어서 첫번째의 인간인 이누이트가 된겁니다."

오호토가 이야기를 끝마칠때 음산한 먹구름이 그레이트레이크위를 휩쓸고 지나갔고 길게 신음 하여 부는 바람이 멀리서 들려오는 늑대울음위로 스쳐갔다. 우리밑에 탄탄한 바위돌로 이어지는 호수연변을 따라 이누이트가 살던 낡은 캠프가 있었고 캠프는 이땅의 죽은 영혼들 처럼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나는 텐트를 쳤던 자리주위로 둥그렇게 놓여진 돌들을 희미하게 바라보니 주위에는 잡초들이 높이 자라고 있었다. 텐트자리 저쪽으로 풍화에 갈라진 바위산 기슭위에 지진에 쪼개진 것같은 바위들이 비석처럼 거꾸로 서있었다. 거기에 그사람들이 있었다.

작은 돌들이 땅위에 난 회색종기처럼 바위표면위로 볼록 나와 있었다. 이 돌용기는 어두워지는 호수연변을 따라 조그맣게 솟아있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그첫번째 여인이 낳은 아들 딸들이 생전에 자기가 쓰던 물건을 옆에 놓고 모두들 깨지 못할 잠들을 자고 있었다.

16. 내륙의 바다로 부터

앙쿠니호수 주변에 사슴은 나타나지 않고 날자만 자꾸 갔다. 사슴이 도착하기를 초조하게 기다리는동안 나는 호수북쪽의 높은 평지를 답사해 보기로했다. 풀한포기 없는 자갈등성이의 여기 저기에서 지금은 없어진 그사람들의 발자취를 좀 더 더듬어볼 수 있었다. 하루는 이상하게 생긴 나무조각을 집어들고오호토에게 알아보라고 했더니 그는 석궁(石弓)의 한 조각이라고 대답했다.

어떤 에스키모 사람들도 이런무기를 써본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은 매우놀랄만한 발견이었다.

내가 더 캐여묻자 오호토는 전대에 살았던 이할미우트는 정규적으로 봄에 사향소를 잡아 그뿔로 활을 만들어서 사슴사냥에만 사용했다고 설명해주었다. 앙쿠니 호수가에서 발견된 부서진 활조각은 그의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말해주었고 지금은 이할미우트가 자작나무로 활을 만들어 아이들이 뇌조나 작은 짐승들을 사냥하게 할따름이다. 옛사람들이 석궁을 만들어썼다는데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지만 그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서 그런 무기 사용법을 배웠는지 모르겠다. 아시아의 평원에서 배워가지고 왔는지, 그렇다면 다른 나머지 에스키모 사람들이 모두 잊어먹고 있는 것을 왜 이사람들은 아직도 사용하고있었는지?

이할미우트의 역사는 신비에 쌓여있었지만 오호토가 나에게 이야기해 주었던 창세기 이야기속에 이신비에 대한 많은 힌트가 있는것 같았다. 오호토의 이야기속에 첫번째 여인이 살았던, 내륙에 있던 바다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레이트 베어 레이크인지도 모른다.

오호토가 이야기한 신화속에서 베어 레이크가 한때 이할미우트가 살고있던 본고장이라고 암시해 주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한번도 해안에 살아보지 않았던것 같다. 구전해 내려오는 이할미우트의 고든역사이야기는 짠바다에 전혀 살지 않았던 이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들이다. 내륙사람들의 언어와 풍습은 옛날 원시 에스키모종족이 다른 종족과 갈라졌던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주는데 이것은 이할미우트의 종교적인 것과 신기한 금기등 오직 툭투사슴만을 잡아 먹고 사는 생활토대위에서 발생된 유일한 내륙문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언어 역시 바닷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현저하게 다르며 세부적으로 다를뿐만 아니라 특히 바다에 연관되는 지식과 단어들이 전혀 없다.

1921년부터 1924년에 있었던 제5번 북극탐험대의 리더였고 자신이 혼혈에스키모였던 크누드 라스무쎈은 해안선 에스키모와 내륙평원 에스키모사이의 차이에 대하여 그럴듯하게추측을 한셈이다.

(계속)

서울염광여자고등학교 선교합창단 초청

신년음악회

일시 : 82년1월3일(일)저녁7시30분
장소 : 토론토한인장로교회

미국연합장로교단 초청 2회 북미순회공연중 토론토방문. 전국중고등부 합창경연대회 특상(세종회관 80년)노래하며 악기를다루는 한국최고 고등부 합창단이 희망찬 80년도를 맞이하는 교민들에게 신년음악회에 초대합니다.

(일정소개)

81년12월30일(수) : 토론토 도착, 시내관광
12월31일(목) : TV촬영, 송구영신예배찬양 밤11시 본교회에서 송구영신 영신예배 있음.
82년1월1일(금) : 양로원 방문
1월2일(토) : 노년회총회시 공연, 캐네디안을 위한 공연
1월3일(일) : 시내한국인교회 예배특송(오전중)
1월3일(일) : 저녁7시30분 교민을위한 공연
1월4일(월) : 미국으로 출발

테레비죤선교방송
생명의말씀
일요일 8:30-9:00a.m. CITY T.V. (Channel 79, Cable 7)
목요일 12:30-1:00p.m. M.T.V. (Channel 47, Cable 4)
토론토한인장로교회
TORONTO KOREAN PRESBYTERIAN CHURCH
TEL: (416) 535-6864

주최 : 토론토한인장로교회
후원 : 한국일보 토론토사 (535—6864)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78 BLOOR ST.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렛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 인

출퇴근 하시면서 아이보아 주실분 구함
(스파다이나 블루어 써브웨이 옆)
☎ 921—8102

RESTAURANT동업자 구함
BEER + WINE 라이센스가 있고 새 PLAZA내에 SETUP된 전망이 좋은 고급 식당입니다.
꼭 관심이 있는 분은
281—8218(오후2시~5시 사이만)
로 문의 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HELP WANTED
일본 음식점에 웨이트레스와 키친헬퍼구함.
☎ : 977—9519　195 RICHMOND ST. W.
일본식당마사

접시닦을 학생구함　주3일 근무
☎ : 421—6016

중역간부모집—어느정도 영어에 능통하고 용모단정한 분. 당회사는 기반이 잡혀있는 무역회사임.
☎ : 962—0019

남자 스토아 헬퍼구함
FULLTIME
☎ : 447—2116 MR. 윤

매매및 양도

이사관계로 급히 매매코저함. 짧은시간의(10 : 00AM~6 : 00PM)GIFT SHOP으로써 은종류, 크리스탈, 밥상보등 여러종류 취급. ☎ : 낮(656—6660), 밤(224—2227)

성능좋은 2 DOOR POP을 급히 구매코자하니 연락바랍니다.
☎ : 239—7267 미세스 신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5000다운페이+스탁
☎ : 251—1397

도나스및 샌드위치 샾급매
토론토 근교에 위치 뉴 오픈 스토아. 장래성 있는 지역, 비데오 머신으로 렌트카바, 관심있는 분은 연락바람.
☎ : 1-576-1732, 745—3498
미스타. 고

작은 그로서리 스토아 가정형편상 매매
이층방 포함　렌트 : $650
☎ : 656—7753

몬트리얼이나 유럽에 있는 빌딩이나 회사를 사는데 투자하시기를 원하시면 연락바랍니다.
4521 PARK AVE. SUITE 320, MONTREAL, P. Q
MONTREAL MANAGEMENT SERVICES Co.
☎ : 849—0959, 7374~6

베이뷰 & 휜치하우스 4베드룸+훼밀리룸 지하실, FIRE PLACE, 2개 가라지. 아스킹 : $189950
☎ : 221—9338(7시PM이후 연락바람)

듀폰 수퍼마켓 매매 아스킹 : $5000+인벤토리
☎ : 537—0982
(앨리나 SAM에게 연락요)

구 혼

구 혼 : 31세남, 유학생으로 현재대학원 재학중임
〈전공 : M. B. A.〉
☎ : (213) 383—2518 〈L. A. 저녁시간요〉

구 혼 : 1957년생(25세), 키167cm,
직업 : 컴퓨터, 결혼할 여자구함.
☎ : 534—9660

사무실·점포 렌트

조용한 사무실 세놓습니다.
(DUPONT & DUFFERIN)
☎ : 533—2364

미 용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킴스 미용실
B) 532—7094 R) 248—2437(코리아하우스 뒤

매매 부동산

복덕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주택전문 ☎ : (B) 752—3111, (R) 298—2546
확 석 용

보 석

다이아몬드·스타
공장가격으로 특별우대, 주문에 의해서 보증서 책임 신용본위 ☎ : 537—0432(B), 534—3346(R) MR. LEE

집·방세·하숙

분위기좋은 방, 세나 하숙합니다. 교통편리, 큰창문
☎ : 532—9139(Mrs. 조)

아십니까?
안내광고란의 위력을

시설및 수리

집수리·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 : 669—5784 미스타 심

TV 출장 수리
☎ : 431—0102　미스타 박

KIMBO ELECTRIC CO. :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보수, 가게신설, 용량증설, 전기일 일절 집 가게, 공장
☎ : (B) 245—5544(PAGING)2790, (R) 255—2161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 : 438—3795 김 영 호.

목공소　FineWoodwork
676•1173　769•9468　조 상 민
상점시설및 주택개조·사우나 설치
진열장·카운터·홈빠·책장등 가구제작

악기점

SOO PIANO SERVICE
조율 수리　SIMP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 : 222—4662 김 수 용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 : (R) 636—1430, (B) 783—6871
1178 EGLINTON AVE. W.　이 상 철

양장점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 : 532—5394(B), 742—0737(R)

샘터의 상실
숙녀복, 파티드레스, 웨딩드레스, 단체주문환영
☎ : 535—4441 606 BLOOR ST. W. 디자이너 MR. 김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이삿짐및 운송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라 운 수

에어콘·히팅·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판매·수리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캐나다 최신급 자격증 소지
24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환 영

Palmer's　시설·판매·수리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 : (B) 746—3840~1, (R) 493—9945 김 봉 균

센츄리 냉동　원 종 성, 이 인 식
☎ : 221—5441

KIM'S 냉장고, 에어콘
시설 수리일체
☎ : 749—3178 김 진 환

인벤토리

INVENTORY　—인벤토리—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가게를 매매 하시려고요??
(한국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533—2361

여행사

제일여행사
621A BLOOR ST. W.
535-2377　유지원.

천우여행사
720 SPADINA AVE.
928-3335　김현두

신세계여행사
712 BLOOR ST. W.
536-2155 김창범

서울여행사
631A BLOOR ST. W.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페인팅, 토잉써비스
95 PORTLAND ST. ETOBICOKE.
☎ : 255—2111(B), 828—5001(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 : B) 231—6951, R) 742—5408 오 세 호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 일체). 변 달 원
20 ROGERS RD. ☎ : 651—9324(B 226—5430(R

카펫·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펫·브라인드
2390 LAKESHORE BLVD.W.
☎ : (B)252—4857 (R)252—6602 유원덕

카펫 크리닝 : 카펫·소파·체어·자동차시트
☎ : 439—6277 박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럭키 DRAPERY
4141 DIXIE RD.(딕시×버남돌프)
☎ : 625—0698 최 원 보

꽃 집

크로스웨이(구 클레어리)
꽃 집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남마 김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875 JANE ST. TOR.
＊생화, 조화, PLANTS ＊GIFT취급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 주문 배달함.
☎ : B) 769—0609
R) 242—5194　여 정 웅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 751—5851　이 동 환

꽃도매상　437 CARLAW AVE. TOR
＊각종 CUT FLOWER. 생화. HANGING PLANT. TREE.
＊꽃과 화분을 취급하는 스토어
＊개업인사. 각종파티. 사무실용. 방문
☎ : 465—8167 (MR. 김, MR. 곽)

한방원

서울한의원
●30여년간 서울에서 한의원 경영
●대한한의사협회장의 한의학발전공로표창장10여회 수상
※진료과목 : 한방내과·신경과·부인과·침구과·산후보약
주소 : 10 Blackfriar Av #216 Weston, Ont.(Kipling×Dixon)
☎ : 247—9347　한의사 : 김 장 석 (황진함)

안강용한약건재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진품웅담●녹용●우황청심환●사향●경명주사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보제첩약및 각종병에 대한 처방약
8일영업 아침10시~저녁8시 (수요일 休んど)
차이나타운내(465 DUNDAS W.)
☎ : 363—3883, 363—2088 최 호 권

침 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회계사무소

공인회계사　이 명 세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AUGA 전화 : 273—7300

R.I.A.　김 인 규
ACCOUNTING & TAX　844—0178

태 권 도

손영수 태권 합기도장
2188 BLOOR ST. W. 사범 : 손영수
(AT RUNNYMEDE써브웨이) ☎ : 763—1155

박종수 태권도장(사범 박종수)
719 YONGE ST
☎ : 961—7100

임송학 태권도장
교포들에게 반액으로 봉사
1963 WESTON RD. (1층)
☎ : 247—7577 (웨스톤×로렌스) 로브로 앞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 751—9236, 757—2106 홍 진 표

SIGN & GRAPHIC, 건축설계상담시공
바우종합광고회사 637A BLOOR ST. W.
☎ : 535—0647, 465—1722 송 관 현

사 진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 촬영
○각종카메라·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증명사진
619 Bloor St.W. Tor. ☎ : 534—1085 김 춘 학

새한칼라 현상소
●결혼 ●돌사진 ●각종 증명사진 ●회갑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 : 535—7772　630 BLOOR ST. W. TOR.

무지개 칼라—　36 NEAPOLITAN DR.
438-4435
•VIDEO 촬영　•wedding
•commercial　•wall decors

60 MINUTE PHOTO LAB
●1시간에 모든 현상이 가능
●교포께 특별히 10% 할인해 드립니다.
●프린트 싸이즈(4×6)품질보장
●KNOB HILL FARM DIXIE MALL ☎ : 274—4323
50 BLOOR ST.W. ☎ : 967—7121

기 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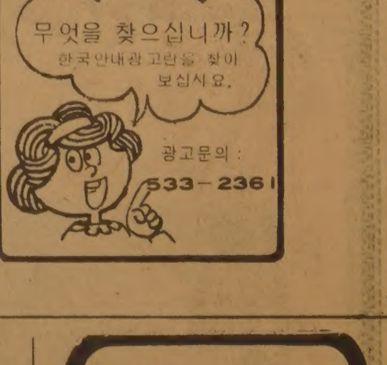
번역 CHARLES YU(유좌석)　통역은
10 SUNRISE AVE. UNIT203 TOR.　월요일만
통역 M4A 2R1 ☎ : 759—9505(5시이후) 합니다.

니폰·비데오　많은 한국테이프가 새로 구입
주6일 오픈. 1993 DANFORTH AVE. TOR.
☎ : 698—0633 고마구찌

통닭. 오뎅　한국인의 빈대떡, 통닭 전문
각종 샌드위치 주문환영
☎ : 537—0432　미스타 리

ZAP SUREKILLER ☎ : 368—9018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래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PICTURE FRAME WAREHOUSE
각 종 액 자
32A REXDALE BLVD., REXDALE ☎ : 746—2120 조 혜 숙



바다에서 플룻을 〈11〉

梁順錫 作
金鈴 畵

나를 구원해주리라면 악기는 나를 발밑에 굴든 여자로 타락시키는 전격적인 수단이 된 셈이었다.

『나는 네가 강인한 아이란 걸 믿는다。네가 혼자 견디어온 저 허허벌판에서의 아픈 시간들을 헌값에 팔지마。너를 지켜주었던 악기가 너를 범하도록 만들지 마。그건 죄악이란다』

『언니、화강언니、지쳤다고 말하지는 않겠어。지쳤다고 뻔뻔하게 말할만큼 내 삶에 충실했다는 자신은 없으니까。하지만 난 왜 자주 내가 가여워지는 걸까? 뭘까? 언니、세상은 내게 아무것도 준것 없이 내게서 빼앗으려고만 하는 것 같아。이 부당함이 나를 흔들리게 해』

『명혜야、그건 뱀의 혓바닥같은 거야。하나의 시련이야。우리가 기숙사 뒷산에서 종일토록 플룻을 불던 때를 생각해봐。그때 나는 네가 너처럼 아름다운 아이가 참으로 부당하게 버림받아왔다고 생각했지만 점차 네 자신도 그렇지 않았어。너는 사람으로 충만했어』

화강언니의 말처럼 세상이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부터 나의 행위와 내 모든 방식의 도덕성을 상실한 나는 사랑 대신 적의(敵意)를 키워갔다。

세상은 아무런 배려도 준비해두지 않고서 다만 갈취뿐이었다。

『문제를 풀어가면서 살아도 어려운 세상、문제를 만들어가면서 살 필요는 없는 것 아니겠소。어떻게 돈을 벌든 그건 가지고 나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돌아와 그때 멋진 예술을 하면 되는 거라고 난 생각해。요는 결과적으로 얼마나 승화되는가에 그 가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지 그 과정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씀이야』

겉모습은 영락한 예술인으로 보이는 술집의 지배인이 유혹인지 위안인지 모를 애매한 말을 했다。인생의 음지만을 밟아온 지배인은 내 갈등을 간파하고 있었던 것이다。나는 그에게 나의 더러운 손을 들키운 것처럼 수치스러웠다。

부(富)와 안락과 설움에 대한 동경、타인에 대한 끝없는 적의는 형체가 없으면서도 어떤 형상보다 뚜렷하게 나를 휘어잡고 있었다。나의 음악에의 열망은 바로 성공에의 끊임없는 욕구의 한 수단일 뿐 그 이상의 무엇도 아니었던 것이다。

나는 다만 성공하고 싶었고、성공을 위한 어떤 고통의 시간이라도 뛰어 넘을 수 있다고 믿었다。

심한 차체의 반동으로 내 오른편 어깨가 그의 몸으로 쏠렸을 때 나는 감았던 눈을 떴고 그때 내 눈은 마주 오는 트럭 헤드라이트의 강한 빛에 잠시 실명했다。

『밖은 벌써 어둠이군요』

나는 다시 눈을 가늘게 뜨고 밖을 내다보았다。차창에 바싹 눈을 갖다대어야 어둠에 잠겨든 풍경을 바라볼 수 있었다。어둠이 서서히 매립되어가는 산과 나무、그리고 인간의 양면성。

내 곁에 앉은 남자와、그의 아내와、화강언니、모두가 내게 아무런 갈등도 일으키지 않으며 완만히 다가오는 어둠처럼 새로운 무게로 나를 막아섰다。그리고 그들 중에서 하나의 얼굴이 나를 무서운 힘으로 사로잡았고、그 얼굴이 현실의 시간과 공간을 함께 누리고 있는 그였으므로 나는 행복했다。내가 지나왔던 시간과 그가 걸어지고 있는 고뇌를 모두 무화시키고 나는 그에게 다가가고 싶었다。

그러자 놀랍게도 플룻은 불고 싶다는 강하고 신선한 욕망이 되살아났다。

건강한 치아는
정기적 검사에서
한인 치과의사 일동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完全한新聞

北傀 올림픽妨害에 對處

어제 全軍주요指揮官회의 개최

"對南침투工作 다양화對備 지역별責任防禦체제 構築"

周國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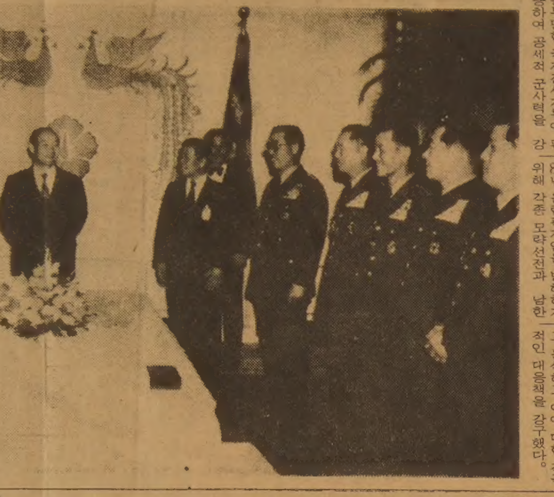
국방부는 22일 하오 周永福국방장관 주재로 국방부 제1회의실에서 81년도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尹誠敏합참의장, 黃永時육군참모총장, 李銀秀 해군참모총장, 李喜根공군참모총장, 朴魯榮 한미연합사부사령관, 朴贊競국방차관, 각군주요지휘관및 직할기관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북괴가 불투명한 국제정세기류에 편승하여 공세적 군사력을 강화하면서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올림픽게임을 방해하기 위해 각종 모략선전과 남한내에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을 강구했다.

또한 앞으로 예상되는 북괴의 각종 도발에 강력히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방기본정책과 이에따른 군사전략을토의하고군전력증강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周永福장관은 훈시를통해『최근 다양하게 변모해가는 북괴의 대남침투공작에 창의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역단위 책임방어체제를 구축해야하며 군·관·민협조체제및 동원체제를 보강하고 예비전력을 극대화하는데 주력하라』고지시했다.

한편 이날상오에는 육·해·공군참모총장 주재아래 각군별 주요지휘관회의가 열려 81년도 주요사업분석과 82년도 역점사업및 당면과제등이 각각 토의됐다.



各軍 주요指揮官등 全대통령 申告받아

全斗煥 대통령은 22일하오 청와대에서 주요지휘관회의를 끝낸 軍주요지휘관들로부터 신고를 받았다. 이자리에는 周永福국방장관, 尹誠敏합참의장, 各軍참모총장, 軍주요지휘관, 직할기관장등이 참석했다. <사진>

"어려움나눠 安定基調구축"

經濟운용 民間主導로 활성화注力

全대통령 輸出의날 致辭

全斗煥 대통령은 22일『우리는 어떠한 難局도 극복할수 있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경제발전을 위한 총力量으로서수출지원에더욱박차를 가해 나가야할것』이라고 말하고『이를 위해 먼저 우리경제의 體質을 강화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것』이라고강조했다.

全대통령은 이날상오 영부인 李順子 여사와 함께 서울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18회「輸出의 날」기념식에참석, 致辭를 통해 이같이 강조하고『體質강화란 다름아닌 공고한 安定기반의 주축인 것이며, 지속적인 안정이 약속되지 않는한 국제경쟁력의 강화도, 경제의 성장도 불가능한것』이라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또『당장의 苦痛을 나누지 못하는 愚를 범해 安定정책을포기한다면 최근 힘겨운 댓가와 희생을 치르면서 이룩한安定基調는 또다시 흔들리게 될것이며 體質강화를 위한 모처럼의 기회는 사라지게 될것』이라고 말하고『기업인과 근로자、정부와 국민모두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면서 安定기반을구축하는데 모든노력을 다해야하겠다』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정부는 앞으로의 경제운용에 있어서 開放과 경쟁의 原理에 입각한 민간主導의 자유시장경제를 活性化하는데 힘을 기울여나갈것』이라고 밝히고『자유롭고 창의적인 민간의 경제활동이 최대한 보장、육성되어야만 우리경제는 건강한體質을 가질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모든 직업인들의 天職의식과 직업인의식을 강조하면서『모든 근로자들과기업인들은 각분야에서 세계제1의 전문가가 배출될수 있도록 새로운 직업윤리와기업풍토를 조성해야할것』이라고 당부했다.

全대통령은 또『수출을계속 늘려나가기 위해 우리는 기술집약산업을 수출主力 산업으로 더욱 알차게 육성해나가야 할것』이라고 말하고『이와함께 뒤떨어진 部品공업을 육성하는 한편 기술혁신에 힘을 기울이고 高級人力양성을 게을리해서는 안될것』이라고 강조했다.

敎會·軍협상 진전

바웬사、敎皇에 메시지전달

波事態진정기미…바웬사등 곧釋放

【파리22日AP=聯】현재 바르샤바에 억류되어있는 것으로 알려진 폴란드 자유노조 지도자 레흐·바웬사는 21일밤 자신을 두차례방문한 폴란드 주교회의 사무총장 브로니스와프·다브로프스키 주교를통해 교황 요한·바오로2세에게 메시지를 전달한것으로 22일 알려졌다。

다브로프스키 주교는 21일밤 자정직전에 로마에 도착, 요한·바오로2세와 만나 곧바로 폴란드위기에관한 협의를 시작했으며 이자리에서 바웬사의 메시지를 교황에게 전달한것으로 전해졌다.

【빈22日EFE=聯】폴란드의노조지도자 레흐·바웬사가 억류돼있는곳에서 탈출을 시도했었으나 다시붙잡혔다고 미국의 ABC방송이 21일보도했다.

요제프·글렘프 가톨릭대주교 측근소식통은 교회측과 집권군사평의회간의 협상이 진행중에있으며 전망이 대체로 암울한 편이지만 약간의 고무적인 조짐도 나타나고있다고 말했다.

【런던·빈22日UPI=聯】계엄선포와함께 당국에의해 억류되고있는 폴란드 자유노조 지도자 레흐·바웬사는 상황이 허락하는대로 석방될것이며 계엄하에서 현재까지 체포된 약5천명중 일부가 공장지대의 간헐적인 소요진정기미에 따라 이미풀려나고있다고 런던과 빈에서 청취된 바르샤바방송이 21일밤 보도했다。

한국新人體育賞

最優秀 유도 河亨柱

제19회 榮光의受賞者 결정

한국일보社·日刊스포츠社 제정 제19회 한국신인체육상 최우수 신인상 수상자로 유도의 河亨柱군(19·동아대2년)이, 장려상 수상자에는 남자배구의 李鍾敬군(19·경북사대부고3년)과 탁구의 梁英子양(17·이리여고2년)이 각각 선정되었읍니다. 한국신인체육상 9인심사위원회 (위원장 金鍾烈대한체육회부회장)는 22일 한국일보 13층 회의실에서 13개종목에서 추천된 18명의 우수신인들의 기량과 가능성을심사, 이상과같이 수상자를 결정했읍니다. 시상식은 1월13일(수) 하오2시 본사13층 송현클럽 홀에서 베풀어집니다. ★관련기사9면

장려賞은 李鍾敬(배구)·梁英子(탁구)두 選手에

◇河亨柱선수

◇李鍾敬선수

◇梁英子선수

한 국 일 보 社

肥料판매값 14%引上

政府米도 2·9~4·7%까지

오늘0時부터

- 尿素비료 6천2백30원
- 複合비료 5천1백10원
- 정부미 5만5천9백80
- 보리쌀은 2만1천60원

정부는 23일0시를기해 비료 對농민판매가격을 14%(정부부담 3%별도)、정부미방출가격을 2·9~4·7%씩 인상키로 하는 한편 오는 82년 1월15일부터는 농기계 평균8·4%, 농약 평균8·5%씩 인상하는등 주요 농업자재 가격을 일제히 인상했다.

정부는 이번 비료값·방출미값 인상을 계기로 비료는 86년까지 매년 19%씩, 정부미 방출가격은 내년2월에다시 3%, 4월에 6%수준으로 연차 또는 추가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비료의對농민판매가격인상률19%중5%(약1백40억원)는 82년 판매분에 한해 정부가 부담키로 돼있어 농민의 구입가격은 14%가 인상되는 셈이다.

이에따라 비료의 對농민판매가격은 25kg부대당 요소는 현행 5천5백10원에서 6천2백30원, 복합비료는 4천4백40원에서 5천1백10원이 됐다.

이날 함께 인상발표된 정부미의 소비자가격은 80kg가마당 현행 5만4천3백80원에서 2·9%인 1천6백원을 올려 5만5천9백80원으로, 보리쌀은 76.5kg가마당 현행 2만1백80원에서 4·4%인 8백80원을 올려 2만1천60원으로, 혼합곡은 10kg부대당 현행 3천8백60원에서 4·7%인 1백80원을 올려 4천4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그러나 이번 정부미 방출가 인상에서는 지난7월인상때처럼 보통미는 현행(4만6천7백원)대로 두기로 했다.

◇정부미 放出價 調整內譯 (單位 : 원)

구분	단위	방출가격 현행	방출가격 조정	방출가격 인상률	소비자가격 현행	소비자가격 조정	소비자가격 인상률
쌀(上品米)	80kg/叺	51,680	53,280	3·1%	54·380	55·980	2·9%
普通米	〃	44,000	44,000	—	46,700	46,700	
보리쌀	76·5kg/叺	18,475	19,355	4·8	20,180	21,060	4·4
혼합곡	10kg/袋	3,486	3,657	4·9	3,860	4,040	4·7
혼합곡中쌀	80kg/叺	31,560	33,120	4·9			

◇비료 대농민 판매가격 (단위 : 원모)

구분		현행	조정 판매가격	조정 보조	조정 농가실구입가격
단비			(18%)	(5%)	(13%)
	요소	5,510	6,500	270	6,230
	유안	2,460	2,900	120	2,780
	용성인비(입상)	2,070	2,440	100	2,340
	용과린	2,070	2,440	100	2,340
	과석	1,870	2,200	80	2,120
	염화가리	1,900	2,240	90	2,150
복비			(20%)	(5%)	(15%)
	21—17—17	4,440	5,330	220	5,110
	17—21—17	4,300	5,160	210	4,950
	18—18—18	4,200	5,040	210	4,830
	22—22—11	4,630	5,560	230	5,330
	8—14—12	3,120	3,750	160	3,590
加重평균			19%	△5%	14%

농수산부당국은 비료값(농민구입가격)은 비료계정적자해소를위해 매년말 19%씩 5년간 연차적으로 자동인상하고 정부미방출가격은 82년도 물가억제선인 10~14%범위내에서 내년2월에3%선, 4월에 6%선수준에서 추가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기계는 현행가격대비, 機種에따라 2·3~9·9%까지 평균 8·4%를 인상했다.

대표기종인 경운기는 ▲디젤 8마력이 현행 1백30만7천5백원에서 1백43만3천2백원으로 9·5% ▲석유 10마력은 1백2만7천2백원에서 1백33만7천9백원으로 9·9%씩 인상하는한편 ▲정부의 중점보급기종인 이앙기는 1백43만2천2백원에서 1백46만5천4백원으로 2·3% 인상, 내년1월15일부터 실시키로 했다.

농약은 농수산부와 농협의 원가분석에 따라 일부인상요인을 경영합리화등으로흡수, 인상폭을 8·5%로 결정, 개별품목별 인상가격은 농협이 인상시행시기인 오는 1월15일 이전에 결정, 농약회사로부터 구매、농민에게 공급하도록했다.

농수산부당국은 이날 비료의경우 정부가 당초83년까지 비료판매적자를 없애기로 하고 매년50%씩 인상키로했었으나 이를 3년간연장, 오는 86년까지 매년 19%씩 年次的으로 올리기로 했다고 밝히고 다만 이번 인상분인 82년도에 한해 5%(1백40억원)를 정부에서 보조키로 했다고 말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國會 사무총장 禹炳奎씨 任命

丁來赫국회의장은 22일 朴浚圭국회사무총장의 辭表를 수리하고 후임에 禹炳奎청와대 政務제1수석비서관을 임명했다.

국회는 이날 임명동의형식이 필요해 곧이어 新任사무총장의 離就任式을 가졌다.

국회사무총장은 국회법제23條에따라 의장이 국회의승인을얻어 任免하게 되어있어 禹총장은 내년초 임시국회에서 동의를 얻을때까지 署理로 在任하게된다.

美에 超미니우체국

지난달플로리다주 오초피에 세워진 이초미니 우체국의 유일한직원은 에벌린·헐리여사。헐리는 동네사람들의 이름을모두 기억하고 있다.【韓】

美國人 식성바뀌어 과일·생선즐겨먹어

미국인들의 식성이 크게바뀌고 있다。전통적으로 즐겨먹던 스테이크 감자 닭 튀김 햄버거 달걀 버터등은 이제 기름기 적고 영양이많은 과일생선 채소등으로 식단이바뀌고 있다。

영양학자인 터프츠대학 진·메이어총장은「미국인들이식품영양에대한 과거의 무지에서 탈피, 건강식품으로 식사량을 줄이고 있을 뿐아니라 식사와 요리를 즐거운 오락으로 여기는 일대「변혁」을 맞고 있다고 말한다.

【LA支社】

한국일보

社会漫評

神父님대신…

地平線

1천3백년전 唐나라때 얘기다。明君으로 이름난 太宗이 史官褚遂良을불렀다。<너희들이 적고있는 기록을 한번보여주지않겠나。아무걱정을 안해도 좋아。내자신의 長點·短點을 알고 나중에 참고로 할뿐이니까><君主의 言行은 좋건나쁘건 모두기록에 남기는것이 저희들의소임입니다。법도에 어긋나지않게 행동하셔야 됩니다。또한 제왕이스스로 자기자신의 기록을 본다는 얘기를 들은바가 없읍니다。죄송하지만 기록보시는 일은 삼가셔야겠읍니다><그러면 내가 좋지 않은일을 한다면 그것도 적는다는 얘기인가><도를 지킨다는것은 자기직책을 다하는것입니다。제직책은 역사적사실을 그대로 기록하는것이기때문에 陛下의하시는일이 좋건나쁘건 그대로 기록할따름입니다>—史官의기록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말해주는 에피소드이다。▼前事不忘 後事之師—즉 역사적사실을 감추지않고 기록에 남겨 後世의 批判에맡긴다는 교훈을 우리나라에서 충직히살린것이 李朝5백년의 기록인 朝鮮王朝實錄이라고 할수있다。세계에자랑할만한 이李朝實錄등 국보급11만4천권을소장하고있는 서울대의 奎章閣이 21일부터 일반에 공개되고있다。이와아울러 서울대는 규장각한국본도서정리사업을 40년만에 마무리지어2천페이지나되는 종합목록을 간행했다。이목록편찬작업은 국학연구에 획기적계기가 되고도 남겠다。▼규장각은 이조22대 임금인 正祖가 1776년 왕실장서 3만여권을 소장케 하기위해 만든 기관이다。역대임금의 詩文、親筆、書畵、顧命、遺敎등을 昌德宮北苑에 새로지은 書庫에 보관케했다。御筆보관에서 한걸음더나아가 王權을위태롭게하던 戚里、宦官등의 횡포와음모를 누르고, 학식이 높은이로하여금 經史를 토론케 하여 정치의 득실, 백성의 疾苦를 살피는 한편, 문교의 진흥과 사회풍토 정화 까지 꾀 했다。말하자면 규장각은 단순한 도서관만은 아니었고 正論政治의 기록마저 남겼던것이다。▼규장각 도서는 한일합방후 조선총독부의 손에 한때 넘어갔다가 경성제국대학을 거쳐 오늘의 서울대에서 소장하게 된것이다。1930년부터 규장각총서라는 이름으로 고서복제를시작、靑丘永言·海東歌謠·大東輿地圖등이 출판되었다。이번 목록작성작업에서는 먼지속에서 抗日義兵記錄인 宣諭日記·仁祖實錄史草·獨島領有를 明記한 大韓輿地圖·白頭山定界碑地圖등이 나와 흥분을 자아내고 있다。▼奎章閣도서의 일반공개로 한국학의 문은 크게 열렸다。더많은 국학자료가 연구되고 햇빛을 보게될것을 기대해 마지않는다.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서울여행사
IATA
교포특별우대
수속에서 출발
관광, 도착까지
●국내·국제
항공표 일체
●이민·방문
초청 안내
631A BLOOR
ST. W.
535-6004,
8801
293-9970,
5823
최동주

謹賀新年

거구장을 항시 사랑하여 주시는 교민
여러분께 감사 드리오며, 복된 새해를
맞이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거구장 임직원 일동 배

「輸出」20年사이에 3백80배 늘었다

輕工業으로 시작…重化學이 주도

62년 5천6백만弗 77年에 百억弗 올해2百억弗기록

日에 商品뒤지나 市場개척은 맞먹어

○…1차5개년계획의 시작과 더불어 수출드라이브에 시동이 걸린지 20년. 그동안 우리나라의 수출은 약 3백80배가 늘어났다. 수출제일주의가 처음 제창된 62년의 수출실적은 5천6백만달러. 그로부터 2년후인 64년11월30일 1억달러선을 돌파했다. 정부는 이날을 기념해서 「수출의날」로 정하고 금년까지 18회째 수출의날 기념식을 거행했다. 이어 68년에는 5억달러, 70년에는 10억달러를 넘어섰고 77년12월22일에는 역사적인 1백억달러 돌파를 기념한 대대적인 축제가 벌어졌다.

이때까지가 우리나라 수출의 전성기. 1백억달러를 돌파한지 불과 4년만에 다시 2백억달러를 돌파하는 기록을 세웠으나 내용을보면 과거처럼 그렇게 화려하지가 못하다. 국제무역 환경이 그만큼 어려워졌을뿐 아니라 77~78년의 과열경기와 80년의 침체로 우리경제의 바이탈리티가 다소 둔화되지 않았나 싶다. 이제 한국의 수출은 재기의 기틀을 다져야할때가 되었다.

달이쉬워 2백억달러지 우리돈으로 환산하면 14조원. 매일 수출금액이 62년 한해의 실적과 맞먹는다. 더우기 앞으로 3년후엔 수출실적이 3백억달러로 늘어난다. 86년에가면 하루 2억달러씩(공휴일제외) 수출해야한다.

○…올해로 2백억달러수출국이된 우리나라는 10년전인 71년에 2백억달러를 돌파한 일본에 비해 수출상품의 고도화수준은 훨씬 낮은대신 수출마키팅에선 일본에 별로 뒤지지 않는것으로 분석됐다.

貿公자료에 따르면 71년당시 일본의 2백억달러수출실적 가운데서 重化學제품의 비중이 74.6%를 차지, 우리나라의 45.2%보다 훨씬 높은수준이었다.

重化學의 수출주도제품인 철강 자동차 선박등 3개품목이 전체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일본의 경우 32.3%에 이르렀던데 비해 우리나라는 철강등 이른바 종합산업의 성장으로 이들 3개품목의 비중이 현저히 증가한것은 사실이나 아직 18.4% 수준에 머물고있다.

경공업제품중에서도 우리나라는 노동집약적인 섬유 신발 완구류의 수출비중이 높고 특히 섬유류의 경우 올해 29.6%를 차지, 지난77년 1백억달러 수출때의 30.8%와 비슷한 수준이며, 71년당시 일본의 11.5%보다는 크게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지역별 수출구조면에서볼때 우리나라는 전체수출의 42.9%를 對亞洲수출에 의존하고 있는반면 71년당시 일본은 38.1%를 北美지역에 의존했다.

그동안 우리나라상품의 수출시장은 꾸준히 다변화되어 교역상대국은 1백70개국을 헤아린다. 아프리카의 내륙오지에서 남태평양의 외딴섬에 이르기까지 세계어느곳을 가나 한국상품이 눈에띈다.

○…우리나라 수출업계엔 묘한 징크스가 있다. 마치권투의 챔피언처럼 앞서달리면 추격당하고 과로하면 쓰러진다. 선두주자는 반드시 후발주자에게 추격당하고만다.

그래서 한국의 수출업계는 아직도 군웅할거의 판도를 벗어나지못하고있다. 60년대초반의 두 선각자 三護貿易과 天友社는 후발주자의 추격을 견디지못하고 좌절한 케이스. 삼호무역은 이미 업계에서 자취를 감추었고 67년까지 수출실적 1위를 차지했던 天友社는 中型무역업체로 명맥을 유지하고있다. 이밖에도 69년부터 71년까지 3년간 수출업계의 정상을 차지했던 東明木材가 파산했고 72년의 1위 연합철강은 주인이 바뀌는 悲運도있었다.

79년부터 내리3년간 랭킹1위를 고수하고있는 大宇실업도 요즈음 선두를 지킨다는게 얼마나 힘든일인가를 실감하고있으며 내년에는 現代綜合商事와의 선두경쟁이 어떻게판가름날지 재계의 관심사가 되고있다.

○…수출환경이 어려워지고 수출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속에서도 수출의 역군은 쉬지않고 뛰고있다. 쉴새없이 새제품이 개발되고 새시장이 개척되며 두각을 나타내는 수출업체가 등장한다.

鮮京化學은 자체개발한 비디오 테이프의 처녀수출 성공, 10월한달새 8백50만달러의 실적을 올렸는데 80년대 말에는 10억달러수출이 가능하다고. VTR용 비디오테이프는 美, 日, 西獨에 이어 4번째 수출국으로 등장했다.

東洋精密은 CRT터미널(컴퓨터단말기계) 수출로 1천만달러의 실적을 올렸는데 전망이 매우 밝다.

鮮信통상은 원목채취기(펌프재)를 개발, 산유국인 美國, 멕시코, 캐나다등에 수출하고있는데 금년중 3백만달러수출이 가능하며 매년 수출을 2배이상씩 늘릴수있다.

고려 프래필람베드社는 룩셈부르크의 알베드社의 기술을 도입, 스틸타이어코드를개발했는데 금년중 5백만달러를 수출할수있다고. 호주및 동남아등 제품생산시설이 없는지역에대한 수출전망이 매우밝다.

(株)雙虎는 일반합판에 티크나 한시플라이우드를 입혀만든 특수미장합판을 개발, 미국, 아프리카등지에 수출하고있는데 일반합판의 수출은 한계에 이르렀으나 특수미장합판의 수요는 무진장하다고. 雙虎는 작년 1백60만달러를 수출한데 이어 금년에는 4천만달러를 수출할수있다고.

이밖에 식품회사인 해태제과계열해태상사가 무역업에진출, 금년중 6천만달러수출이 가능하다는얘기고 중소업체인 南盛은 작년의 3백50만달러에서 금년에는 2천7백만달러로 늘어났다. 東和商社(목재, 합판, 흑판)과 東海産業(섬유류)도 3~5백%이상 수출실적이 늘어났다. 특히 東海産業은 제품고급화 남들이 싫어하는 소액주문수출을 통해 급신장하여 업계에 좋은 교훈을 주고있다.

【朴炳潤기자】

①美·이戰略協定중지 ②戰爆機계약위반 ③PLO本部폭격때등

"14세少年인줄 아느냐"발끈

「캠프데이비드協定」어두워

정적으로 신랄하게퍼부었다. 이는 양국간의 관계악화에 그치지않고 캠프데이비드 평화협정의 전망을 어둡게 한다.

미국무성은 이스라엘의 …

"美國은 우리를 세번 膺懲했다"

이스라엘 베긴首相 루이스美大使불러 호통

越南歷史 들먹…美공격

【워싱턴22日=曺洋煥특파원】골란고원「병합」에대한 울 미국과 이스라엘은 양국관계사상 최악의 상태로 빠져들고있다. 징으로 3주전에 서명된 미국―이스라엘전략협력협정의 중지를 18일 발표했다. 분노한 베긴수상은 20일 루이스 미국대사를 … 베긴수상은 베트남전쟁까지 들춰내어 미국을 …

이스라엘야당은 수상의 거친발언을 문제삼아 의회에 베긴불신임안을 내어 24일 투표할것을 제의했다.

베긴을 수상자리에서 물러서게 할지도모를 베긴발언을 요약해서 옮긴다.

『지난6개월동안 미국정부는 이스라엘을 3번이나 응징했다. 6월7일 바그다드근교 오시락의 원자로를 우리들이 파괴했다. 그 … 에서 국가적 자위행위이며 구제조치의 하나가 된다. 우리들은 9만 어린이를 포함해서 수십만시민의 생명을 전진셈이다. 그런데 당신들은 우리들을 응징한다고 발표하고 전폭기의 배달날짜가 적혀있는서명된 계약을 위반했다.

…당신들은 민간인의 생명손실에 관해 도덕적 측면에서 우리들에게 설교할 … 우리들은 민간인들의 사상자를 내지않으려고 늘애쓰나 베이루트시의 PLO본부 폭격때 일어난것처럼 때로는 불가피한 경우가있다. 일주일 전에 閣議제안 3분2 다수로 골란고원법(併合)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당신들은 또한번 이스라엘응징으로 뽐내고 있다. 이스라엘응징이란게 … 것을 말해야 겠다. 저항부쟁하고 견인각고한 경력을 가진 사람들로 閣議가 구성되어 있다.

당신들의 응징으로 우리들을 겁먹게 할수는없다. 당신들은 전략협력에관한 理解覺書 토의를 중지한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이전략협력의 토의재개 날짜는 자치에 관한 협상과 레바논사태 진전에 따라 좌우될것이라고 당신들은 말하고있다.

당신들은 이스라엘을 전략협력이해각서의 인질로 만들려고 한다. 당신들의 전략협력이해각서 토의중지발표를 그취소로 간주한다.

다모클레스의칼(위기일발의 불안한칼)이 우리들의 머리위에 걸려있는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국민들은 미국과 이해각서없이 3천7백년을 살아왔고 또 그것없이도 앞으로 3천7백년을 계속 살아갈 것이다. …원에서 …

…권리가 없다.

우리들은 2차대전의 역사를 읽었고 당신들이 적 … 어떻게 된 얘기인가? 우리들이 당신들에게 조공이나 바치는 속국인가? 우리들 …

…의 무기판매문제로 다섯표를 얻기위해 레이건행정부는 추악한 反유태인운동을 결들인것을 알고있다.

아무도 크고 자유로운 미국의 유태인사태를 겁줄수가 없다. 아무도 反유태인 선전으로 그들을 저지하는데 성공할수 없다. 그들은 우리편에 선다. 이곳은 그들 선조의 땅이며 그들도 이곳을 지지할 권리와 의무를 갖고있다. 와인버거씨는 골란고원법의 통과는 유엔安保理결의 242호를 해친다고 말했고 그후 헤이그씨도 그렇게 말했다. 누구든 그렇게 말하는것은 그결의를 읽지못하거나 잊어버렸거나 또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된다.

그결의의 요체는 승인되고 확정되는 국경결정을 위한 협상에 있다.

시리아는 우리와 협상하지 않으며 우리를 승인하지 않으며 또 승인하지 않을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리하여 242호의 요체를 훔쳐내 버렸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242호를 해칠수 있다는 것인가?

◇분노한 베긴…골란고원 병합후 미국을 비난하고나선베긴 이스라엘수상。

国際焦点

世界軍縮協商 시급

教皇, 平和메시지

【바티칸시티21日UPI=聯】로마 가톨릭교황 요한·바오로2세는 21일 모든 국가들이 방위를위해 자체무장할 권리는 있으나 핵무기와 세균무기의 엄청난 파괴력은 …

도지어將軍 國外에 억류

伊搜査官 납치직후 옮겼을가능성

【베로나21日UPI·AP=聯】지난17일 이탈리아의 극좌테러단체 「붉은 여단」에 납치된 나토남부지상군 사령부의 제임스·L·도지어미육군준장은 … 지어준장이 오스트리아 스위스 혹은 프랑스등 이탈리아 …

베긴 不信任案 동의

오늘表決 對美강경조치와 관련

【텔아비브21日UPI=聯】메나헴·베긴의 對美강경조치와 관련, 이스라엘국내여론의 비판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의회소수파 시누이黨은 21일 베긴정부에대한 불신임안을 동의했으며 이안은 23일 의회에서 토의된다.

波軍일부斷食 抗命將軍체포

神父구타·逮捕등 聖職者탄압도

保安軍에 위장蘇軍

【프랑크푸르트21日AFP=聯】…

家族에 새身分부여

【뉴욕21日UPI=聯】…

亡命大使 궐석재판

【런던21日AP=聯】…

용광로爆破위협

【뉴욕21日AP·UPI=聯】…

波국민抗爭 광범위

【워싱턴21日AFP=聯】…

對波貨物하역拒否

【뉴욕21日AFP=聯】…

美,波계엄事前알아

【본21日AP=聯】…

곳곳서亡命속출

【밴쿠버21日UPI·AP=聯】…

勞組동조자 肅淸

【빈21日UPI=聯】…

메아리

放學 노트

마이크로닉스設立

金星, 日社와合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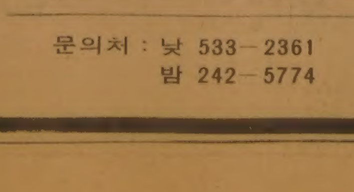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특급열차기다리는 오스트리아兵士 기관총으로 무장한 오스트리아국경순찰병이 21일 호헤나우역에서 폴란드·소련·체코·東獨등지의 여객을 싣고오는 쇼팽특급열차를 기다리고있다. 이곳은 東歐에서오는 열차의 첫西方기착지이다. 【호헤나우(오스트리아)21日AP=聯】

WORLD BOOK — CHILDCRAFT OF CANADA

아직도 WORLD BOOK을 구입 못하셨읍니까? WORLD BOOK은 북미에서 가장 많이 읽히고있는백과사전의 하나이며 유치원부터 대학까지의 과정에 꼭 필요한 책입니다.

★29,000이상의 사진, 그림, 지도및 차트포함
★어린이를 위한 SPECIAL VOLUME "CHILD CRAFT"



문의처 : 낮 533-2361
밤 242-5774

아직도 작년값으로 팝니다

밍크
털오바를
원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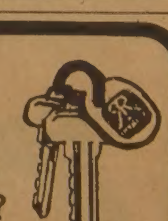
Paul Magder FURS
◆밍크털 오바◆

새 진열장을 갖추고 고객여러분을 모시고 있읍니다.
털코트, 자켓, 모자, 스톨, 털목도리등
BIG SAVINGS NOW!
▶신 품 : $99이상 ▶중고품 : $10이상

영업시간
9:30~6:00 월, 화, 수, 토
9:30~9:00 목, 금
202 SPADINA AVE.
☎ : 363-6077 MRS. PARK

海記飯店
HOI KEE REST.
— 싱싱하고 맛있는 —
달팽이 요리, 게 요리,
가재 요리, 조개 요리
한국인의 입맛에 꼭 맞는 진미 중국요리
가게가 끝나신후 꼭 들려 주세요
새벽6시까지 영업합니다
영 업 일 : 월요일~일요일
영업시간 : 오전11시반~새벽6시까지
※ 이 광고를 갖고오십시오. 10% 할인
133 DUNDAS ST. W
TEL. 977-3441
海 記 飯 店

각종부동산의
매매및 상담이
필요하십니까?



● COMMERCIAL AND INDUSTRIAL PLAZA BUILDING
● APARTMENT BUILDING
● HOTEL AND MOTEL
● NEW STORE LEASE

오랜 경험과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로 수익성 높은
투자를 안내해 드립니다

김 시 성
(B)497-0600
(R)298-8558
D.R. McALLISTER
250 Consumers Road

"廣開土大王 碑文中 일부造作 확실하다"

臺灣서 귀국한 李亨求·朴魯姬부부 주장

倭가 바다건너 新羅와·百濟복속시켰다

「辛卯年記事」부분 다른글자와 書體달라

廣開土大王碑文중 소위「辛卯年記事」의 일부가 書體上으로도 조작됐음이 확실하다는 새학설이 나왔다. 자유중국에서 광개토대왕비문을 연구하고 최근 귀국한 李亨求(정신문화연구원)·朴魯姬씨 부부는 지난18일 하오 延世大국학연구원에서 열린「廣開土大王陵碑文의 소위辛卯年記事에 대하여」란 연구발표에서 문제된 부분의「後」와「來渡海」는 書法·碑文의 딴글자와의 균형등으로 볼때「後」와「不貢因」을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李亨求　◇朴魯姬

일본참모본부 편찬과장 橫井忠直이 釋文한「百殘新羅舊是屬民由來朝貢而倭以辛卯年來渡海破百殘○○新羅以爲臣民」(백제와 신라는 예로부터 屬民으로서 조공을 해왔다. 그리고 後는 辛卯年에 바다를 건너와·백제와 신라를 파하고 臣民으로삼았다)이라는소위이辛卯年記事는일본 육군의 조작설이 거의 확실시 돼왔으나 일본은 이를 근거로 일본의 한반도남부경영설을 합리화했다.

李씨는 1880년대초 일본참모본부의 첩나라 스파이 酒匂景信이 1884년에 일본으로 가져온 雙鉤加墨本의 제4면끝에 있는「後」字가 일본참모본부가 해독작업을 한후에 사라진점에 착안, 문제의「後」가「後」를 개작한것이 아닌가 보고 書體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비문에 나타난7개의「後」와문제의「後」의書體를 분석한 결과 結構를 단리하고있고 이「後」字가 없어진「後」字를 개각한 것임을 밝혀냈다는 것이다. 李씨는「來渡海」도 문맥과 書法上으로 살펴볼때 의문나는점이 너무많고「不貢因」을「來渡海」로 改刻이 가능하다는 전을 들었다.

李씨의 주장대로 소위「辛卯年記事」의「後」를後로,「來渡海」를「不貢因」으로 바로잡으면「백제와 신라는 예로부터 屬民으로 조공해왔는데 그후 辛卯年부터「不貢(因)」하여 백제·왜구·신라를 破하고 이를 臣民으로 삼았다는 뜻이 된다. 【旦】

文化短信

서울大 奎章閣도서 어제부터 일반公開

서울大 규장각도서관리실(실장 愼鏞廈교수)은 규장각한국본도서정리작업을 마무리, 19일 규장각도서한국본종합목록(상·하권)을 발행하고 21일부터 보급이 많은 규장각도서를 일반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가로 19㎝ 세로 26㎝에 각 1천페이지의 이종합목록에는 규장각도서중 우리나라 사람이 쓴 11만4천여책의 목록이 수록돼있다.

内務部 88年 올림픽高速도로 연변의 住宅·道路등 정비키로

84년까지 總2백億원 투입

【南原=聯】정부는내년부터 84년까지 3년간 총2백억원을 들여88올림픽고속도로연변의 주택·도로등 환경을 종합적으로 정비개발, 도로환경을 쾌적하게하고 주변지역을 발전시키기로 했다.

21일 내무부가 88고속도로 통과지역 4개도 10개시군의 내무국장과 시청·군수에게 시달한 고속도로주변 정비지침에 따르면 환경개선사업으로 취락구조개선과 조림·사방사업을 실시하고 생산기반시설로 마을진입로 정비·하천정비·경지정리등의 사업을 84년까지 모두 끝내 경부고속도로 주변수준으로 도로변을 정비한다는것.

이 지침은 각 시군이 정비대상물량을 조사, 내년1월10일까지 보고하면 내무부가 1월30일까지 종합정비계획을 확정, 2월부터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돼있다.

폭풍주의보 無視 出航운반선 침몰

【東草=聯】폭풍주의보를무시한채 무단출항했던 소형자재운반선이 심한 격랑으로암초에 부딪쳐 침몰, 선원1명이 숨지고 선장이 실종됐다.

21일 강원도 東草지구 해양경찰대에 따르면 지난19일 하오 5시30분께 襄陽郡 南面 李洞항에서 도로공사용자재를 싣고 12㎞떨어진 北面 天府항으로 가던 동원호(3.5톤)가 北面 觀音島남서쪽 10m해상에서 암초에 부딪쳐 침몰됐다는것. 이사고로 선원 吳相陽씨(24·襄陽郡 南面 李洞3洞)가 익사하고 선장 鄕天明씨(38·〃)는 실종됐다.

채탄機械化 本格추진

高性能여과기로 지하수流失炭방지

【太白=聯】太白市 長省洞 太白광업소는 지하수를 통해 유출되는 유실탄 방지를 위해 최신형 여과기를 도입, 본격적인 기계화 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21일 太白광업소에 따르면 현재 시도하고 있는 수압식 채탄방법의 하나로 병행하고 있는 이 계획은 이제까지 지하수를 통하여 죽탄이 된 상내에서 하천으로 유출되는 탄을 여과하지 못해 그대로 버리게 되는가 하면 하천까지 오염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으나 고성능 여과기를 설치, 광속에 섞인 탄을 95% 흡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고성능여과기는 지난달말 독일로부터 1억6천만원에 1대를 구입, 시험가동한 결과 시간당 18톤의 석탄을 지하수에서 여과해 내는데 성공했다.

또 수압식 채탄법에 따라 일정량의 물을 24시간 계속 사용키위한 고압양수기를 내년3월 2억원을 주고 구입할계획을 세우는등 기계화 채탄법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고성능 여과기가 太白시내 각 광업소마다 설치될 경우 高池川은 물론 洛東江상류의 하천이 맑아질 전망이어서 주민들의 관심이 크다.

科學화제

국내유일의 암치료센터 원자력病院 신축

50메가電子볼트 中性子치료장치

에너지硏 5개년계획…86년완공

◇신축될 원자력병원 조감도.

우리나라 유일의 암연구병원인 原子力병원이 본격적인 암연구와 진료사업을 펴기위해 발바꿈한다. 이를위해 한국에너지연구소는 최근 原子力병원발전5개년계획을 마련, 오는26일 기공식을 갖는다.

한국에너지연구소가 마련한 原子力병원발전5개년계획은 86년까지 총2백25억원(내자 1백30억원, 외자 1천3백만달러)을 투입, 서울道峰區孔陵洞 동연구소 구내에 지하1층, 지상8층 延9천3백여평의 현대식 5백베드규모의 병동과 연구동을 짓고 50메가電子볼트급의 의료용 사이클로트론 中性子치료장치를 비롯, 각종 최신암연구및 치료기를 갖추어 본격적인 우리나라 암연구및 진료사업을 펼친다고 되어있다.

이를위해 한국에너지연구소는 우선 84년까지 병원유지에 필요한 전체지원부서 건물을 완공, 이전한 계획이다.

신축 원자력병원 완공과함께 갖추어질 주요 최신 의료기기 가운데 50메가전자볼트급 의료용사이클로트론 중성자치료장치와 마이크로트론, 포지트론카메라등이 포함되어 있다.

原子力병원은 새로 도입될 의료용사이클로트론을 이용, 의학연구와 진료에 필요한放射性同位元素 40개核種을 생산 보급할 계획이다. 특히 사이클로트론에서 만들어진 中性子를 직접 암치료에 이용할 계획인데 이렇게되면 우리나라도 암의 중성자치료시대의 문이 열려 암정복에 큰 발전이 기대된다. 도입될 의료용 사이클로트론은 웨에서 만들어진것으로 값이 자그마치 14억원(2백만달러)짜리.

延坪島의 追憶

나의 이력서 〈譜字·元一漢〉 元一漢 ㉒

延坪島를 출발 海州灣을 향해가노라면 황해도 延白땅이 불쑥 내민 반도와 만나게 된다.

우리의 작은「검은오리」號는 40마일가량 남은 海州灣에 쉽게 들어서지 못하고 이반도에 매달려 머뭇거렸다.

파도가 잠자기를 기다리며 무려 일시간을 이곳에 머물렀다. 어디에서 왔는지 주민들이 배근처로 몰려들었다. 그들로부터 닭과 달걀을 사고 모터도 다시 수리했다.

하오가 되자 새우잡이 어선들이 몰려왔다. 이 어선들은 파도따라 흘러온 것이다.

이들 고깃배는 무거운 닻을 달고 있는데 한국의 닻은 쇠가 아닌 나무로 만들어져 매우 컸다. 배의 크기에 관계없이 봉상사나울 정도로 크큰 모양을 하고있는 것이 특징이었다.

나흘째인 7월7일 날이 밝기가 무섭게「검은 오리」號는 육지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순조롭게 헤쳐나갔다.

항해가 순조로울수록 우리는 암초에 걸릴까봐 전전긍긍했다. 전날 암초에 걸려 고생한 일이 있기때문이다.

그때 커다란 돛을 단 일본배 2척이 우리곁을 지나갔다. 그 커다란 일본배들이 자유롭게 항해할 곳이라면 검은 오리號가 암초에 부딪칠 위험은 조금도 없었다. 우리를 태운 보트가 상오9시께 삼각모양으로 불쑥 솟은 섬을 돌아 나오는 순간 서쪽으로 몰아치는 강한 바람을 만났다. 검은 구름과 함께 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한 것이다.「검은 오리」號는 파도에 밀려 제자리걸음을 하곤했다. 시속 2노트의 굼벵이 같은 속도로 움직였다.

수많은漁船들 북치며 龍王祭

그래도 검은오리號는 끈질기게파도를 헤쳐나갔다.

배가 海州灣에 들어서서는 바람은 별도움을 주지못했다. 만내에서는 바람보다는 조류의 영향을 더받게 마련이다.

「검은 오리」號는 조류를 타고 大延坪島를 향해 미끄러지듯 달려나갔다. 피서방사의 맘대로 가스스 보트가 비스듬히 기울정도로 신나게 항진했다.

우리일행은 항해에 너무 열중한 나머지 식사하는것도 잊어버렸다. 때가 지나서야 샌드위치 한조각으로 뒤늦은 식사를 했다.

그런데 우리가 타고있는 보트와 延坪島사이는 모래톱으로 가득차있었다. 선장인 아버지는 모래톱의남쪽끝을 따라 미끄러져나가려고 생각하는듯 했다.

다시 바람은 잔잔해지고 우리는 모두 흥겨운 기분이 되었다.「검은

◇延坪島의 7~8월은 새우잡이철로 많은 어선들이 모인다. 부들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북과 꽹과리를 치며 춤추던 모습이 지어금도 눈에 선하다.

돛대에 五色깃발달고 술취한船員들 原色의 歌舞

오리」號가 아무리 속력을 내어도 섬과의 거리는 좁어드는것 같지않았다. 오히려 후진하고 있는듯한기분이 들었다.

하오6시반까지 순항을계속했다. 그날 하루동안 무려 38마일의 항해를 기록한 셈이다.

이날 우리가 정박한 인근에는 30여척의 새우잡이 어선들이 몰려있었는데 갖가지 색깔의 깃발을 달고 있어 장관을 이루었다.

술취한 선원들이 반라의 차림으로 갑판에서 북을 두드리며 춤을추고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아버지는 이것이 바로「바람과 파도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의식일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었다. 이런 의식은 보통 날씨가 나쁠때에올린다고 한다. 때로는 이보다 규모가 큰 제사를 지내기도 한다. 그러다 날씨가 좋아지면 다음날아침 출해를 떠난다.

우리 꼬마선원들은 이같은 이국풍경에 취한것도 잠시뿐 우르르 배에서 내려 바위틈에서 조개를 주우며 놀았다.

우리일행은 저녁을 먹고 어촌을 지나 산등성이로 올라갔다.「검은 오리」號가 정박한곳은 작은어촌이었다. 어둑어둑해지는 더운 어촌이 자리잡고 있었다. 70여척의 선박들이 어촌앞에 줄지어 정박해 있었다.

돛대위에 나부끼는 이름모를 깃발, 안개속에 비치는 모닥불이 별빛을받아 유령처럼 보였다. 그속에 술취한 선원들의 모습과 함께 꽹과리와 북소리가 무언가 소리치는 음성에 뒤섞여 가느다랗게 들려왔다. 한국에서 처음 맞았던 이국적인 정경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오리·고니등 철새도래지 22個所 保護구역으로 指定

【大邱=聯】경북도는 22일 오리·물오리·고니·백고니·기러기등 겨울철새가 와서 머무는 17개소와 어치·홍새·멧비둘기·물까치·찌래르기·매류등 여름철새가 도래하는 5곳등 철새도래지 22개소를 보호구역으로 지정, 보호활동을 강력히 펴기로 했다.

도는 이들 지역에 대해 인근학교나 지역자연보호회를 담당보호단체로 지정해 사람의 접근과 소음방지·폐유등에 의한 오염방지·포획단속·안내표지판 설치·먹이주기등의 보호활동을 펴도록했다.

보호구역별 철새는 다음과 같다.

◇겨울철새도래지(17곳) ▲慶州보문지=오리·고니 ▲龜尾금오지=오리 ▲義城郡安溪面계천지=오리 ▲達城郡求智面道詔洞낙동강변=백고니·기러기 ▲安東댐=오리 ▲安東郡吉安面반변천=오리 ▲盈德郡오십천=오리 ▲永川자양댐=물오리·고니 ▲慶山郡珍良面문천지=백고니 ▲慶山邑남매지=오리 ▲金陵郡代項面봉산지=오리 ▲尙州郡商里面청상저수지=물오리 ▲尙州郡洛東面낙동강=물오리 ▲尙州郡中東面주강천=물오리 ▲醴泉郡知保面예천지와낙동강변=기러기 ▲醴泉郡龍門面오남지=오리

◇여름철새도래지(5곳) ▲高靈伽倻山=곤줄박이·어치·홍새 ▲尙州俗離山=직박구리·멧비둘기 ▲青松주왕산=지바귀·물까치·휘파람새 ▲龜尾金烏山=동박새·찌르레기·황여새 ▲浦項앞바다=매류·기러기류·고니

가정의 벗 한국일보

Canada Post　Postes Canada

새 우편요금 제도가 1982년1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81년1월1일부터 시행되는
새 캐나다 국내및 국제우편료

비지네스 우편이용자에게 적용되는 우편료를 포함, 새 우편요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가까운 우체국에서 얻을 수 있읍니다.

국내우송우편

1종우편	0～30g		.30¢
속달우편	1종우편요금외		$1.00
배달증명우편	1종, 3종 혹은 4종우편요금외		$1.00
등기우편	1종우편요금외		$1.85
축하카드	0～50g		.30¢
3종우편	0～50g		.30¢
소 포			
예)			
2kg(4.4lbs)	토론토→위니펙	1종	$4.00
		4종	$1.75
	몬트리얼→퀘벡시티	1종	$2.45
		4종	$1.30
전 신	50단어		$3.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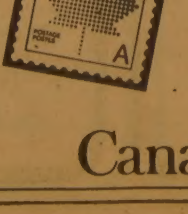
미국우송우편

항공우편및 엽서	0～30g	.35¢
	30～50g	.50¢
축하카드	0～50g	.30¢

해외우송우편

항공우편및	0～20g	.60¢
엽서	20～50g	.93¢
항공봉함엽서		.60¢
축하카드	0～20g	.30¢

The 'A' Stamp



새 30¢ 우표가 통용되기까지, 캐나다 우편공사는 "A"우표라고 불리우는 특별우표를 발행합니다. "A" 우표는 아무런 액면금액을 보이지 않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30¢의 가치를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은 캐나다 내에서 우송되는 우편에 한해서만 사용됩니다.

물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우표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Canada

李朝왕궁의證人 마지막 尙宮

살길막연… 餘生이 서럽다

生保者제외 洞會서 통보

외로운歲暮…끼니 걱정만

高宗·純宗 안방심부름 맡았던 89歲의 金命吉 할머니의 生涯

조선왕조 마지막 상궁(尙宮) 金命吉할머니(89)。 그할머니가 지금 살곳이 마땅치않다。 의지할곳이 없어졌다는게 정확한 표현이다。 파란만장의 근세사와 현대사를 몸소 살아온 이 「역사속의 서민」이 어느날 갑자기 생보자(生保者) 혜택에서 제외됐다는 통보를 받은것。 그렇지만 高宗과 純宗의 안방심부름을 도맡았던 할머니는 한마디의 불평도 없다。 「궁녀는 말이 없어야 한다」는 대궐의 법도가 뼈에 스며있는 탓일까。 그러나 할머니를 보는 주위의 눈시울은 뜨거워지곤 한다。 우리후손들이 「살아있는 역사」도 외면할만큼 그저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일까。

왕조 멸망의 수난사를 몸소 체험한 金상궁은 최근 동사무소로부터 『내년부터 생활보호자(生保者) 대상에서 제외키로했다』는 느닷없는 통보를 받았다。 4년전 宗壽를 떠나 오갈데가 없게되자 현재 기거하고있는 한점의 혈육인 동생 金順伊씨(86·서울鍾路區苑西洞86의16)집에 와 눌러앉게됐다。 비원(秘苑)서쪽담을 끼고 2백여m를 가다보면 왼쪽 막다른 골목길에있는 11평짜리 초라한 한옥이 바로 金상궁이 살고있는 집이다。

고령의 金상궁자매에 관해 소상하게 그내력을 아는 이웃은 그리 많지않다。

13살나던해 金상궁이 궁궐에 들어가게된 사연도 참으로 팔자가 사납다。 1892년 서울사직골에서 당시 평리원(評理院) 고등관을지냈던 金詳奎씨의 3남2녀중 맏딸로 태어난그는 어머니 藏씨가 우연히 만난 중국에서 온 여자사주장이 점괘에 따라 상궁의 길을 걷게 된다。

당시의 관습으로는 상궁되기도 쉽지않았다。 윗대에 전염병환자가 있어서도 안되고、 대역적(大逆賊)이 있어도 안되는등 8가지사항에 결격사유가 없어야하고 반드시 부잣집규수라야했다。

이처럼 어려운 관문을뚫고 어머니의 손에이끌려 동갑나기인 당시 13살의 高宗비 尹妃의 상궁으로들어가게됐다。

이등박문(伊藤博文)에 의해 영친왕(英親王)이 일본으로 … 일대역사적사건의증인이된 그녀는 왕조가망하자 곧바로 昌德宮으로 옮겨와 왕족의뒤일을 도맡았다。 다른 상궁과나인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졌다。

日本에 볼모로잡혀가던 … 경술년 한일합방、기미년 高宗황제와 純宗의붕어등 …

80이넘은 상궁자매의 요즘 벌이라고는 거짓이 아닌정도로 한푼이 없다。 그래서 苑西洞사무소는 4년전부터 金상궁을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 매달 쌀·보리 한말과 연탄값 6천원을 보조해줬는데 이것이 수입의 전부였다。 병이나도 병원을 찾아갈수 없고、 명절이돼도 찾는 이가 없는 상궁자매에게는 그야말로 죽지못해 연명을 해나가야하는 생활의 되풀이었다。 4년동안의 생보자 혜택은 하늘의 도움이나 다름없었다。 「그러던중 22일 청천벽력과 같은 동사무소의 통보가 날아온 것이다。

동사무소의 이유는 간단하다。 지금살고있는 한옥이 金상궁명의로 등기가 돼있기때문에 앞으로 계속 생보자혜택을 줄수가 없다는것。 그러나 실제로는 이집은 동생 順伊씨의 소유고 현실상으로 등기명의만 金상궁으로 돼있다。

아직도 궁궐에서 하던습관이남아 발바닥을 땅에대고 걷지못하고 기침도 크게못하는 金상궁은 염주를 세면서 『궁녀는 세속사를 말하는법이 아니다』고 입을 다물지만、 동생 順伊할머니는 『내년에도 계속 생보자혜택을 받으면 좋겠다』고 주름진 얼굴에 걱정이 태산같았다。

가까운 이웃에서살아 두할머니의 사정을 잘안다는 金在歡씨(49·여)는 『최근 동네사람들로부터 金상궁이 생보자에서 제외된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과거를 살고있는 金상궁의 모습에서 우리할머니들의 옛날모습을 볼수있어 안타깝기만 하다』고 말했다。 【朴珍洌기자】

매달 쌀·보리 한말·炭값 끊겨도

"宮女는 世俗事말안한다"

기구한 人生…주위서 안타까워

◇극락에 어서 가야지 「극락에 어서 가야지」 조선왕조최후의 상궁 金命吉할머니。 9순의 나이에 외로움에다 생계까지 위협받게된 그는 오직 「극락으로가야지」라는 말만 되뇌고있다。

日照權시비 被害者 첫패소

"私生活침해 限度껏참아라" 上級審남아

서울地法

서울 慶興학원 教室일부 撤去소송

建物가치등 내세워 기각

우리나라최초의 일조권(日照權)법정시비가 피해자측의 패소로 끝나 최종법원에서의 판단이 기다려지게 됐다。

서울민사지법합의7부(재판장 文榮澤부장판사)는 22일 慶興학원(서울西大門區忠正路3街72의6) 부근주민 尹容南씨(57)등 6명이 이 학원을 상대로 낸 「건물일부철거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일조권과 사생활의 은밀은 침해돼서는 안되지만 그침해의 정도가 공동생활을 함에 있어 그건물의 사회적가치등과 관련、 최소한 참을수있는 한도내의 것이면 참아야 한다』고 밝히고 주민들의청구를 기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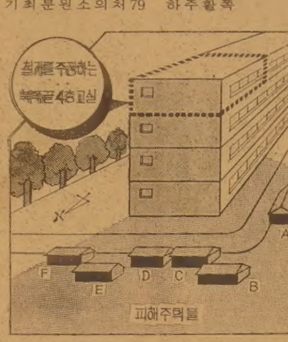
원고尹씨등은 대지 8백36평에 연건평 5천6백평의 4층콘크리트 건물인 慶興학원(이사장 金一潤)의 북쪽인 忠正路3街120과 서쪽인 32일대에 사는 주민들로 지난1월 학원건물 4층양쪽끝교실이 일조권과 「사생활의 은밀」을 침해한다고 주장、 『문제된 부분을 철거하라』고 소송을 냈었다。

주민들은 이에앞서 지난79년11월에는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내 대법원에서의 확정판결로 승소한후 본안소송을 낸것인데 당시 대법원의 확정판결은 비록 가처분신청에대한 결정이었지만 최초로 일조권을 인정한 획기적인 결정』으로 법조계에서는 받아들였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참을수있는 침해의 한도는 ▲지역적사정▲침해회피가능성▲건물의 사회적 가치▲당사자간 이익과 손실등을 감안해야한다』고 판시、 『이기준에따라 학원건물에대한 현장검증결과 건물4층에서 원고들의 주택내부가보여 사생활의은밀이 침해될수 있으나 일조권침해 가능성은 거의없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생활침해상황은 도시의 과밀화、 건물의 고층화에 따른 보편적인것으로 불투명유리를 쓰거나 차단시설을하면 침해를 줄일수있는 회피가능성이 있으며 ▲문제된 부분이 막대한 건축비를 들여 건축한 건물의 일부로서 건물의 유용성、 사회적가치에 비추어 철거는 교육사업을 하는 피고에게 큰 손실이며 ▲반면 철거가 안되더라도 원고측 손실은 치명적이 아니다』고 밝혔다。

어쨌든 하급심판결은 일조권과 사생활은밀의보장이란 자유권개념도 일률적으로 적용할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시의 현실을 감안하고 침해의 정도를 가려 개별적으로 적용해야한다는 취지로서 그 조화점을 어디에서 찾아야할것이냐가 앞으로 남은 상급심의 쟁점으로 부각되고있다。



내년부터 初·中·高교원 雜務줄여

各種 장부는 75%없애

초·중등교원의 잡무가 내년3월 새학기부터 대폭줄어든다。

문교부가 22일 국무회의에 보고、 확정한 「교원잡무 경감대책」에 따르면 82학년도부터 초·중·고 각급학교의 공문서유통량을 현재의 하루평균15건에서 33%감축、 하루10건으로줄이고 학교에 비치한 각종장부중 평균75%를 없애기로했다。

이잡무감축안은 특히 국민학교의 공문서발송부담률을 연간5백66건발송에서 3백23건을줄여 57%감축했고 중학교는 6백19건에서 1백98건을줄여 32%、 고등학교는 7백1건가운데 1백76건을 줄여 19%를 각각줄였다。

학교비치장부는 초·중·고교에 똑같이 필요한 법정장부3종(생활기록부、 건강기록부、 상벌대장)과 공통장부7종(학교교육계획、 학습지도안、 졸업대장、 입퇴학처리부、 출석부、 성적일람표、 학교일지)등 10개장부는 그냥두고 나머지 보조장부는 ▲국민학교11종▲중학18종▲고교19종만을 허용키로 했다。

현재 교원잡무의 대부분은 보조장부의작성이 차지하고있었는데 보조장부숫자는 각급학교가 모두 최소60종에서 1백40여종에 이르고있는 실정이다。

문교부는 또▲공문서 유통량의 감축을 위해 문교부및 상급기관을 제외한 모든기관에서는 학교에 문서를 직접 발송하지 못하도록하고 ▲교원·학생의 동원및 행사참가는 천재지변、 비상사태발생、 국경일、 국가원수가 임석하는 행사、 전국규모 공공행사외에는 일체금지하도록했다。

문교부는 이밖에 학교장책임을강화해 학교장중심의 학교운영체제를확립하고 학교감사에서 문서확인、 계량화위주의 장학지도를 못하도록했다。

심장병 韓國人미술學徒를 살리자

美전역서 사랑의 誠金

초상화그려 手術비용준비 알려져

【헤이스팅즈(네브래스카州)21日AP=聯】심장수술비가 없어 죽음을앞두고 있던 한在美한국인 미술학도가 미국전역에서 들어온 회사금덕분에 수술을 받게 되었다。 지난8월 도미한 미술학도 서정인씨(24)의 사정이 전국 신문에 보도되자 1주일내에 1만4천7백달러가 모금되어 수술비용 9천달러를 충당할수 있게 되었다고 헤이스팅즈대학종교학교수 스코트·머코믹씨가 말했다。 서씨는 크리스머스 다음날인 26일 휴스턴으로가서 심장외과 전문의 덴턴·쿨리박사의 집도로 그의 선천성 심장결함을 고치기 위한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당초 서씨는 도미직후 초상화를 그려 수술비용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헤이스팅즈에서 그를 치료했던 의사 리처드·프렌치박사가 수술을 먼저 받지않으면 초상화로 수술 비용을 마련하기전에 위험해질것이라고 말하여 모금운동이 시작되었었다。 프렌치박사는 서씨에게 6개월내에 수술을 받지 않으면 4~5년을 살지못할것이라고 주의했었다。

해외걸작만화

"You're confusing me, Miss Barlow."

『아가씨, 날 혼동시키지 마。』

"飽和서울"

昨年보다30만여명늘어 상주人口 8,675,037명

女子 9만여명많고 江北58%살아

서울의 상주인구가 지난해보다 30만9천2백81명이 늘어 8백67만5천37명이 됐다。

22일 서울시가 집계발표한 서울의 상주인구(10월1일기준)는 … 가구수는 지난해에 비해 3·63%(6만7천2백27가구)、 인구는 3·69%가 각각 늘었다。

서울의 상주인구 증가율은 79년 3·69%、 76년 5·3%、 77년 3·95%、 78년 3·71%보다는 둔화됐으나 지난해 증가율 3·11%보다는 0·58%가 늘어난것이다。

서울의 인구중 남·여 비율은 남자가 4백28만8천8백4명(49·4%)、 여자가 4백38만7천2백33명(50·6%)으로 여자가 9만8천4백29명이 많고 江南·北인구는 江南이 3백60만2천6백9명(41·5%)、 江北이 5백7만3천4백28명(58·5%)으로 아직도 江北이 훨씬많은데 江南인구비율은 지난해의 40·4%에서 1·1%가 늘어난것이다。

區별로는 江東區가 가장큰 증가율을보여 지난해 51만1천6백72명에서 58만9천4백77명으로 7만7천8백5명(15·2%)이 늘어났고 가장 인구가많은 區는 東大門區의 86만8천3백67명으로 지난해의 84만8천2백28명보다 2만1백39명(2·37%)이 늘어났으며 中區·鍾路區는 인구가 오히려 줄어들었다。

◇私立국교 關門을 뚫어라 22일 일제히 실시된 82학년도 서울시내 국·사립국교 신입생 추첨장에 모여든 학부모들。 서울敎大附國의 경우 12·7대1로 경쟁률이 가장높아 학부모들이 추첨결과를 초조히 지켜봤다。 【李昌淳기자찍음】

是非끝에 殺人 10代2명 令狀

서울九老경찰서는 22일 朴모군(16·고교재수생)과 林모군(16·〃)등 2명을 상해치사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崔모군(16·〃)등4명을 같은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의하면 이들은 21일 하오7시50분께 서울九老區九老2洞720의26 골목길에서 李相進군(16)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했다는것。

이들은 서울江西區 K중학 동창생으로 지난달 李군등과 편싸움을벌인일이있는데 이날 집에 돌아가던 李군을 불러 다시 시비끝에 숨지게 한것이다。

갬베일등 셋起訴

뉴욕檢察、 2백만弗사건 提報者제외

【뉴욕21日UPI=聯】뉴욕동부지역검찰은 21일 2백만달러증발사건에 관련된 범인 갬베일등 3명을 정식 기소했다。

이날 뉴욕 브루클린의 연방법원에서 검찰은 당초 예정했던 사실심리를 생략하고 23인연방대배심의 심리를 거쳐 갬베일과 마탈리父子등 3명이 수명의 공범자와 함께 뉴욕 라과디아공항에서 서울의 한국외환은행으로 수송되던 2백만달러를 절취함으로써 美형법의 5개항을 위반한혐의로기소했다。

골목서 主婦피습 50만원 뺏겨

21일 하오5시40분께 서울麻浦區西橋洞395주택가골목길에서 美都파백화점 부사장 崔炳昌씨(44)의부인 鄭美子씨(39·서울麻浦區西橋洞395의107)가 25~28세가량의 남자로부터 둔기로 머리를맞고 현금10만원과 자기앞수표10만원권4장등 50만원이든 핸드백을 빼앗겼다。

鄭씨는 이날 시장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갑자기뒤에서 청년이나타나 신문지에 싼 둔기로 우측머리를내리쳐 정신을 잃었다는것이다。

사건직후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 나온 이웃 주민 金모씨(35·여)에 의하면 鄭씨의 핸드백을 나꿔챈범인은 큰길쪽으로 뛰어가 미리대기시켜두었던 서울3나 27××호 승용차를 타고 달아났다는것인데 경찰조사결과 이차는 무적차량임이 밝혀졌다。

아기집 두곳 訪問 李順子여사

대통령영부인 李順子여사는 22일하오 서울恩平區大棗洞의 綠原영아원과 銅雀區鷺梁津洞의 聖勞園아기집을 차례로 방문、 수용중인 영아등을 위해 과자등을 선물하고 금일봉을 주었다。

한국일보 詩壇

續·어느紀行

尹崗老

가진자도
안 가진자도
같은 높이의 잠을 자는데
떠나온 자는
풀뿌리처럼 발이 시리다。

낯선 거리
꿈리지 않는 삶의 이야기
동냥으로
반짝이고。

불밝힌 기차
산굽이 휘어 간 후
흔드는 손 하나
나를 남긴
얼굴 하나。

잃은 것들은
산그림자에 묻어야지。
멀어져 갈라지는 소리에
열려있는
山河의 귀

세상사 떨려이는 바람인데
뼈마디 하나쯤에
빗금 그으며 사는
아픔도 있지만

旅情은
돌베개 베고 누워
하늘길 트며 가는
철새가 된다。

겨울 달빛
焚燎처럼
먼 마을 불빛 모아
별을 만든다。

두꺼비

안의섭

태평양화학
꽃그림
기침약을 찾으세요.
브론치콜
정찰가: 1,200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 Downtown Office : (416) 537-6685
8AM~6.30PM
621A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 Willowdale Office : (416) 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 에서 Bayview 거의 다 가서임)
* 평일 오후3시및 토요일에 오시는 분은 미리 전화 주십시오. ☎ : (416) 222-9480

서울식품
1. 싱싱한 민어회감 있읍니다.
1. 한국에서 직 수입하므로 싼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주소 :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머리털이 빠져 고민하십니까?
머리털을 보존 하십시오.
STOP HAIR LOSS NOW!
● 위험신호 :
①당신이 머리를 빗을때 빠지는 머리털을 많이 보십니까?
②머리가 가렵거나 비듬이 많으십니까?
③당신의 머리털이 건조하거나 아니면 기름이 많으십니까?
④당신의 머리가 잘빠지거나 불균형 하게 자랍니까?
당신이 위의 말 어느곳에 해당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늦기전에 전문가를 만나보십시오.
※상담은 FREE입니다.
영업시간 : 매일 오전11시~오후8시
토요일 오전9시~오후3시
Peoples Hair and Scalp Specialists
Bloor & Dundas Medical Centre
2333 Dundas St. W., Suite 305
537-3104

SAVE! SAVE!
집을 가지신 분들
당신의 히팅을 아껴 보세요.
겨울이 다가 옵니다.
PRE-WINTER SPECIAL
가스 난방 써비스합니다.
※오직 $30.—에 다음 4가지를 해드립니다.
● Vacuum Furnace & Vents
● Oil Furnace Motors
● Adjust Furnace Motors
● Clean Furnace Filter
FOR ONLY $30
연락해서 아끼세요.
☎ : 497-1841
MILLER REFRIGEATION
HEATING & AIR CONDITIONING

KAWAI 피아노
● KAWAI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큰 회사중의 하나입니다.
● KAWAI 피아노는 일본 정부에서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 KAWAI 피아노는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읍니다.
● HILLCREST MALL ☎ : 883-9407
● MARKHAM PLACE ☎ : 881-8211
대표 : 윤호섭
세일즈 매니저 : 알렌

佛光寺 법회안내
장 소 : 불 광 사
지도법사 : 석 광 옥 스님
법회안내 : 일요일 오전11시~12시(일반법회)
(청년회 교리연구)
일요일 오후7시~9시(좌선 : 참선지도)
주 소 : 288 Hownslow Ave. Willowdale, Ont. (Yonge & Finch)
전 화 : 223-9152

블론디

딘·영 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봐야겠어요"

"여보, 제가 기막히게 예쁜 야회복을 입고있는데요, 2백50달러에 싸게 파는 거예요"

"안돼"

"여보, 당신이 좋다고 말하신거죠?"

한국, 헝가리에 逆轉敗
張允昌 활약불구 서브등 불안

【함부르크(西獨)=金仁濬특파원】한국남자배구대표팀은 22일 새벽(한국시간) 이곳서 벌어진 제1회 西獨국제남자배구대회 2차전서 강호 헝가리에 3—1로 역전패, 두팀모두 1승1패를 기록했다。

이날 한국의 張允昌은 공수양면서 맹활약했으나 서브리시브가 불안하고 블로킹부진으로 패하고말았다。

한국은 23일프랑스(2승)와 최종전을 벌인다。

◇제2일전적

헝가리 3 (15-7, 15-4, 15-13, 15-17) 1 한국

프랑스(2승) 3—0 (1승1패)서독(2패)

蹴球집행부 改編
理事 8명보강…5개특별위도 創設

대한축구협회는 22일 축구발전 6개년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위해 집행부를 재편, 金武京전무이사(50·대한생명보험전무이사)를비롯 이사 8명을 새로 보강하고 5개특별위원회(국제, 사업기획, 상비군운영관리, 실업리그, 학교기술지도)를 창설했다。

협회부회장단과 이사진은 지난15일 전원 崔淳永회장에게 사표를 제출했었는데, 吳完建 朴東熙 金致云 세부회장과 李潤植(재무) 尹一梧(심판) 柳志錫(섭외) 孫壽榮씨는 유임되고 崔永槿 丁炳峰 金鶴錫 許永初 姜景勳 金建中등 6명이 물러났다。새이사 8명은 文正植 李鍾煥 金晶鎬 [illegible] 李永根 李[illegible]

朴元根등 3명장도 日國際마라톤 참가

제12회 요미우리국제마라톤대회(27일 日本防府市)에 朴元根등 陸軍3士소속선수3명이 참가하기위해 22일 상오9시 KAL기편으로 장도에 올랐다。

특히 이번대회에 출전하는 朴元根과 吳在道 柳文鐘등 3명은 2시간15분대 돌파를목표로 하고있어 이번대회에서 한국기록이 경신되지 않을까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선수단 ▲단장=鄭奉守 ▲코치=朴恒容 ▲선수=朴元根 吳在道 柳文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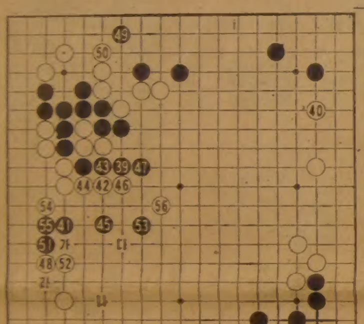
내년 亞洲競技에 女子弓道를 追加

印度의 제9회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는 내년11월의 대회종목에 여자궁도를 추가키로 했다고 22일 대한체육회에 통보해왔다。

아시아 경기연맹(AGF)은 지난11월26일과 27일 뉴델리에서 열린 총회에서 골프를 제9회대회종목으로 추가, 모두 21종목을 개최키로

제13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10局 第3譜 39~56 (각 5시간 덤 5집반)



白(6段) 徐能旭 〈0勝2敗〉
黑(7段) 徐奉洙 〈1勝1敗〉

徐7단은 2단때 제4기名人位를 쟁취하여 제8기까지 5連覇하다가 제9기名人位를 曺7단에 빼앗겼지만 다음 제10기에 탈환하는데 성공했다。바로 이제10기도전자결정리그에 첫등장한 徐6단(당시4단)에게 1패를 기록했으나 나머지5국을 전승하여 제11기에 또다시 曺7단에게 타이틀을 잃고 제12기에는 6전전승으로 도전자가 되었으나 1승3패로 분루를 삼켜야했다。

그것은 그렇고 이 「大徐小徐」의 名人戰대결만을 따진다면 지금까지 1승1패로 팽팽한셈인데 과연 이바둑은 어찌될는지 궁금하다。그간 두棋士가 각기 昇段位로 승단하며 남다른 발전을 보이고있지만 아무래도 원숙한면에서는 徐7단이 훨씬 앞선것이 사실。

쫓던 黑이 괴롭게되다

黑39를 당한 白3점을 깨끗이 버릴수밖에 없다。어설피 43자리를 몰고달아나면 물론 黑42로서 조임을 당하니 견딜수없다。그래서 숫제 방향을 크게틀어 우변을 白40에 육박전개했다。큰곳이다。

하지만 緩急을따진다면 좌변이더급하다。따라서 40은 「가」자리를 지켜야온당했다。당장 黑41이 준엄하여 徐6단은 또한번 애를먹게 되었다。

白42로는 44에서 몰고 싶다는 의견인데 이때 黑45가 徐7단답지않게 유약한수인듯。국후검토의 중론은 『45는 52자리에뛰어 白「나」黑「다」로 추격해야 自陣도 안전할것』이라고한다。

白48의 요소를 앗기자 黑이 오히려 허약하다。黑51도 직접53에 뛰고 白55면 뒷날 黑「라」의 맛을 볼정도。白52、54다음 56으로서 黑이 괴로운 꼴이다。【一九】

베니테즈 방어전 1월30일 두란과

【뉴욕21日UPI=聯】프로복싱 WBC(세계권투위원회)슈퍼웰터급챔피언 윌프레드·베니테즈(23)가 왕년의 라이트·웰터급 통합챔피언이며 WBC 웰터급챔피언이었던 로베르토·두란(30)을 맞아 오는 1월30일 美라스베이가스의 시저스·팰리스호텔 특설링에서 방어전을 갖는다고 21일 발표했다。

泰 2次戰개최희망 서울변경 韓國초청 토마스컵 배드민턴

【방콕21日=聯】오는82년1월 서울에서 한국팀과 토마스·컵 배드민턴 제2회전경기를 갖게된 泰國 배드민턴연맹은 이경기를 방콕에서 개최하기위해 한국팀을 초청했다고 차로엔·와타나신 泰國배드민턴연맹 사무총장이 21일 밝혔다。

… 새로 결정된 것이다。

81年의 社會
社會部기자 送年座談

辭典式 사건홍수 「多發週期說」까지

범죄는 거의「一攫千金」型
상대적으로 緊張풀린데다 20년病理 한꺼번에 터지듯

社會自生力 배양엔 轉機
젊어진官街…4개월된副知事·百39명의副郡守 물러나

食人상어에 행패부린 곰도 한몫…警察은 수치와 榮光이 키재기 1年

嬰兒들 集團사망 / 금복주폭파·협박 / 銀行 장난감強盜 / 法廷탈출극 소동 / 慶山서 列車충돌 / 稅務署員 살해 / 河형사 竊取사건 / 女大生피살·搜査 / 朱교사 弟子살해 / 大學 定員미달劇

—올해는 한마디로 「사건으로 해가뜨고 사건으로 해가저문 한해」였던것 같아。웬 사건이 그렇게 집중적으로 발생했는지。사건기자들의 발등에 붙은 불이 꺼질사이가 없었던 한해였어。

—누구 한사람 굵직굵직한건들만이라도 대충 꼽아보지。

—그거야 어렵지않아。潤相이 유괴살해 사건에서 부터 상경 여대생 朴尙恩양 피살사건、北部세무서원 姜貞根씨 피살사건、元曉路 尹景花노파피살사건、仁峴洞 화장품상李淸子씨피살사건등등。

—어떻게 피살쪽으로만 빠지는지 모르겠군。다른쪽으로 방향을 바꿔보지그래。

—慶山벌을 피로물들인 열차추돌사건、河英雄형사의 절도、서울남부지청의 법정탈주극、中谷洞한일은행 장난감권총사건、大一商고감 자살기도사건、名門大의 정원미달사태、피얼스 영아원의 영아집단사망사건、大邱금복주사장집 폭발물사건…。

—어디 그뿐이야。그 북새통에 엄청하게 뉴욕에서 일어난 2백만달러증발사건까지 찬조출연했잖아。

—일일이 꼽다보면 끝이 없을것 같으니 그쯤해두지。

—우리가 금년에 스크랩한 사건보도철(綴)만 봐도 예년의2배가 훨씬 넘는 양이었는데다 사건의 종류도 다양해있음직한 모든범죄와 사고가 모두 망라돼 있다고해도 과언이 아니야。

—한데 도대체 왜이렇게 된거지。그많은 사건이 하필이면 금년에 다 몰려서 터져나온 원인같은걸 생각해본적이 있느냐는 거야。

—심각한 문제제기지만 우리가 분석하긴 역시 힘에 부쳐。

—어느경찰간부는 사건이란 수년에 한번씩몰려서 터진다는 「사건주기설」을 펴지만 꼭 그런것 같지는 않고 역시 우리사회의 오염도가 세월과함께 그만큼 심각해져 가는게 아닐까。

—그건 일반론이고 내생각에는 사회의 긴장도와 관련이 있는것 같아。지난 79·80년 두해동안 우리사회는 엄청난 체제변화와 정치적사건에 압도되고 긴장돼있었잖아。그긴장이 올해정치안정과 함께 확풀리면서 사회적 사건이 속출한게 아닐까 하는거야。

—그럴듯한 이야기군。긴장도로 말하면 지금도 없달수는없지。

—정의사회、복지사회에 이르는길은 어느곳이 부정하고 어느곳이 그늘져있는가를 정확히 파악하는일로 부터 시작돼야해。그런의미에서 올사건은 모두가 의미심장한것들이야。河형사의 절도에서 우리경찰의 고민을、J君의 귀가조치에서 인권을、朱永炯교사 사건에서 28만 교직사회의 위기를 통감하는 계기가 된것이니까。

—사람이 죽어 이름을 남기듯 사건은 죽어 교훈을 남긴다잖아。

—그러고보면 최근 피얼스영아원의 영아집단사망 역시 세모의 거리에 충격을 가한 큰사건이었어。이사건은 엄격히말해 「사망」이 아니라 「살인」이거든。타락한 우리사회의 양심이빚은 「부작위에 의한 집단살인」이고 우리 모두가 공동정범이었어。복지사회의 출발은 우리사회가 통틀어 몇백명밖에 안되는 버려진아이들 하나 제대로 못키우고、굶어죽인다는 냉엄한 인식으로 부터 시작돼야해。

—올사회면 스크랩을 뒤지다보면 기가찬데가 한두군데가 아니야。정상인의 상식으로는 안통하는 희귀한 사건이 많았다는 것도 큰특징이 될것같아。

—지난봄 바다에 식인상어가 나타나고 산에 행패 곰이 출몰할때부터 뭔가 조짐이 이상했던것 아냐。

—그보다 먼저지。서울法大에 1백84점으로 「배짱입학」한때로부터 시작했던거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됐지。스님이 그것도 普門寺의 큰스님이 「살생을 말라」는 불교최고의 교리를 깨고 자기를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는가 하면 형사가 피해자의 예금증서를 슬쩍하고、교사가 제제자를 유괴해죽였지。모두 상식을 초월한 희귀한 일들이었고 또 그것때문에 경찰은 애를 먹었지。

—경제불황과 함께 일확천금을 노린 협박사건과 사기사건도 유난히 많은 해였어。

—지난2월의 고려병원폭파사건으로부터 시작해 大邱금복주사장집 협박사건、趙泰河 피부비뇨기과원장협박、뉴타운호텔사장협박사건이 꼬리를물고 일어났지。일확천금이라면 한신공영 15차분양소동을 빼놓을수없어。평당값이 사상최고인 1백38만2천원으로 치솟았는데도 투기꾼들은 구름처럼 몰려왔지。최악의 주택경기속에서 일어난 이변으로 기록됐지만 일확천금정신은 80년대에도 여전히 건재하다는 사실을 과시한 사건이야。

—사건의 홍수속에서 사회부기자도 혼이났지만 혼난곳이 한두군데가 아니었어。경찰에겐 1981년이 결코 잊을수없는 한해로 기록될거야。온갖 수치와 영광이 이속에 다 용해돼 있거든。

—潤相군 유괴사건이 터지면서부터 곤욕을 치르기 시작한 경찰은 尹景花노파살해、朴尙恩양 피살사건으로 비틀거리더니 河형사 사건이 터지면서 거의 빈사상태에 이르렀어。

—하지만 朱永炯을 잡으면서 경찰은 일대역전극을 연출한 셈이지。멋졌어。그직후에 있은 금복주사건의 해결은 권투로 말하면 피니시·블로인 셈이야。

—어디 곤욕을 치른데가 경찰뿐이겠어。교직사회가 온통 흔들렸고 법정탈주극은 사법부전체를 당황시켰지。

—제각기 흐트러놓지만 말고 이제 「81년의사건」을 매듭져보는게 어때。요컨대 81년의 사건의 성격을 한마디로 어떻게 이야기하면 되겠느냐는것 말이야。

—각자 자기가 취재한 부분에만 집착하면 안될테니까 역시 데스크급이 강파해야할 문제가 아니겠어。

—그걸 한마디로 규정한다는것은 애초부터 무리야。또 적당한 방법같지도않고。하지만 이렇게는 말할수 있을것같지않을까。올해의 사건은 그발생연도에도 불구하고 그내용면에서는 지난20여년간의 사회적인 병리가 몽땅노출된、사건의 「백과사전」 같은것이었다는거야。

—50년대식의 원시적인 교통참사에서부터 70년대식의 인명경시와 한탕주의、2백만달러 증발사건이나 대학생 해외연수가 얽힌 80년의 범죄가 차곡차곡 쌓여있다는 뜻이군。

—아뭏든 새로운 사회、깨끗한 사회로 혁명적인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모든사건의 충격은 큰교훈이 되고 출발점이 돼야한다는 생각이야。

—이해에 거듭된 충격을 한데 모아서 「81년의 충격」으로 풀러도 좋을것같아。그래서 이충격을 우리사회가 귀감으로 삼아 항상 기억해나간다면 새로운사회는 그만큼 가까와지지 않겠어。

—사건이야기는 그말로 끝을내지。각부처에서 일어났던 변화들도 지적해두고 넘어가야 할것같은데。

—금년의 공무원사회는 한마디로 정화와 통폐합의 해였어。이 과정에서 엄청난 세대교체작업이 이루어졌지。

—내무부에서만해도 지난 7월 1일자로 부임했던 부지사급9명이 4개월만에 물러나야했고 전국의 부군수 1백39명이 전자 그직을 잃게됐고 본부에서도 1국1단담관 6개과가 통폐합돼버렸지。

—정부의 정부기구통폐합은 당초예상보다 훨씬 광범위해 모두들 깜짝놀랐어。정부의 개혁의지가 그만큼 강했던거야。이때문에 많은공무원들이 희비극을 연출해야만 했지。

—획기적인세대교체는 일면 나이든 사람들을 더 우울하게 만든게 사실이지。젊음의 장점못지않게 늙음의 지혜역시 무시돼서는 안된다는 일부반론이 강하게 대두했지만 한번 시작된 세대교체 바람은 걷잡을수없이 사회각분야로 번져 나갔지。직업공무원의정상인 각부처 국장급은 이제 40대가 거의전부야。

—한때유행한 한글세대의 등장이란는말이 세대교체의 강도를잘 표현해줬지。

—청탁안하기、거리질서지키기 등으로 상징되는 사회정화운동도 이해의 큰 물줄기였잖아。

—그렇긴하지만 이운동이 정착하려면 아직 멀었어。워낙 고질적으로 습목이 돼버려 웬만한 특효약으로는 뿌리뽑기 힘든형편이거든。단속이 시퍼렇게 잠깐 지켜지는듯 하다가도 어느새 제자리로 돌아가버리고 말거든。

—옳은이야기야。어떻게보면 하나의사회란 강한복원력을 갖고있는것같아。제자리로 돌아가려는 자연발생적인 속성이지。단속이다、정화다해서 사회의 방향을 흔들고 지금까지의 방향을 1백80도 바꾸어놓아도 틈만 보이면 거꾸로 가고있는걸 발견하게 되는거야。과거의 자리로돌아가려는 막강한힘、이것이 문제의 본질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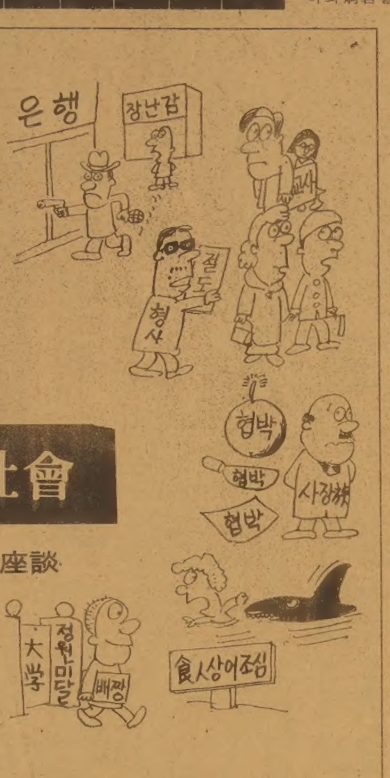
—그힘을 어떻게 제어하느냐가 본질적인 문제로 남는데 도대체 어떻게하면 되는것일까。

—언젠가 우리사회면에 「우리나라 산림(山林)이 81년부터 자생능력을 갖추기 시작했다」는기사를 실은적이 있지。바로 그게 하나의 문제해결의 방향이야。얼마나 오랜세월、심으면 죽고 심으면 말라버리는 토양과 싸워왔느냐를 상기해야돼。결국 이제는 그냥 버려둬도 스스로 나고 크게 됐다는거 아냐。사회의 복원력을 완전히 제어해서 자생능력이 생겨날때까지 심고 가꿔야지。일단 자생능력만 생기면 문제는 해결이 될거야。

—결국 결론은 난셈이군。새로운 사회로 향한 우리의 출발점이 얼마나 초라하고 참담한 것인가를 일깨워준 「81년의 충격」을잊지말고 되씹어보려는 우리사회를 계속 감시、격려하는 이야기군。

—그게 우리사회부기자의 역할이야。

【기록=金時福기자】



펜싱경기장建設
亞洲게임對備 10억投入

대한펜싱협회 趙乃晙회장(라이프주택회장)은 22일 오는 86년 서울올림픽과 86년제10회 아시안게임에대비、펜싱의 경기력향상을위해 10억원의 예산으로 펜싱전용경기장을 건설하겠다고말했다。

趙회장은 韓國펜싱을 세계정상급의 펜싱으로 육성하는 시간을 단축시키기위해 전용경기장을 건설키로했다고 밝히고 우선 내년에는 서울근교에 부지를 마련、연차적으로10억원을투입、펜싱전용경기장을마련하겠다고말했다。

趙회장은 또 내년부터 라이프그룹에 펜싱팀을 창단、상비군 10명을 소속시켜 훈련하겠다고 말하고 펜싱 강국인 프랑스의 유능한 코치를 초빙、선수들의 지도를 맡게하겠다고 밝혔다。

국제펜싱연맹과 프랑스펜싱협회에 이미 유능한 코치의 파견을 의뢰했다고 밝힌 趙회장은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서울올림픽에서는 반드시 많은 메달을 획득하도록 전력투구하겠다고 다짐했다。

내년 體育기금조성 58억7천만원 결정
체육振興財團

체육진흥재단은 내년도에 58억7천여만원의 기금을 조성키로 결정했다。

체육진흥재단은 전국에걸친 운동장모금6억2천만원을 비롯 담배갑광고6천만원、그리고 자체수입과 장기채권등 이자수입 47억9천1백만원을 포함、모두 58억7천여만원의 기금을 조성、올해 이월금84억원을 합쳐 1백40억원의 기금을 확보키로 했다。

구독신청은 533-2361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일보

流星의 賦

感傷異國月 ㉝

<267>

李炳注 作
李友範 畵

이윽고 7월 22일 통신사 일행은 일본의 국도(國都)인 경도(京都)에 도착했다。경도에 들어가기에 앞서 입성의 절차를 두고 김성일(金誠一)이 까다롭게 따졌으나 허성(許筬)의 무마로 이럭저럭 대과없이 숙소에 들었다。

통신사 일행의 숙소는 상경구(上京區) 무라사끼노(紫野)에 있는 대덕사(大德寺)였다。

하루를 쉬고 그 이튿날 상사 황윤길、부사 김성일은 국서 전달의 전을 의논하고 같이 간 평의지(平義智)에게 빨리 국서 전달을 주선하라고 일렀다。그런데 평의지의 대답은

『지금 관백전하(關白殿下)께선 오다와라(小田原)의 북조씨(北條氏)를 정복하고 겸하여 동북(東北)을 경략할 양으로 관동지방(關東地方)에 가 있는지라 당분간 국서의 전달은 무망하다』

는 것이었다。

김성일이 벼락처럼 고함을 질렀다。

『일국의 사신이 해로 수천리를 거쳐 이곳까지 왔는데 우리들이 도착할 날을 대강 짐작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관백이 경도를 비운 것은 무슨 까닭이냐』

『북조씨의 정벌이 시급한 탓입니다』

하고 평의지가 변명했다。

김성일이 캐 물었다。

『언제쯤 돌아 올 예정이라고 하던가』

그러나 평의지의 대답은 신통하질 않았다。신통한 수가 없었다。

『이건 분명히 우리를 깔 보는 수작이다。우리를 깔본다는 것은 우리나라를 업수이 여기는 수작이다。우리가 만일 이런 처사를 받았음에도 잠잠고 있으면 우리의 상감을 욕되게 한다。가만 있을 수 없다』

고 김성일이 흥분했다。

정사 황윤길은 말이 없었고 허성이 한마디 했다。

『가만 있을 수 없으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기일을 명확히 하라고 하고 그 기일 안에 관백이 돌아오지 않으면 고국으로 발정할 밖엔 없겠죠』

『기일을 밝힐 수 있는 사람은 이정도 밖엔 없읍니다』

평의지의 말이었다。

『대감의 요량도 할 수 없단 말이우?』

『그렇다면 한달 두달이 지나도록 속수무책으로 기다려야 한단 말이오?』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평의지가 딱하게 말했다。

『당신마저 우리를 모욕하우?』

성일의 흥분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천만의 말씀입니다。나도 사정이 이렇게 된 것을 딱하다고 생각합니다。관백전하의 기분은 아무도 건잡을 수가 없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란는거요』

『기다릴 수 밖엔 없죠』

『정사、당장 돌아갑시다。이러다간 상감을 욕되게 할 뿐이오』

그러자 황윤길이 말이 있었다。

『나라의 명을 받아 국서를 전달하러 와가지고 그 명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간대서야 어디 말이 되겠소』

성일의 분격은 진정되지 않았으나 정사가 이렇게 나오는데야 할 수가 없었다。그는 일을 다물어버렸다。

거구장

회갑, 생일잔치, 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 환영.

영업시간 : 매일 오전11시~새벽2시

금. 토 : 오후8시30분~새벽2시

목, 금, 토, 일 : 오후8시30분~새벽1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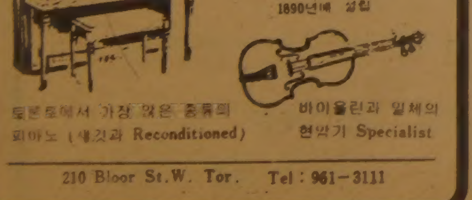
가수 : 박 소 영 출연

5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모든 악기를 취급합니다

부속품 · 악기수리 · 대여



Remenyi house of music

1890년에 설립

토론토에서 가장 많은 종류의 피아노 (새것과 Reconditioned)

바이올린과 일체의 현악기 Specialist

210 Bloor St.W. Tor. Tel : 961-3111

서울한의원 특별봉사

한의원 개설 35주년과 타지방에 순천당 한의원(서울원이름) 개설을 계기하여 그동안의 사랑해 주심에 보답코저 특별봉사코저하오니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 12월28일부터 1월25일까지

● 보 약 : 남여보약, 산후보약, 소아보약

● 치 료 약 : 각종 고질병, 간장, 위장, 화병, 고혈압, 부인병, 냉병, 산후병, 천석, 신경통등

● 가정상비약 : 사향소합원, 우황포령환, 불임중약

—장기치료 약은 건재(조제 안한것)을 실비 제공합니다.

● 주 소 : 10 BLACKFRIAR AVE. #216 WESTON, ONT.

☎ : 247-9347

서울한의원 한의사 김 장 석

MR. CHOIS RESTAURANT

점심 도시락을
주문 배달 합니다

⊙스카보로 지역

2432 Eglinton Ave. E. Scarborough

☎ : 759-8512

최 영 호

Grant Brown

새차및 81년도 데모카
특별세일(해출)
GMAC 이자율 14.2%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J2000.

이한구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구독신청은 (416) 533·2361

波 千3百여 鑛夫 坑內항쟁

지에모비트炭鑛 軍介入땐 出口폭파위협

戒嚴軍일부 鎭壓거부 抗命
2百餘工場 罷業 抵抗계속

계엄통치 9일째로 접어든 폴란드사태는 21일 현재 지방탄광노동자 1천3백여명이 갱내에서 地下抗爭을 계속하고 있으며 駐美폴란드대사가 미국으로 망명하고 계엄군 장교및 사병들의 抗命사태가 속출하는등 汎國民的인 저항활동이 끈질기게 벌어지고있다。

이와때를 같이하여 전세계 곳곳에서 폴란드계엄통치를 비난하고 자유노조활동을 지지하는 항의시위가 벌어지고있는 가운데 이제까지 소련의 개입을반대하는 소극적인 주장을되풀이해오던미국은 폴란드정세회복을위해 여러개의 代案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폴란드계엄령선포와함께 두절되었던 외부로의 통신은 18일부터 재개되었으나 모든통신은 계엄당국의검열을 거쳐야하며 바르사바지구외의 소식통이나 목격담을 인용한 지방기사는 엄격히 제한되고있어 폴란드전역에서 벌어지고있는 국민들의 저항활동의 실상은 정확히 파악되지않고있는 형편이다。

◇거리에 裝甲車만 폴란드의 그다니스크교외의 검문소에 17일하오 탱크와 군차량들이 모습을 보이고있다。【그다니스크(폴란드) 19日AP電送=聯合】

“戒嚴이후 2백여名死亡” 西方소식통

【빈20日UPI綜合=聯合】약 3백명의 폴란드 광부들은 노동자들의 反정부 가두폭력、공장점거、태업행위가 계속되고있는 가운데 20일 남부 카토비체省 지에모비트 탄광에서 출구1개를 폭파시켜 지하갱내에 갇힌채 軍이 개입한경우 두번째 출구를 폭파시킬 것이라고 위협하면서 계엄당국에 지하항쟁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으며 계엄령선포후 지금까지 사망한 사람들의 수는 2백명에 달했다고 서방소식통들이 전했다。

소련관영 타스통신은 폴란드 관영PAP통신을 인용、『자유노조 과격분자들이 지난 16일 보안군과의 충돌로 7명의 사상자를 낸바있는 카토비체지방의 지에모비트 탄광에서 갱출구를 폭파、갱속에 있던 광부 1천3백명을 지하에 인질로 가두어놓고있다』고 보도하고『이들 과격분자들은 폴란드당국이 軍이나 경찰을 탄광에 투입할경우 또다른 출구를 폭파할것이라고 위협하고있다』고 밝혔다。

지난주 카토비체 부체크탄광에서 일어난 파업광부들과 보안군과의 유혈충돌로 폴란드당국은 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했으나 빈의 스톡홀름에 있는 중립정보들은 이때 보안군에 의해 맞아죽은 사람들을 포함 모두 66명의 광부들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지에모비트 광부들의 이같은 지하항쟁은 자유노조지도자 레흐·바웬사가 1주일을 넘어서고있는 계엄통치에 항의、총 파업과 비폭력 항쟁을 촉구한데 뒤이어 나온 것이다。

한편 스웨덴방송은 폴란드 자유노조및 교회 소식통들을 인용、지난13일 계엄령이 선포된 이래 모두 2백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하고 스웨덴을 방문중인 한 폴란드교수의 말을빌어『폴란드민들이 현재 2차대전중 독일군점령하에서 맛본것과 같은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다』고 전했다。

【런던·뉴욕20日綜=聯】폴란드군장교 50명과 수 미상의 사병들이 군당국의 노동자 파업진압명령을 거부、항명대열에 가담했다는 풍문이 폴란드에 나돌고있다고 지난주말 바르샤바에서 런던에도착한 한폴란드인교수가 말했다。

美、軍事조치 示唆
헤이그、波사태에

【워싱턴19日AP=聯】헤이그 미국무장관과 캐스퍼·와인버거국방장관등 미국정부 고위관리들은 현폴란드 유혈사태 배후에 소련의 작용이 있음이 분명하다고 말하고 미국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들과 더불어 폴란드상황을 계엄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위해 여러가지방안을 검토중이라고 19일 밝혔다。

非暴力 抵抗 促求
바웬사

【빈·파리19日綜=聯】폴란드자유노조지도자 레흐·바웬사는 계엄당국을 지지하는 연설을 해달라는 폴란드군사정부의 요구를 거부하는 한편 폴란드內 로마·가톨릭교회와 자유노조원들에게 계엄당국에 반대하는 대규모파업과 비폭력저항을 벌이도록 호소한것으로 19일 밝혀졌다。

駐美폴란드大使 亡命
美서許容 “祖國의 戰爭상태 沈默못해”

【워싱턴20日AP·UPI=聯】駐美폴란드대사 로무알드·스파조프스키(61)가 19일 美정부에 정치적 망명을요청、이를 허용받았다고 알렉산더·헤이그 美국무장관이20일발표했다。

이와 때를 같이해 스파조프스키도 이날 국무성기자회견에서『폴란드국민에 대한 전쟁상태에 더이상 침묵할수없어 美정부에 정치적 망명을 요청했다』고 망명사실을 확인했다。

헤이그장관은 CBS·TV『국민과의 대화』프로에 출연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레이건 대통령이 스파조프스키의 요청대로 본인과 부인、딸및 사위등 이들 일가의 정치적망명을 즉각받아들였다고 말했다。

헤이그장관은『미국이 망명한 스파조프스키대사 일가의 안전을위해 최선을 다할것』이라고 강조했는데 소식통들은 스파조프스키가 최근 폴란드사태와 관련 헤이그를 포함한 美정부관리들과 자주접촉했었다고 전했다。 ★亡命성명2면

駐日波外交官도 美國亡命을希望
日紙보도

【東京21日=宋孝彬특파원】 주일 폴란드 대사관의 한외교관이 20일 미국에 망명을 희망하고 있다고 미국무성의 대변인의 말을인용、산께이(産經)신문이21일 보도했다。

28日 軍事停戰委

군사정전위 제409차 본회의가 오는28일 상오 板門店에서 열린다。

유엔군측은 지난18일 공산측에 21일에 본회의를 열자고 요청했으나 공산측은 28일에 열자고 20일 수정제의해왔다。

都市계획 人口기준 再整備

서울人口 9백90만명서 抑制
釜山、91년까지 4백80만명線
2001년

정부는 지난80년말현재 8백51만8천명인 서울 인구를 2천1년에는 9백90만명선 오는 86년에는 9백20만명선에서 억제키로했다。 釜山은 81년의 인구를 3백85만명선에서、91년인구는 4백80만명선에서 각각 억제키로하고 국토의균형개발이란 측면에서 전국 각도시에 적절한 복합 기능을부여、 지역간의 조화를 이루면서 도시개발계획을 유도해나가기로 했다。

21일 건설부가 전국 2백42개도시의 도시계획 재정비를위해 시달한 지침에 따르면 각도시별로 연차별 인구 전망을제시、그규모에 알맞는 도시계획을 설정토록하고 지역특성에따라 중추도시및 위성도시、부심도시、공업도시、상업도시、관광도시등의 기능을 살려나가도록 했다。

건설부가 시달한 도시계획재정비지침은 지난3월 개정된 도시계획법에따라 전국주요도시의 도시계획을 82년부터 오는 83년말까지 일제히 재정비하게 되어있으므로 재정비과정에서 기준지표로 삼도록 마련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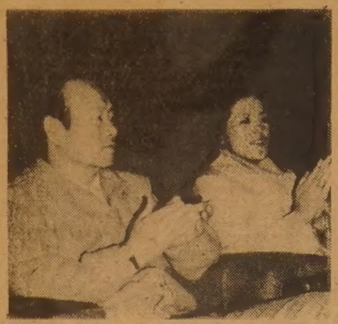
도시계획을 재정비해야하는 대상도시는 인구2만명이상인 2백42개도시이다。 또한 이들 도시중 서울을 비롯한 50개市級도시、앞으로10년이내에 인구가 10만명이상으로 늘어날 것이 확실한 利川、平澤、光陽、長承浦등 4개邑級도시와 水安堡、道高、白岩、釜谷등 4개 온천도시를 포함한 도합58개주요도시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재정비에앞서 82년말까지 기본골격인 도시기본계획을 먼저 수립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종래의 도시계획수립과정이 官主導型으로 되어왔던것을 시정하기위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때는 공청회를거쳐 전문가와 주민의견을 청취、반영토록하고 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때는 신문공고와 14일간의 공람을 통해 충분히 알리도록했으며 각 市道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두어 도시계획이 최종확정되기전에 전문연구기관의 자문을얻도록했다。

도시계획의 재정비에 대한 기본원칙은 오는91년을 목표연도로하여 건설부가 제시한 지침에따라 각부문별 개발계획을 세워 재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기존계획을 존중하여 가급적 변경을하지않도록 했다。

도시생활의 환경기준에 대해서는 인구규모에따라 주택보급률、상수도보급률、도로율、전화가입 대수등의 시설지표를 설정、연차별 집행계획까지 마련토록하고 도시규모에따라 단계적으로 교육기관、의료시설、여가시설、유통시설、금융기관및 복지시설의 등급기준도제시했다。

한편 도시계획재정비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인구의 지방정착화에 기여할 시설부터 우선으로하되 ▲도로포장 ▲교육시설 ▲의료시설 ▲노동복지시설 ▲문화시설 ▲일반복지시설등의 순에따라 투자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有望種目육성토록
종합男女籠球대회 全대통령內外참관

全斗煥 대통령은 일요일인 20일하오 영부인 李順子여사와 함께 서울奬忠체육관에서 열린 제36회 전국남녀종합농구선수권대회 준결승전인 現代―海軍(남자)、太平洋화학―외환은행(여자)등 두경기를 약2시간10분동안 관전했다。(사진)

全대통령은 이어 체육관안에있는 휴게실에서 李奎浩문교장관 曺相鎬대한체육회장 李相淵서울시부시장 申東寬여자실업농구연맹회장 鄭周永대한올림픽조직위원장등과 환담을 나누며『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대회、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서울올림픽에 대비、우리의 신체조건과 체력등을 감안해 유망종목과 선수를 뽑아 육성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民正리셉션도 참석

民正黨총재인 全斗煥대통령은 21일하오 民正黨이 의원 간담회가 끝난뒤 중앙당사 統一舘에서 마련한 리셉션에 참석、黨소속의원들과 환담했다。

“黨이 行政府보다 優位 政局안정 이룩에 필요”
權民正사무총장

權正達 民正黨 사무총장은 21일『民正黨이 정책개발을 主導하고 통일을주도하며 정부를 주도하는 黨優位라는 방향은 확실하다』면서『이것은 黨총재의 확고한 신념이기도하다』고 黨優位論의 구체적인 현실화를 시사했다。

權총장은 이날 黨중앙정치연수원에서 가진 의원간담회에서 전례없이 黨의 행정부優位論을 강조、주목을 끌었다。

그는이어『이러한 黨優位論이 政局의 안정을 가져오고 평화적정권교체를 이룩하는데 필요하다』고 강조하고『民正黨은 이를위해 人材를 양성하고 조직을 정비하여 정예화하는 교육을 꾸준히 계속할것』이라고 밝혔다。

權총장은 또 소속의원들에게『서민과 더불어 생활하고 言行이 일치되는 새議員像확립에 기여해달라』고 당부하고 특히『責任정신과 公人의식을 철저히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國會事務總長에 禹炳奎씨內定

◇禹炳奎총장

국회는 22일 사무총장(長官級)을 更迭、朴浚圭현총장 後任에 禹炳奎청와대政務제1首席비서관을內定、임명할 것으로 21일 알려졌다。朴사무총장의 更迭이유는 정확히 밝혀지지않았다。

黨總裁 비서실장에 民正、李宣基씨任命

◇李宣基실장

民正黨총재인 全斗煥대통령은 21일 총재비서실장에 李宣基국무총리실 행정조정실장을 임명했다。

李실장은 이날자로 총리행정조정실장직을 사퇴했다。

◆李실장 略歷=▲慶北釜山舍신·52세 ▲大邱大卒·美시라큐스大學院수료 ▲경제기획원 외자관리과장 ▲對日請求權사절단 계획부과장 ▲경제기획원 부자진흥관·經濟協力局長·經濟協力차관보 ▲經濟企劃院調達廳長 ▲국무총리실 행정조정실장

社告

14회 한국創作文學賞 결정
中堅作家 崔一男씨 受賞
수상作은 「홰치는 소리」·「세 故鄕」

한국일보社 제정 제14회 한국創作文學賞 수상의 영예는「홰치는 소리」「세 故鄕」을 쓴 中堅작가 崔一男씨(49·사진)에게 돌아갔읍니다。崔一男씨는 대학재학중에 文壇에 데뷔、오랜 신문기자생활을 거쳐 40대후반부터 왕성한 창작활동을펴 商業的인 경향을 띤 70年代 한국문학의 軌道를 수정한 작가로 평판되고 있읍니다。그는 극히 평범한 日常의 경험을 세밀하게 통찰해서 인간의삶에 대한 그나름의 主張과 確信을 분명하게 그려내는 안정된 작품을 써내고있읍니다。심사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결정된 수상작「홰치는 소리」「세故鄕」도 凡常한 일상사를 그리면서 우리들이 미처 보지못하고 지나가는 人生的인 意味를 새롭게 해석해 보여준 소설입니다。한국文壇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한국創作文學賞의 시상식은 오는1월중순께 있을 예정입니다。

한국일보社

社會漫評

불길은 점점…

地平線

현대적인 무기로 무장한 상당히 큰규모의 청원경찰부대가 로마에는 22개나 된다。아마도 세계에 자랑할만한 사설경찰부대라고 한다。이탈리아의 부자들이 몰려있는 북부공업지대에서는 아이들을 국경너머 스위스의 학교에 보내는게 잘사는 사람들의 통례다。아예 스위스에 살면서 산업도시밀라노에 통근하는사람들도 많다。테러에 떠는 이탈리아의 풍토때문이다。

▼이탈리아의 테러는 쥐도 새도 모르게 사람을 끌어가는「납치」가 특징이다。1년이면 대체로 50~60명이 납치돼가고있다。범죄조직의 납치가 시작된 60년대부터 작년말까지 약4백20명이 납치됐다。납치범들에게 넘어간 몸값은 1천6백억리라、우리 돈으로 쳐서 약1천3백30억원이나 되고있다。몸값은 보통4억2천만원 꼴이 많다고 알려져있다。

▼공식 통계에 의하면 60년에서 77년까지 모두 53명이 납치돼갔지만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더러는 시체를 찾는수가 있지만、영 아무 소식도 없게되는 수가 많다。범죄조직들은 최근 고도로 전문화돼가고 있다는 것。이탈리아의 당국자들은 이런 조직들이 토목회사나 금융회사、또는 운수회사의 간판을 내걸고、25~30명의 전문적 갱단원을 거느리고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최근에 확인된 증거로는 납치 하수인들이 받는 돈이 한건에 2천5백만리라、우리돈으로 쳐서약2천1백만원선이라고한다。이런 비용을 빼고 범죄조직들이 올리는 순수익은 50%선이다。그러나 경찰을 믿지않는 이탈리아인들은 사건을 당하면 당국에 신고하기보다는 범인들과 흥정부터 한다고 한다。권총과 방탄승용차의 수요가 늘고、경호원의 수요도 늘고있다。

▼「붉은 여단」이라는 극좌 테러단체가 모로수상을 납치해서 죽인뒤 이탈리아정부는 테러조직 분쇄작전을 펴 납치사건이 근래 주춤한 상태였다。77년에 76건이었던게 78년엔 42건으로 뚝 떨어지고、몸값도 2백억리라(1백54억원)에서 90억리라(69억3천만원)로 줄었다。그러나 최근에는 이탈리아 범죄조직들이 다국적기업화해가고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탈리아 범죄조직에는 갱단에서 극우·극좌지의 정치단체에 이르기까지 가지각색이 섞여있다。이번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남부유럽 통합사령부 통신·행정참모차장 도지어장군을 납치한 붉은 여단이 극좌 조직의 핵심이다。모로수상 살해이후 붉은여단은 1백명이상이나 잡혀 작년8월에는 전체회의를 열어야될만큼 약화됐었다。이제는 젊은 대학생층보다、노동자층에 침투하고있다는 소식이다。이들이 유럽의 反核무드를 다시타려 시도하고있다고 하겠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 동 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서 울
여 행 사
IATA
수속에서 출발
관광, 도착까지
●국내·국제
항공표 일체
●이민·방문
초청 안내
631A BLOOR
ST. W.
535-6004,
8801
293-9970,
최 동 주

DOMINION SMALLWARES

CASH & CARRY에 한함

Dec.21 - Jan. 9 '82

		(spec)
Neilson Reg. bar	36x40¢	9.59
Cadbury Reg. bar	36x40	9.69
Rowntree Reg. bar	36x40	9.59
Cadbury thick bar	36x55	13.75
Breath savers	12x30	2.55
Pot of gold box choco.	450g	3.85
Allmondillos box choco.	400g	3.85
Black Magic box choco.	1/2 pd.	2.15
Turtles box choco.	400g	4.19
Toffifay box choco.	391g	4.29
Lee's snow ball	36x25	6.00
Neilson chunks	120x15	10.65
Moirs bag candy	24x25	3.09
Double bubble soft gum strawbury	20x30	3.45

※크리스마스때까지 일요일 오전중만 OPEN합니다.

DOMINION SMALLWARES
920 CALEDONIA RD.
789-7214(MR. 김)

Lawrence / Keele / Caledonia / Dufferin

탁명환 교수 초청 신앙강좌

본교회에서는 창립 제5주년 기념행사로 국제종교문제연구소 소장이시며 사이비 종교계의 권위자이신 탁명환 교수를 초청하여 아래와 같이 신앙강좌를 실시코자 하오니 교민여러분들의 참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제 : 바로믿고 바로알고 바로살자.
강 사 : 탁 명 환 교수(국제종교문제 연구소 소장)
장 소 : 성 도 교 회 87 ELMHURST DR.(At Islington)
전 화 : 745-7370
일 시 : 1982년 1월1일~1월3일까지 매일저녁 7시부터
후 원 : 토론토한인교역자회, (토)한인성서신학원, 미주한인장로회카나다노회
국제종교문제연구소카나다지부

※1981년12월29일(화요일) 오전12시 서울집(식당)에서 교역자 좌담회가 있읍니다.

성 도 교 회 목 사
김 용 진

往復무역량 500億弗 눈앞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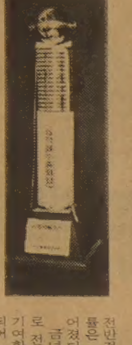
올輸出 2백억달러突破…世界신장율의 2倍

工産品이 93%나차지

매년37·5%증가 重工業제품은 總量의 45%

수출실적이 2백억달러선(19일현재 2백억7백9만달러)을 넘어섰다. 이제 우리나라도 왕복 무역량 5백억달러를 바라보는 대형무역국으로 성장했다. 그동안 수출은 경제성장, 생산, 고용및 산업구조의고도화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수출과 더불어 경제는 성장했고 수출과 더불어 한국의 국위는 세계로 뻗어나갔다. 정부는 수출2백억달러돌파를 기념하기위해 매년11월30일거행하던 수출의날 기념식을 22일 가질 예정이다. 돌이켜보면 그동안 수출의 발자취는 의욕의 강행군이었다. 지난 62년 1차5개년계획의 시행과 아울러 輸出立國의 기치아래 수출드라이브정책이 시동한이래 지난 80년까지 수출은 연평균37·5%나 늘어났고 70년대에 들어서도 연평균 33·1%가 늘어났다. 세계수출신장률의 2배가 넘는 괄목할만한 증가세를 유지했다.

世界市場占有 0·95%…順位도 29位로



수출의신장세에 힘입어 수출상품은 다양화되고 수출시장은 다변화되어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는 5대양6대주를 누비고있다. 처음 광산물이나 농산물등 1차상품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수출은 이제工産品수출이전체의93%를 차지하게 되었고 특히 최근에는 중공업제품의 수출신장이 두드러져 금년에는 총수출의 45%를 차지하게되었다.

세계수출의 눈부신증가에 따라 세계수출에서 우리나라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62년의 0·05%에서 80년에는 0·95%로 늘어났고 우리나라의 수출순위는 71년의 38위에서 80년에는 29위(산유국 제외하면 21위)로 높아졌으며 특히 시장이 다변화되어 교역상대국은 71년의 1백44개국에서 80년에는 1백70개국으로 늘어났다. 또 수출내용도 충실해져 외화가득률은 75년의 58·3%에서 80년에는 68·4%로늘어났다.

특히 수출에 종사하는 무역업체는 70년의 1천1백3개에서 81년에는 3천3백72개로 크게 늘어났다.

수출의 눈부신 증가는 경제성장의 견인차가되어 70∼79년사이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8·9%였는데 이중 4·7%가 수출에 따른 성장이었고 80년에는 수출은 경제성장에 2·0%나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수부문의 전반적인 불황으로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6·2%로 떨어졌다.

금년도 경제성장률은 7%로 전망되고 있는데 수출이 기여한 몫은 3·4%로 추정되어 매년 수출의 성장기여도는 50%가 넘는다. 이밖에도 총산출액중에서 수출에의한 생산유발액의 비중은 80년중 31%에 달했으며 수출이 1백만달러씩 늘어날때마다 제조업부문의 취업인구는 1백20명씩 늘어났다.

이렇듯 수출은 경제발전의 견인차 노릇을 해 왔지만 78년을 고비로 많은 문제점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78년 세계수출고중 한국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0%에 달했으나 그후 계속 떨어져 79년에는 1·0%, 80년에는 0·95%로 낮아졌고 81년에는 더 낮아질전망. 세계속의 수출랭킹도 77년의 20위에서 80년에는 29위로 낮아지고 금년에는 더 떨어지지않을까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수출품목도 중화학제품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고는하나 10대수출품목을보면 섬유류·전자제품·철강제품·신발류·선박및수산가공품·기계류·합성수지제품·타이어및 튜브·금속제품·合板등 아직도 경공업제품이 주종을 이루고있다.

더우기 갈수록 수출이 힘겨워지고 채산성도 악화되고있다. 지난9월말현재 수출물량은 21%가 늘어났으나 수출단가는 2·4% 오른데 불과하다. 교역조건은 최근 더욱 악화되어 11월말현재 수출물량은 20·5%가 늘어났으나 단가는 0·5%정도 상승한데 그친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인플레는 8∼9%의 속도로 진행되고있는데 우리 상품의 수출단가는 오르지않고있는것은 우리수출품이 싸구려로 밝혀되고 있기때문인데 그때문에 수출채산성이악화되고 수출증가에 제동이걸리고있다.

무엇보다도 5차5개년계획은 86년도에 5백30억달러를 수출, 세계굴지의 수출국으로 발돋움하려하고있는데 처해부터 차질이 빚어지고있다. 이에따라 최근 한국의수출은 우리의 경쟁상대국에 추월당하고 있다. 1백억달러를 돌파할때는 한국이 대만보다 빨랐으나 2백억달러는 대만이 먼저 돌파했고 우리는 내년수출목표를 2백47억달러로 잡고있으나 대만은 3백4억달러로 책정해놓고 있다. 또 금년중에는 홍콩이 2백20억달러로 한국을 추월했고, 싱가포르는 금년중 2백8억달러로 우리와 비슷한 수준이나 내년에는 2백63억달러로 한국을앞지르게된다. 바야흐로 한국의 수출은 전기를 맞이했다. 2백억달러 수출을 기념하는 수출의날 행사에 즈음하여 이날을 일깨우는 새로운 각오와 결의를 다져야 할 날이다.

社說

큰記錄속에 먼里程

—輸出 2백억弗線突破와 그意義

올 輸出累計가 2百億弗을 돌파한 時點에서 오늘「輸出의날」을 기념하게 되었다. 지난77年 百億弗線을 넘은後 不過4年만에 倍幅으로 늘어난 것이다. 이대로나간다면 年末현재로 수출실적이 2百10億弗가량엔 무난히 이룰것으로 보인다.

內外경제與件이나 수출環境이 酷해지고있는 狀況條件아래서 온갖 난관을 극복하면서 그런대로 수출目標를 뛰어넘고 있음은 치하할만 하고 고무적인 사실이 아닐수 없다. 지난해도 여러가지 어려운 逆境을 딛고 百70億弗목표를 초과달성하기는 했지만 올해들어 우리수출환경은 길고 순탄치않아 어쩌면 2百億弗高地에 도달하기가 어려우리라는 관측마저 없지아니하였음에 비추어볼때 마침내 2百億弗의 壁을 넘게된 것은 뜻깊은 기록임에 틀림없다.

國際收支의 改善을 위하여서뿐 아니라 外債克服 그리고 輸出主導의 對外指向的인 경제안정成長戰略을 成功시킴에 있어서도 수출增大가 가장 바람직한 해결방책임은 자명하다. 수출이 伸張돼야만 輸入增大에 따르는 貿易收支赤字幅을 좁힐수 있게되는 동시에 貿易外受入支出이나 外債累增에서由來되는 壓迫要因들을 완화시키는데 있어서도 큰 効果를 거둘것이다.

또 수출산업이 活性化돼야 이부문서의 직접적인 雇傭이나 所得增大는 말할것없고 投資需要로해서 內需관련사업에의 파급効果까지 기대되는것이므로 이래저래 수출의 중요성은 過小評價될수가 없다.

뿐더러 수출산업이 活氣를띠게 됨으로써 새로운 技術工程의 導入을 비롯하여 국제경쟁을위한 生産性向上이나 品質管理의 內實이 다져지고 새 高度산업化를 위한 契機가 마련될것이다. 아울러 技術革新을 위한 충격과 刺戟効果도 기대할수있다. 이렇게 볼때 수출실적이 늘어난다는 사실은 그가 지니는 직접적인 효과보다도 간접적인 영향이 더크다 해야하겠다. 이렇듯 모든側面에서 肯定的意義를 지니고있는 輸出이기는 하지만 그 지속적 伸張이 결코 容易한 일은 아니며 앞으로의 展望 역시 그리 낙관할수만없는 사실을 잊어 안된다.

수출을 늘려나가려면 무엇보다 먼저 국제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한다. 價格경쟁에 이겨내기 위하여서는 國內的 코스트要因인 일반物價, 賃金, 金利負擔및 租稅부담加重을 덜어줘야 할뿐더러 경영합리화를 통한 經費節減 그리고 品質向上에 注力해야한다.

특히 品質向上에 있어서는 철저한 QC(品質管理)운동을 통해서 生産現場末端에까지 침투시켜야 할것이고 기술향상을위한 연구개발과 최신기계설비 그리고 意匠面에서의 독창적인 考案이나 노력도 소홀히하지 말아야한다.

한편 輸入代替산업을 중점적으로 보호육성해야 하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輸入依存의 타성에서 조금씩이라도 벗어날수 있을뿐아니라 이미投資돼있는 重化學工業의稼動率제고와 中小企業에 活力을 불어넣게된다. 나아가서 이런것들이 刺戟이되어 국산原資材 中間素材 部分品의 品質과 價格경쟁력을 培養시킬수있을것이기 때문이다.

輸出시장의 多邊化를 위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할일이다. 美·歐·日등 先進國市場에대해서는 相對情勢即應態勢로써 능동적으로 대처해야할것이고, 中東·阿洲및 中南美같은 제3世界圈지역으로는 계속 파고들 일이며 이를 뒷받침할수있는 과감한 誘因제도들이 만들어져야 한다.

필요할때에는 延拂수출 또는 換率·金利面에서의 합리적인 지원조치가 失機하는일없도록 강구돼야 할것이고 법제도장치들이 탄력적으로 운용돼야한다.

우리는 지금 총3百30億弗 이상의 長·中·短期外債를 짊어지고있다. 올해의경우 對外利子부담만도 40億弗을 지불해야하는 절박한 상황아래 놓여있는 실정이다. 동시에 投機를 배제하고 지금으로서는 결코 바람직스럽지못한 內需刺戟을 회피하면서도 한편으로 고용증대 즉 成長을 追求해야할 어려운 입장에 처하여있다.

이 모든 난제를 풀자면 역시 輸出증대밖에는 별로 신통한 代案이 없음을 깊이인식하고 정부나 企業 그리고 국민모두가 다시한번 輸出伸張을 뒤밀어야만 할것이다.

바르샤바의 代理전쟁

—時計바늘은 뒤로 돌릴수 없다

노동자천국이라던 나라에서 노동자의 정당이라던 공산당은 사실상 죽었다. 노동자천국이라던 나라에서 노동자들은 자동소총과 탱크앞에 섰고, 노동조합은 상륙을 당하고있다. 그것이 계엄령하에 있는 폴란드의 상황이다.

노조가 죽임을 당하고있고, 공산당이 죽어버린 지금 폴란드에는 오직 총칼이 있을 뿐이다.

국민투표를 요구하고 나선 자유노조와 숨을 거둬가고있던 공산당사이에서 동유럽의 지배자 크렘린이 내민 마지막 카드의 윤곽은 이제 서서히 밝혀지고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죽어가고있던 공산당의 공식적인 사망을 선언하고, 그와 맞바꾸는 형식으로 자유노조를 해체하자는게 그것이다.

계엄령으로 공산당의 법통은 깡그리 무너졌고, 기에레크를 비롯한 지난날 공산당의 지배자들이 체포됐다. 동시에 노동자들이 지키고있는 공장에는 탱크가 들어서고, 전국에서 수만명의 자유노조원들이 체포된것으로 보도되고있다. 사상자도 수백명에 이르며, 미국주재대사는 망명했다. 군사통치권을 쥐고있는 야루젤스키에 의하면 이러한 조처들은 소위 「건전한 분자들을 대결과 반혁명을 주장하는 자들과 떼어놓기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는 또한 「모든 중요한 개혁이 질서와 규율 그리고 성실한 토론에 의해 계속될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 한손으로 피비린내 나는 매질을 하면서 또한손에 당근을 내보이는 수법이다.

『폴란드 자신의 힘으로 폴란드 국내 질서를 바로잡는 마지막 기회』라는 그의 말은 「피의 채찍과 당근」 정책을 뒷받침하는 「공갈」이라고 할수 있다. 막강한 소련군이 폴란드인의 머리위를 위압하고있다는 위협이다. 폴란드 안팎에 심상치않은 소련군의 움직임이 있다는 보도에 앞서 바르샤바에는 사실상 계엄통치와 함께 소련군의 군화소리가 거리를 휩쓸고 있는 것이다. 야루젤스키의 정치프로그램의 다음단계가 어떤 것일지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개혁은 노조가 아니라 군사통치자들이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거세된 노조」를 만들어 놓는 것이다. 런던에있는 자유노조관계자들이 내다보는 것도 이런 윤곽을 확인하고있다. 「계엄통치는 수년동안 계속될 것이고, 강경파를 몰아낸뒤 뼈없는 자유노조와 타협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말하자면 야루젤스키의 군사통치는 「외세개입」을 막는다는 구실밑에 크렘린을 위한 대리전쟁을 치르고있는 꼴이다.

이로써 크렘린은 일단 그의 서쪽전경에서 급한 불을 끌수있을지는 모른다. 그러나 소련이 치러야할 값은 너무나도 크고, 그것은 결코 확신할 수 있는것도 아니다.

동유럽 최대의 소련위성국에서 공산당은 산산조각이 났고, 조각난 공산당을 새로 만드는 작업은 쉽지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종국적으로는 해결할수없는 경제가 큰짐이 될것이다. 70년대 중반부터 서방측으로부터 끌어들인 폴란드의 국제적 부도사태를 소련이 대신 짊어지기는 사실상 어려운 형편에 있다. 제2차 오일·쇼크이후 低成長의 늪을 헤매고있는 동유럽의 짐에다가 덧붙여서 이 커다란 빚장이를 떠맡기란 쉬운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서방측이 탄압받는 한성을 건지기위해 무엇을 할수있는 처지도 못된다. 아무도 장담할수 없는 것이다. 이 직접 개입할경우 군축협상은 물론이고, 경제교류의 문도 닫힐것이란 정도이상 나아갈수있는 가능성은 희박하다.

소위 「얄타체제」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국제정치구조속에서 폴란드는 「소련의 울타리안」에 있기 때문이다.

바르샤바의 상황은 결국 초강대국시대의 비극이요, 초강대국의 몸부림을 보여주고있다.

그러나 자유의 불길은 꺼진게 아니라 사라질뿐이다. 또한 시계바늘은 결코 뒤로 돌릴수 없는 것이다. 이 어김없는 진실을 야루젤스키의 프로그램이 귀띔해주고있다.

"祖國의悲劇 더이상 沈默할수 없읍니다"

스파조프스키 波大사 美서 亡命 聲明〈요지〉

投獄된아들·딸들 추위·굶주림 시련에

해결은 對話길뿐…우린 결코 포기않아

다음은 駐美폴란드대사 로무알트·스파조프스키(61)가 미국에 정치적망명을 결정한뒤 20일 국무성 회견장에서 발표한 성명을 발췌한것이다.

나는 주미 폴란드대사로 폴란드의 최고참외교관입니다. 나는 이자리를 빌어 최근 내조국에서벌어진 사태에 언급하고자 합니다.

폴란드에는 1주일전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어 군의 비호아래 특별히훈련된 부대와 보안군이 유례없는공포정치를 시작했읍니다.

노동자들이 수호하는 공장들이 이들에게 짓밟혔고 자유노조회원들은그들의사무실에서체포되었읍니다.

한밤중에 폴란드를 세계로부터 고립시키고 세계를 기만하기위해 모든 통신시설이 차단되었읍니다. 작업을 거부하는 근로자에게는 사형까지 선고하겠다고 경고했읍니다. 경찰은 자유를 절규하는 사람들을 저지하기위해 자유노조 회원들로 밝혀진 인사들에게 야만적인 조치를 취했읍니다.

과학원교수들이 체포되고 종교기관과 가톨릭교회의활동이 금지되었읍니다.

압록과 침묵의 잔인한밤의 장막이 조국 폴란드전역에 내려졌읍니다. 폴란드국민의 선량한 아들과 딸들이 감옥에 투옥되거나 천장도없는 수용소에 수용되어 이 추운 겨울에 난방도 못한채 굶주림에 떠는 시련에 직면했읍니다. 나의 형제, 자매, 부모들은 야만적 폭력과 엄청난시련에 속수무책이되었읍니다.

이들가운데 일부는 이웃 외국의 수용소로 이송되고 있다는 소식도 있읍니다.

이처럼 주도면밀하고 직접적인 탄압은 폴란드 내부 문제는 아닙니다. 그것은 폴란드가 서명한 헬싱키협정의 마지막 기록을 무색케하는 극악하고 야만적인 인권위반입니다.

나는 더이상 침묵을 지킬수 없읍니다.

나는 이러한 야만적이고 비인간적인 행위에 책임이 있는 당국을 대표할수없으며 연관을 맺을수도 없읍니다. 그래서 나는 자유노조지도자로 존경받는 레흐·바웬사가 체포되었다는것을 아는순간, 이성명을 준비하고 역경의 폴란드국민을 돕기위해 부정할것을결심했읍니다. 나는 미국정부에 정치적 망명과 피난처 제공을 요청했고 미국정부는 이를 수락했읍니다. 미국민 여러분이 TV앞에서 내 성명을 주시하고 있는 이순간에 사악한 군대가 폴란드와 애국적이고 신앙심깊은 국민들에게 철퇴를 가하고 있읍니다. 여러분이 매일 폴란드뉴스를 들을때 폴란드국민을 생각하고 그운명을 상상해주시고 그들이 내조국의 선량한 아들과 딸 그리고 근로자 학생 지식인이라는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바랍니다.

폴란드국민의 독립과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새로운장이 1주일전에 열렸읍니다. 누구도 유럽중심부에있는 3천6백만 폴란드국민을 감옥에 넣거나 노예로 만들수없읍니다. 폭력과 억압은 상황을 악화시키며 역사는 결국 이들이 멸망하게돼있다는 사실을 증명할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않을것입니다. 이비극의 유일한 해결책은 대화를통한 평화적 해결입니다. 대화의 길만이 우리가 가야할 유일한 길입니다.

폴란드의 가톨릭교회는 폴란드국가의 도덕정신을 대표하며 국민의 영혼입니다. 자유노조원은 1천만에 가깝습니다. 교회, 자유노조, 당국의 3대표세력이 대화를 통해 화해와 평화의길을 찾아야만 한다는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이것이 폴란드가 취할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미국인은 침묵을지켜서는 안됩니다. 자유의 수호는 미국인의 전통입니다. 자유평신과 이순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당신들의 지지와 인간애적조원을 보내주십시요.

우리 폴란드인은 폴란드가 진정한 폴란드가 될때까지, 그리고 미국인들이 존엄성이 인간의 본신이라는 사실을 경험할때까지 우리의 투쟁을 중단하지않을것입니다. 그러면 신이 우리를 도울것입니다.

외국에 주재하는 폴란드 외교관도 폴란드인이되고 자신에 진실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순간이 바로 그때임을 기억하십시요. 조국의 현재자매를 도울수있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양심이 도우는대로 행동하십시요.

이는 바로 진실과 정의 원칙에따라 살고있는 인간과 교회의 유일한 도덕성입니다. 또 이도덕성은 전세계에 파급되어야할것입니다. 폴란드 만세. 【워싱턴21日合同】

여자의마음 따뜻한 선물

오늘아침 국제 우체국에서 소포꾸러미 하나를찾았다. 멀리 미국에서 얼굴도 모르는 분이 보내주신 것이었는데 그 속엔 아이들 옷가지와 두장의 편지가 들어있었다.

한장은 세관원님께 보낸편지로 『이 아주머니는 사정이 딱한분이니 통관료를 감해달라』는 내용이었고 한장은내게 보내온 것이었다.

『언젠가 한국일보에 실린 「여자의마음」을 읽고 혼자서 어린딸들과 고생하시는 당신의 마음을 엮었읍니다. 이런것들을 보내드려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아이들은 금새 자라서 넉넉했던 옷들도 다음해엔 작아지더군요. 이곳 미국에와서 살고있는지도 아직 자리가 잡히지를 않아 새옷으로만 사보내 드리지 못하고 우리 아이들이 입던 헌옷도 함께 넣었으니 굳이 라 입혀주세요…』 나는 편지를 읽어내려가는동안 나도모르게 코끝이 찡해옴을 느꼈다.

비록 입던옷이긴 하지만 친정에서 챙겨보내듯 정겹고 따사로운 손길이 꼭꼭 단추하나 하나에 까지 듬뿍 듬뿍 배어있는듯했다. 나는 곧바로 『고맙다』는 회신을 쓰기 시작했다.

나는 여태껏 남을위해 살아본적이 몇번이나있었는가. 돌이켜 생각해보니 얼굴이 달아올랐다.

아이들은 머리맡에서 밤새 산타 할아버지가 몰래 갖다놓은 선물이기나 한듯 갖가지 예쁜 옷가지들을 입어보며 즐거워하고 있었다.

이 추운 겨울에도 힘없고 가난한 우리를 주변에 이토록 마음 따뜻한 분들이 멀리 멀리에까지 있다는것은 얼마나 마음 든든한 일인가. 훈훈해지는 가슴으로 삶의 외로움을 잠시 잊어본다. 【김소희·서울마포구창전동1의4】

할아버지·할머니 전통공예품 모집

崇德苑은 내년5월에 개최될 제1회 전국할아버지·할머니 전통수공예품전시회 요강을 발표했다.

5월12일∼18일 롯데백화점에서열릴 이전시회는 60세이상 할머니·할아버지들이 만든 여러가지 수공예품을 발표하여 잊혀져가는 老人들의 옛솜씨를 되살리고, 老人에대한 사회인식을 높이기위해 마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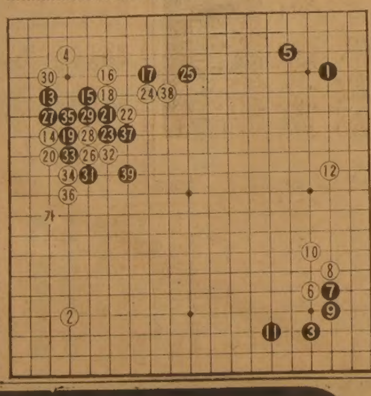
출품은 개인출품·단체출품이 있으며 개인부문 대상의 상금은 1백만원, 단체부문 최우수상은 50만원이다. 또한 수상작품은 전문백화점에서 상설판매된다.

주간女性

第13期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10局 第2譜 1～39 (각5시간 덤5집반)

白(6段) 徐能旭〈0勝2敗〉
黑(7段) 徐奉洙〈1勝1敗〉



白軍, 때이른 苦戰

얼마전 日本棋院이사장이며 과거 「면도날」로 棋界를 석권했던 坂田榮男9단이 한·일프로교류문제를 상의코자 내한했던 일이결실이되어 12월2일 徐奉洙7단과 徐能旭6단이 渡日한일은, 오랫동안 닫혔던 한·일프로교류의 부활을위한 것으로서 실력을 저울질한는데 의의가 깊다고 안할수 없다. 더우기 TV바둑이긴하나 徐奉洙7단이 武宮正樹9단을 호선으로 執黑不計勝하고 徐6단이 趙治勳名人·本因坊에게 순선으로 「반」 바둑을 만든일은 두나라의 정상급실력이 어지간히 근접한 것으로 봄수도 있어 이점 다행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모두가 속기(제한10분후 초읽기) 바둑이어서 그들의 본바탕실력을 속단키어렵겠지만 여하간 일후 한·일프로교류에 한가닥 희망을 걸수 있다고 보아지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棋士들도 가일층의 분발이 요망되는것은 말할 필요도없다.

그것은 그렇고 이바둑을 보자. 좌상귀 白14의급한 협공을 시도한 徐6단은 白26으로 또한번 변화를시도했다. 이수는 보통 30자리에모붙임하여 黑27, 白「가」 黑38자리호구정합까지두고있는것이다.

黑27이 침착했다. 왜냐면 다음에 黑31의 강타를 보고있기때문. 白은 이수로인해 단번에 궁색한 꼴이 되어버렸다.

徐6단은 여기서 白32로 기세를 부렸다. 이수로 33은 黑32로 밀려 旣着點인 白26, 28이 악수로 된다고 본것이지만 黑이 33, 35로 째고잇자 白은 마침내 바깥쪽이 분단되어 고전인데다 마침내 黑39의 장문을당하여 뒷수습이 난처해졌다. 【一凡】

한국일보 詩壇

가릉빈가(迦陵頻伽)

黃性伊

극락정토(極樂淨土)
설산(雪山)에서 하며
아릿다히 송추는 새
玉音으로 말하는 새
영조(靈鳥) 가라빈가(迦羅頻伽)
묘음조(妙音鳥) 가라빈가
若空無我常樂我淨 若空無我常樂我淨
(저 맑고 개인 하늘빛 같이
아욕과 사심이 없다면
세상에 거리낌 없는 마음으로
삶을 즐길수 있으리요)
라 전하는
仙鳥 가라빈가
好聲鳥 가라빈가
細手 물결져 흐르는
아릿다운 여인의 옆얼굴
투명한 상반신에 梵天의 반짝이는 햇살을
감은 여인 가라빈가
하이얀 두 손을 나래로 지어
열두나래 좌우로 활짝 펼치고
초공 깊이 훨훨 날아오르는
飛天의 청아한 춤 가라빈가
날렵한 은새의 가는란 몸통에
금실로 짠 예쁜 새의두 발을 가진
인두(人頭) 조신(鳥身) 용미(龍尾)의
가릉빈 가릉빈가
빈가조(頻伽鳥) 가릉빈가

아십니까? 아십니까?
안내광고란의 위력을….
한국일보 533-2361

大中華藥材行
GREAT CHINA HERBS CENTRE
482 DUNDAS ST. W. TOR. ONT.
MAILING : BOX 5181
STN. A TOR. M5W 1A0
☎ : (416) 977-8858-9
10AM → 8 : 30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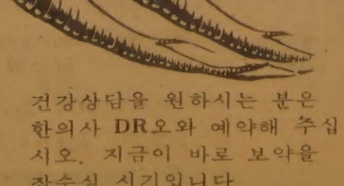
中國良藥 大量供應

녹용과 인삼을
건강관리에

좋은 보약으로 당신의 건강을 유지해 드립니다.

● 우황청심환, 우황, 녹용, 웅담, 사향, 해구편, 정주사

동양인에게는 역시 인삼, 녹용처럼 좋은 약은 없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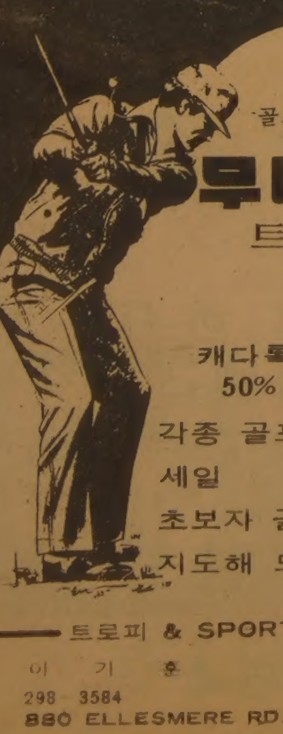


건강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한의사 DR오와 예약해 주십시오. 지금이 바로 보약을 잡수실 시기입니다.

謹賀 新年

즐거운 성탄절과
새해를 맞아 교민
여러분의 무한한
발전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강찬영 변호사
537-3171
537-3174



트로피 골프 프로샵
무나미
트로피
상패
메달
캐다록에서 50% OFF
각종 골프장비
세일
초보자 골프
지도해 드립니다.
— 트로피 & SPORTS —
이 기 훈
298-3584
880 ELLESMERE RD. UNIT 1

뉴서울
아늑한 분위기와
세련된 서비스
그리고
달콤한 음악은
뉴서울 만의
자랑입니다.
부인 모시고
친지들과 어울려
하루의 피로를 날려 버리세요.
밴드·가수·무용단 매일 출연함
장 소 : 오리엔탈 팰레스2층
주 소 : 529 BLOOR ST. W.
전 화 : 533-3545~6, 533-1500

美·이스라엘關係 최대危機

골란高原합병 報復조치對應 이、對美戰略協定 무효선언

【예루살렘20日AP·UPI=聯】 이스라엘은 20일 골란고원합병조치와 관련한 미국의 對이스라엘보복조치에 강력한 비난을 퍼붓고 3주전 체결된 美·이스라엘전략협력협정의 무효를 선언함으로써 양국관계를 전례없는 위기에 빠뜨렸다.

아리에·나오르 이스라엘 관방상은 이날 『이스라엘정부는 미국이 양국전략협력협정의 이행을 무기한 정지시킴에 따라 이 협정이 무효화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말하고 정부의 협정무효결정은 이날 首相관저에서 열린 정례각료회의에서 내려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오르 관방상은 각의가 끝난후 발표한 공식성명에서 메나헴·베긴수상은 이같은 결정을 각의가 개최하기직전에 가진 새뮤얼·루이스美대사에게 확실히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성명은 골란고원합병에 관한 이스라엘의 결정은 『지구상의 어떤 세력』도 이를 번복시킬수 없을것이라고 못박고 있다.

한편 베긴수상은 이날 45분간 계속된 루이스美대사와의 회담에서 미국이 對이스라엘전략협력협정의 이행을 정지시키고 방위장비 구매를 취소한것은 앞서 이라크원자로 공격에 따른 對이스라엘 전투기인도를 일시 중단한것과 함께 이스라엘을 속국시하는 발상에서 나온것이라고 규탄하고 『이스라엘 국민은 미국의 양해없이도 3천7백년을 살아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것』이라고 강조했다.

27일 아랍外相회의 골란高原합병 論議

【튀니스20日AP=聯】 21개국 아랍연맹외상들은 오는 27일 튀니지의 수도 튀니스에서 會同, 이스라엘의 골란고원합병 문제를 논의한다고 20일 아랍연맹이 공식발표했다.

이번 아랍연맹비상회의는 당초 21일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시리아의 요청으로 열리는 아랍교육상회의와 각국외상들의 바쁜일정때문에 27일로 연기된것으로 알려졌다.

도미니카에 不發쿠데타

【로조(도미니카)20日UPI=聯】 메리·유제니아·찰스 도미니카수상은 12명의 사상자를 낸 불발로 그친 쿠데타가 발생한 한후 카리브海의 섬나라 도미니카 전역에 계엄령을 선포했다.

찰즈(女·52세)수상은 이날 UPI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경찰관 1명을 비롯한 무장괴한 2명의 사망과 9명의 부상을 가져온 미수쿠데타 행위를 비난하면서 1961년부터 1980년까지 19년동안 도미니카를 통치해온 도미니카 노동당에 언급 『그들은 자신들만이 도미니카를 통치할 신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자들』이라고 혹평했다.

메아리 — 多富洞의 證言

다부동을 아는사람이 몇명이나 될것인가. 전상황도 칠곡군 낙동강을 굽어보는 산협의 두메 마을을 기억한 사람은 극히 드물것이다. 더구나 저 6·25때 북괴군에게 밀리어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만 거듭했던 우리 국군과 유엔군이 전세를 역전시켜 북진의 계기를 처음 마련했던곳이 다부동이요 그 혈투가 다부동 전투였으니 우리로서는 잊으려야 잊을수 없는 이름인 것이다.

그런데도 오늘날 다부동을 알고 다부동의 격전과 승리를 기억하는 국민의 수는 많지않다. 하기야 6·25의 쓰라림마저 세월의 풍화작용으로 기억 속에서 날로 퇴색되어가는 마당에 어찌다부동전투의 자초지종만을 기억하기 바랄수 있을까마는, 하더라도 다부동전투는 역시 저버려서 안될 역사적인 것이었다.

6·25를 일으켰던 북괴의 김일성은 전공산군에게 8·15까지 (1950년) 대구를 점령하라는 불호령을 내리고 3개사단의 병력 2만1천5백명을 상주·다부동·대구 축선에 집중시켜 맹공을 가하게 했었다. 이에 맞서서 아군 제1사단과 미제25사단27연대 전투병력 9천9백명은 8월1일에서 9월24일까지 55일간 촌보를 다투어 주야를 가림나위없이 혈전을 거듭하였다.

대구를 방어하기위한 가장 으뜸가는 전술적요충인 다부동의 방비진이 뚫리면 대구의 함락은 말할것 없고 대한민국의 마지막 방판까지도 빼앗기게되는 실로 국운의 존망이걸린 전투였다.

이때 국군장병은 물론 군노무자와 관민이 한덩어리가 되어 분연히 국권의 수호를 위해 신명을 바쳤으며 다른 한편 유엔군은 6·25과정에서 처음으로 전차작전을 펴고 B29폭격기99대에 의한 이른바 융단폭격을 가하여 적에게 결정적타격을 주었다.

국민들기억에서 표백되어가려하는 그 다부동에 전적비를 세우고 기념관을 마련하여 21일하오 군·관·민의 관계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막과 개관잔치를 벌였다고 한다.

이 전적비와 기념관이 그때 조국의 수호신으로 산화한 1만여 꽃다운 장병들의넋을 길이 저마다의 가슴에 되새기게 하고 또 오랜세월을 두고 국난에 처하여 나라를 수호하는 애국의 충정이 무엇인지를 일깨울수 있는 길잡이 구실을 하기를 바라게 된다.

◇波사태 抗議하는 西方 국민들 약 3천명의 암스테르담 시민들이 19일하오 현재의 폴란드사태에 항의, 시내 중심부에서 데모를 벌이고있다. 맨 앞줄에선 사람들은 『계엄령을 해제하라』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들고있다. 【암스테르담19日AP=聯】

"폴란드를 解放하라"

세계곳곳서 抗議시위 加熱

"戒嚴·勞組탄압중지를" 對蘇 곡물禁輸촉구도

【뉴욕·암스테르담·東京20日UPI AP=聯】 미국과 일본그리고 유럽여러나라에서는 19일 수만명의시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폴란드의 계엄선포및 자유노조탄압에 항의하고 자유노조의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집회와 시위가 벌어졌다.

약1천5백명의 뉴욕시민들은 이날 폴란드영사관앞에 모여 『자유노조만세』 『폴란드를 해방하라』는등의 구호를 소리없이 외치면서 항의집회를 벌였으며 연사로 나선 에드워드·카치 뉴욕市長과 대니얼·모이니핸상원의원은 폴란드를 억압하는 소련에대한 곡물수출을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폴란드系 유태인 이민2세인 카치시장은 소련이 민주주의의 파괴에 열중하고있다면서 폴란드정부가 모스크바의 명령에따라 탄압조처를 취하고있음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또 보스턴에서는 노벨상수상자를 포함한 저명대학의학자들로 구성된 한 위원회가 폴란드 구국군사평의회로 보내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스위스의 베른에서는 약1만명의 시민들이 폴란드의계엄령철폐를 요구하는 구호와 함께 깃발을 흔들며 평화적인 시위를 벌였다.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서도 약 1만명의 시민들이 『계엄령을 철폐하라』 『군사정부를 폐지하라』는등의 구호와함께 거리를 행진했으며 벨기에의 브뤼셀, 앤트워프, 켄트, 찰레로이 등지에서도 3천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나와 폴란드국민을 지지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밖에 이탈리아의 밀라노에서는 1만명의 시민이 거리로 쏟아져나와 폴란드국민을 지지하는 시위를 벌였으며 西獨에서는 함부르크 칼스루에 뮌헨 브레멘 등지의 시민2천5백명이 폴란드의 인권회복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체포된 자유노조원들을 크리스머스까지 모두 석방할것을 요구하며 거리를 행진했다. 캐나다의 오타와에서는 약 6백명, 일본의 東京에서는 약1천명이 시위를 벌였다.

◇3년만의 再會 시부모인 사하로프박사부처의단식투쟁덕에蘇당국으로부터 美國行여권을발급받은 리자·알렉세예바가 20일 파리로부터 보스턴공항에도착, 남편 알렉세이·세묘노프와 3년만의 감격적인 상봉을 하고있다. 【보스턴20日AP=聯】

"同族간 流血없어야" 波大主敎

憎惡보다 自制호소

○…폴란드가톨릭지도자요제프·글렘프대주교는 20일 폴란드국민들에게 현 폴란드계엄사태에 있어서 『서로가 증오에가득찬 무기를 들지말고』 냉정을 되찾도록 호소했다.

글렘프대주교는 계엄령선포8일째인 이날 전국교회들에서 낭독된 메시지를 통해 『우리조국이 동족간의 內戰을 한번도 경험하지못했다는 사실에 비추어서도, 결코 동족간의 유혈사태만은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말했다.

글렘프대주교는 이어 『냉정을 되찾아, 조국을 더한층 심각한 파국으로 몰고가지말라』고 당부하고 『오직 자제와 침착을 유지하는것만이 국가와 교회를 구할수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勞動者들 對政府투쟁 소극·陰性化

"全國民투옥못해"

○…폴란드노동자들은 계엄령을 선포한 야루젤스키수상의 정부가 전국민을 투옥시키지는 못할것이라는 신념아래 점차 『소극적저항전략』으로 對정부투쟁방식을 음성화시키고 있다고 폴란드를 탈출한 목격자들이 19일 전했다.

이날밤 파리에 도착한 한 믿을만한 고위소식통은 자신이 목격한 바르샤바시내 FSO자동차공장노동자들의 동태에 언급, 그들이 지난16일밤 계엄군에 아무저항 없이 공장을 내줬으나 자유노조의 『소극적인 저항전략』에 따라 노동자들이 결국 피를 흘리지않고 승리할수 있을것으로 자신하고있다고 밝혔다.

이소식통들은 또 FSO노동자들의 말을 인용, 군인들이 노동자들을 체포하는 사태가 일어나더라도 현재 교도소감방이 모두찼고 경찰인력도 충분치 못하기때문에 폴란드인 전체를 투옥할수없을 것이며 일부 수감되지 않은 노동자들은 다시 공장에 돌아가는대로 파업을 재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蘇旗 火刑 폴란드의 계엄통치에 항의하는 美國人 시위대들이 19일 워싱턴 주재 폴란드 대사관앞에서 蘇聯旗를 찢은뒤 불태우고있다. 【워싱턴20日AP엑=聯】

作家들도 체포受難

○…폴란드 계엄령선포후 수많은 폴란드 작가들이 당국에 체포됐다고 국제펜클럽 西獨지부가 밝혔다. 이 지부는 『블라디슬라브·바로스체브스키 폴란드 펜클럽사무총장을 비롯한 많은 저명작가들이 체포된 사람가운데 포함돼있다고 밝혔다. 【外信=聯】

폴란드戒嚴令… 蘇와 合作한 치밀한 脚本

國際焦點

西方側 虛찌른 勞組 粉碎작전

【워싱턴21日=曺淳煥특파원】 폴란드군부의 자유노조 분쇄작전은 다음3가지사항에 중점을 두었다는데 미국 공산권문제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진다.

첫째 소련군이 출현하지 않고 폴란드군부가 민첩하게 대량으로 검거작전을 펴면 유혈을 최소화 할수있다.

둘째 폴란드국민의 정신적 권위로 군림하는 가톨릭은 유혈과 내란을 피하기 위해 군부에 저항하지말것을 국민들에 종용할것이다.

셋째 소련개입가능성에 대비 수개월전부터 대책을 협의해온 서방은 폴란드군부의 출현으로 국내문제 불간섭이란 서방의주장에 스스로 손이 묶이게 될것이다.

자유노조 분쇄작전은 지금까지는 거의 그대로 맞아들어갔다. 이 작전은 또한 미리부터 치밀하게 준비된것임이 드러났다는것을 미국언론은 아래와같이 열거했다.

①군부는 계엄령이 선포된 후 군창고에 저장해두었던식량과 식료품을 풀어내놨다. 텅텅비었던 바르샤바 식료품상에 계엄령후 육류 훈제품 치즈 닭 버섯등 야채가 진열된것을 보고 폴란드국민들은 좋아했다기보다 분노했다.

②폴란드군부는 지난10월초에 바르샤바시 근교에 방송국을세워 군인들에게 방송훈련을 시켰다. 계엄령이 선포된후 폴란드당국의 발표문은 군복차림의 군인들에의해 행해지는것이 TV에 그대로 나타났다.

③폴란드 내무성에 속하는 보안부대가 자유노조간부를 체포할때 아파트열쇠를 미리 갖고가서 체포했다.

④폴란드군부는 계엄령이 선포되기전 약2주전부터 경계태세에 들어가 있었고 명령만을 대기하고 있었다.

⑤야루젤스키의 분쇄작전을 협의하고 승인했다고 서방측이 보는 바르샤바조약군 사령관 빅터·쿨리코프 소련군원수가 계엄령이 선포되기 수일전에 바르샤바 근교에 잠입했다가 지난15일 모스크바로 돌아갔다.

蘇、표면상 직접介入안해 "內政 불간섭" 西方발묶어

戒嚴令후 食品공급늘려 國民회유노리기도

이처럼 쿨리코프-야루젤스키 계획이 치밀하게 계획된것과는 대조적으로 자유노조는 군부의 분쇄작전을 예상조차하지 못했으며 아무런 저항계획을 사전에 세워두지 못했다고 한다.

80년12월과 81년3월 두차례에 걸쳐 소련군의 폴란드개입에 대비전략을 세웠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국가들이 이번에 허를 찔렸다는 것을 미국방성 고위관리가 지적했다.

펄미국방성국제안보담당차관보는 미국은 소련에대해서는 비상대책을 마련해두었으나 폴란드군부가 직접나오는 것을 예방하지못해 정보수집에 실패, 무더기로 귀머거리가 됐었다고 지난 18일 말했다.

미국은 자유노조가 깨어지고 있는데도 정확한 정세파악을 못하고 갈팡질팡했다. 나토외상회담으로 브뤼셀에 가있었던 헤이그미국무장관은 13일 야루젤스키의 행동이 소련과 연결 되어 있는 확증이 없다고 말하여 야루젤스키의 탄압이 독자적행동일 것에 은근히 기대를 걸었다.

폴란드에 개혁이 계속되어 갈것이라고 폴란드 고위외교관이 바르샤바의 미국대사관에 통보해왔다는것을 헤이그는 강조하고 또한 폴란드당국과 노조간의 협상을 촉구했다.

헤이그는 그다음날인 14일 미국으로 급히 돌아오는비행기속에서 미국기자들에게 소련은 폴란드군부의 계엄령선포에 촉매작용을 했을것이라고 말했다.

자유노조분쇄에 일단락이 지어지고 노조의 대규모저항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에 비춰지고 있다.

지난17일 레이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소련의 협의와 지원없이 분쇄작전이 이뤄졌다고 보는것은 너무나 순진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소련군의 폴란드개입에 대해 나토국가들이 세운 비상대책은 ①소련과의 대사급외교관계를 격하하여 세계여론을 對蘇공격에 집중하고 ②무역을 단절하며 ③소련과의 군축협상을 중단하는 것이라고 뉴욕·타임즈지는 보도했다.

도지어將軍 人民裁判中 伊붉은旅團 납치첫聲明

【로마20日AP=聯】 지난주 美육군준장 제임스·L·도지어를 납치한 이탈리아 테러단체 『붉은여단』은 19일 납치사건후 첫 성명을 발표, 도지어장군을 『양키돼지』라고 비난하고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제국주의』에 대한 전쟁을 선언했다.

『붉은여단』은 이와함께 나토의 군사기밀을 얻어내기위해 도지어장군에 대한 『인민재판』을 열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美日 합동空中훈련 早期警報機등 동원

【東京20日AFP=聯】 일본 항공자위대는 21일부터 3일간 琉球열도 상공에서 美공군의 공중조기경보기(AWACS)등이 동원된 美·日합동 공중기동훈련을 갖는다.

특히 이번 훈련중에는 10명의 항공자위대 관계관들이 2대의 조기경보기에 분승, 목표기에 대한 주요정보가 美日양국 전투기에 전달되는 과정을 지켜보게 된다.

敎皇特使 폴란드着

【본·빈20日AP=聯】 로마교황청의 東歐문제전문가인 루이기·포기대주교는 20일 로마교황 요한·바오로2세의 특사자격으로 계엄하의 폴란드실정을 파악 평가하기위해 바르샤바에 도착했다고 바르샤바방송이 보도했다.

波에 經濟원조계속 蘇·바條約國지도자

【모스크바20日UPI=聯】 레오니드·브레즈네프 소련공산당서기장을 비롯한 바르샤바조약국지도자들은 폴란드에 경제및 식량원조를 계속 제공하기로 합의했다고 한 소련소식통이 20일 전했다.

이소식통들은 또 소련의 정책입안자들은 폴란드 공산당제1서기겸 수상 야루젤스키장군이 계엄령이 선포된지 1주일이된 폴란드 국내사태를 소련의 도움없이 다스리고 있는데 만족해하고 있으나 美國의 對폴란드반응에 점차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海外토픽

골란합병反對 48%

★『이』國民대상輿論調査결과

이스라엘국민의 거의 절반가량이 메나헴·베긴 수상정부의 일방적인 골란고원합병 결정에 반대하고 있는것으로 18일 공개된 한여론조사결과 밝혀졌다.

텔아비브의 에디오드·아로노드紙가 의회의 골란고원합병법안가결후인 지난15일과 16일 6백27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8%가 정부의 골란고원 합병조치에 반대의사를 표명한반면 44·8%는 찬성했으며 7·2%는 응답하지 않았다. 【텔아비브=UPI】

다리崩壞 50명死亡

★페루안데스山脈서修理중

페루의 안데스 산맥지방에서 나무다리가무너져 그나무다리를 수리하던 농부50여명이 사망했다고 18일 보도되었다.

페루 보도들에따르면 80여명의 농부들이 허술한 나무다리를 수리하던중 다리를받치고 있던 케이블이 풀어지는 바람에 江물에빠졌다고말했다. 【리마=UPI】

北韓뉴스

訪平 中共趙紫陽 北傀입장支持발언

【서울=聯】 北傀의 공식초청으로 平壤을 訪問중인 中共首相 趙紫陽은 20일 北傀가 마련한 연회에 참석, 연설을 통해 이번 그의 訪北목적은 『雙方간의 전통적 친선을 가일층 강화하기 위한것』이라고 말하고 中共의 「駐韓美軍 철수와 「高麗聯邦」案」등 北傀方針에 대한 「支持」를 표명한것으로 21일 北傀放送들이 보도했다.

謹賀新年

새해에 만복이 깃드시고, 하시는 일에
번영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 일 식 품(구 단풍식품)

☎ : 532— 1054

장신 李鍾敬 공격의 核으로

速攻 한국팀 西獨 힘에 한때 苦戰

西獨 4개국 男子排球리그

【함부르크(西獨) 金仁鎬특파원】 한국 남자배구 대표팀은 20일밤11시(한국시간) 이곳서 벌어진 제1회 西獨 4개국 남자배구대회 첫날 경기서 장신 李鍾敬(1m99)의 활약에 힘입어 홈코트의 西獨을 3-1로 물리치고 1승을 올렸다.

4개국 대표팀이 풀리그로 패권을 다투는 이번대회서 한국은 張允昌 李鍾敬 姜斗泰 文勇冠 柳重卓 李範柱를 내세워 속공플레이를 펼쳤으나 西獨의 힘의배구에 눌려 한때 고전했다.

◇제1일 전적

한국 3 (15-13, 13-15, 15-13, 15-9) 1 서독
(1승) (1패)

프랑스 3-2 헝가리
(1승) (1패)

3—1

아르헨 排球팀 轉地훈련 來韓

孫永完아르헨티나남자배구대표팀감독은 내년 10월2일부터 16일까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82년도 세계남자배구선수권대회에 대비, 오는4월 2주일 예정으로 韓國에 전지훈련을 올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휴가차 귀국중인 孫감독은 현재 아르헨티나 남자배구대표팀전력이 세계 8강에 들수 있을 정도로 눈부신 발전을 했다고 밝히고 韓國에 전지훈련을 오는길에 홍콩을 거쳐 中共도 원정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뉴질랜드 大勝 中共과 재대결

월드컵蹴球 예선

【리야드20日로이터=聯合】 뉴질랜드는 19일 리야드에서 벌어진 82년도 스페인월드컵, 아시아·大洋洲예선 최종전에서 홈팀인 사우디아라비아를 5-0으로 대파, 공동2위를 기록한 中共과 본선진출권을 놓고 재대결하게 됐다.

본선진출이 비관시되던 뉴질랜드는 이날 사우디를 초반에 집중공략, 전반에 5골을 빼내 탈락위기에서 기사회생했다.

日 紀陽銀팀에 大勝

轉訓 한국女子하키

日本에 전지훈련중인 한국여자하키대표팀은 20일 와까야마(和歌山)縣에서 가진 친선경기 1차전에서 日本리그 8強인 기요(紀陽)銀行팀을 11-0으로 완파했다고 선수단이 알려왔다.

◇1차전

한국 11 (6-0, 5-0) 0 紀陽銀行

골프選手5명 強訓

아시안게임 對備

한국골프협회는 82년 印度 아시안·게임에 대비, 강화훈련선수 5명을 21일 선발했다.

선발선수는 金聖鎬、郭[illegible]、[illegible]、金奉文、朴昌龍 등 신인선수들로 구성되었으며 현재의 상비군 7명은 매

江原道 野生動物에 먹이주기運動

學校등에 철새 保護·病院설치도 來3월까지

【春川=聯合】 강원도는 겨울철 야생조수보호를 위해 21일부터 오는 82년 3월말까지 야생동물 먹이주기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도는 도내 시·군및 읍·면·동등 각급보호 단체별로 야생동물보호책임구역을 정하고 눈이 10cm이상 내리면 곰·사슴·노루·멧돼지·오소리·토끼·꿩등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는 雪嶽山·小金剛·五臺山등 양지바른 계곡에 콩·옥수수·밀·보리등 먹이를 주어 보호토록 했다.

프로野球委

내년豫算 38억확정

入團희망자 申請접수시작

한국프로야구위원회는 21일 반공연맹회의실에서 2차 이사회를 열어 38억원의 예산을 확정했다. 이사회는 게임수의 대폭축소로 늘어나게 될 각 구단의 적자폭을 줄이기위해 후보활동을 강화, 관중동원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입장요금의 측면으로 서울의경우 입장수입목표달성을위해 당초1일동원관중예상수7천명에서 1만1천명선으로 늘어나게됐다.

한편 이사회는 각자연별로 프로 진출대상선수를 분석, 22일부터 26일까지 프로선수 취업희망자 등록을 받기로했다. 국가대표를 제외한 모든 야구선수들은 우선 이등록전차를마친후 프로팀 입단교섭을 할수있게된다. 프로야구위원회가 집계한 프로진출대상선수는 서울이 2백47명、釜山80명、大邱79명、光州77명、仁川74명、大田64명으로 총6백21명이다.

프로의 아마還元 못하게

野球協서 규약 强化방침

대한야구협회는 프로야구팀들의 선수스카웃이 시작됨에따라 아마추어선수자격을 강화하지위한 새로운 등록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국내에 처음 프로야구가 발족돼 내년시즌 본격활동에 들어감에따라 야구협회는 일단 프로팀에 입단한 선수는 아마추어 야구활동을 할수없도록 아마추어와 프로를엄격히 구분짓는 규정을 명문화할 방침이다.

이박에 개정될 야구협회등록 규정에는 금년부터실시된 유급및 재수학생선수의등록을 금지하는 조항도 추가된다.

나의 이력서

〈題字·元一漢〉

元一漢 ㉑

漢江에서 喬桐島로

모터 힘달려 노저어 섬에 접근

미국독립기념일인 7월4일 처녀항해에 나선 「검은오리」號는 바다에 나가기도전에 한강에서 맞은 악몽같은 첫날밤을 무사히 지새웠다. 날이 새자 우리일행은 파도가 일기전에 다음기착지로 떠나기로 결정했다.

모터를 작동시켰으나 아뿔사 우리의 희망과는 정반대였다. 펌프도 여전히 물한방울 끌어 올리지 못했다.

다행히 선선한 아침바람이 불어 모터대신 돛을 이용, 항해를 계속할 수 있었다.

한강을 천천히따라 내려가며 우리일행은 베이컨과 달걀로 아침식사를했다. 아버지와 피셔박사는 강상의 코피한잔에 모든 시름을 잊은듯했다.

상오11시가 되자 선장인 아버지는 파도가 일것을 걱정하기 시작했다. 파도에대비, 모터를 고치는 사이 「검은오리」號는 바위가 우뚝우뚝 솟은 좁은 수로에 끼어버렸다. 배를 강가운데로 끌어내는데 한동안 애를 먹었다.

모터는 4.5마력짜리로 파도를 이겨나가기엔 힘이 부족했다. 미풍이 서쪽에서 불어왔기 때문에 요리사 피셔박사와 우리 꼬마선원들은 힘껏 노를 저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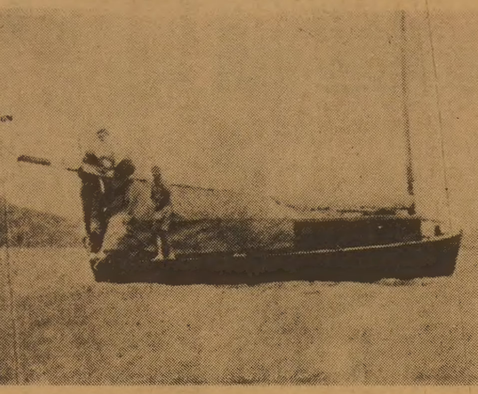
우리가 노를 젓는동안 선장 元漢慶박사는 열심히 항로를 잡았다. 바다바람과 맞서 1시간이상 싸운 끝에 「검은오리」號는 喬桐島 북단으로 나왔다.

喬桐島는 작은 섬이었으나 파도를 막아주어 우리는 파도의 힘에서 벗어날수 있었다. 「검은오리」號는 개펄이 비스듬한곳에 다다랐다.

이때가 바로 정오였다. 파도가 더 거세게 일기전에 닻을 내려야했으나 일이 쉽지 않았다. 작은 [illegible] 「검은오리」號는 뒤뚱뒤뚱 요동쳤다.

밀려오는 파도의 힘을 타고 보트는 개펄위에 저절로 올라섰다. 그런뒤 우리는 배를 해변에대어 닻을 내렸다.

우리일행이 기를쓰고 「검은오리」號를개펄에바싹 올려놓은것은 전날밤 한강변에서 곤두박질친 쓰라린 경험을 되풀이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검은오리號의 왼편 부분에서 보듯 밤에는 천막을 드리우고 낮에는 이를 걷도록 돼있다

새집 구경하다·새攻擊받고 닭屠殺하느라 애먹기도

喬桐島의 정박장소는 아버지와 내가 1년전 커누를 타고 항해할때 하룻밤을 묵었던곳이기도 했다.

그때 아버지가 배를 매만지는동안 나는 혼자 신이나서 바닷가 개펄을 돌아다녔다.

얼마쯤 돌아다녔을까. 개펄 한편에 덤불이 보였다. 그 속에 어떤 새인지는 몰라도 알을 까놓았거나 새끼를 쳐놓은듯했다.

나는 새들의 보금자리를 해칠생각이 조금도 없었는데도 어미새가 날아와 나를 쫓아내려고 공중에서 비스듬히 낙하하여 덤벼들었다.

나는 뜻밖의 공격에 크게 당황했다. 마침 손에 들고간 노를 머리위로 곤두세워서 새의 공격을 가까스로 피해 아버지한테 돌아온일이 있었다. 이 일을 나는 쌍둥이 동생들에게 열심히 설명했으나 그들은 새의 공격을 실제로 받은일이 없어서인지 좀처럼 곧이 들으려 하지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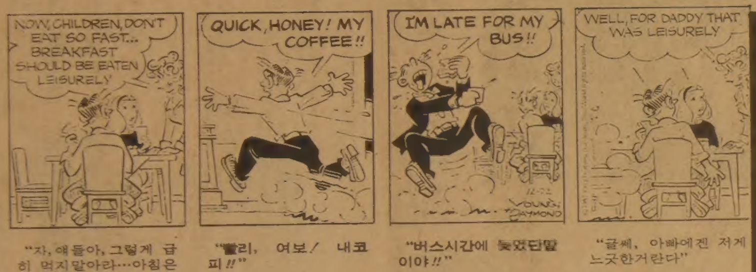
나는 작년의 경험을되살려 노한개를 손에들고 동생들을 앞세워 개펄을 뒤졌으나 새의 보금자리를 찾지못했다.

喬桐島에서 있었던 또하나의 추억은 아버지가 주민들로부터 닭한마리를 사서 나에게 죽이라고 시킨일이다. 나는 집에서 해본일이없어서 쩔쩔맸는데 아버지가 나를 훈련시키려고 일부러 시켰음이 분명하다.

어려운 喬桐島의 밤이 지나가고 아침이되자 우리일행은 닻을 올리고 그날중으로 海州灣으로 곧장 들어가려고했다. 우리앞에는 가장 험한 바닷길이 남아있었던 것이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블론디 딘·영作 本社特約·連載漫畫



"자, 얘들아, 그렇게 급히 먹지말아라…아침은 느긋하게 들어야 되는거야"

"빨리, 여보! 내코피!!"

"버스시간에 늦었단말이야!!"

"글쎄, 아빠에겐 저게 느긋한거란다"

조규혁
종합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상점보험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流星의 賦 <266>

李炳注作
李友範畵

感傷異國月 ㉛

드디어 나니와(浪華)에 도착, 7월20일이었다.

나니와는 일명을 대판(大阪)이라고도 하고 풍신수길(豊臣秀吉)의 근거지이다. 북으로 산성주(山城州)에 접하고, 서론 번마주(播摩州)에 접하고, 동남에 대해(大海)를 끼었다. 그리고 이땅엔 임택전모(林澤田畝)의 미가 있고 오곡, 상마(桑麻) 어염(魚鹽)이 풍부하다. 금 은 주석등의 광석이 인근의 산에서 난다고 들었다.

거리의 모양은 화미(華美)를 극하고 있었다. 다리의 수가 2백여, 사찰이 3백여, 공후(公侯)의 화려한 저택이 수천, 서민들의 주가(住家)는 수만. 전란이 백년동안을 계속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거리가 이처럼 윤택한 수가 있을까 하는 의문은 당연하다.

또한 계남이 놀란것은 어느 거리의 일각(一角)으로 갔더니 유지헌(柳枝軒)、옥수당(玉樹堂) 등의 옥호를 가진 서점(書店)들이 있었는데 중국의 서도 있고 아조(我朝)의 제현문집(諸賢文集)의 복간본(復刊本)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책을 좋아하는 차천로는 책점이있는 그 지역에서 떠날 줄을 몰랐다. 그리고는 이 책, 저 책을 뒤적이며

「왜에 와서 이런 책은 보다니」

하고 연신 중얼거렸다.

주루(酒樓)엔 갖가지 품명의 술이 있었는데 대강 상매(桑梅)、인동(忍冬)、복분(覆盆) 같은 것으로서 그 가운데선 제백(諸白)이란 술이 가장 저명했다. 빛깔은 흔록색이다. 또 연주(練酒)란는 것이 있었는데 그 빛깔은 설색(雪色)이었고, 연주(練酒)는 비단빛을 닮았고, 마앙은 구슬을 닮아있었다.

곳곳에 화원(花園)이 있었다. 무사앵(無絲櫻)、무사해당(無絲海棠)、목련(木蓮)、옥잠(玉簪)、자연(紫燕)、자등(紫藤)、수선(水仙)、사시매(四時梅)、백모란(白牡丹)、안래홍(雁來紅) 등의 화초가 볼만했다. 특히 국화의 종류가 많은듯 했는데 어애황(御愛黃)、불두백(佛頭白)이 이종을 상품으로 치는 모양이었다.

의방(醫房)엔 화중산(和中散)、통성산(通聖散) 등 약품이 있었다. 길에 금패(金牌)를 세워놓고 통행인 상대로 팔고 있는 것이다.

노화정(蘆花町)엔 창옥(娼屋)과 기원(妓院)이 있어 십리에 걸쳐 금수(錦繡)、향사(香麝)、홍렴(紅簾) 화장(畵帳)으로 꾸미고 있다. 나라 안의 미인들을 골라 명품(名品)을 자랑하는데 하룻밤 수백금(數百金)으로 팔린다는 이야기다. 왜인의 호음호색(好淫好色)은 능히 짐작할만 했다.

듣건대 서(書)를 업으로 한는자는 박문속사(博聞屬辭)로서 군국(郡國)에 출유(出遊)하여 제후(諸侯)의 객(客)이 된다고 했고, 검술(劍術)을 잘하는자는 특히 많은 칭송을 받는다는 것이며 그 일기(一技)로서 입신양명(立身揚名)이 성취될수 있다고 했다.

그 밖에 백공(百工)의 기교(技巧)가 있고 중개상인들이 모여들어 멀리 남만(南蠻)과의 교역이 활발하다고도 했다. 만내(灣內)에 수십척의 기선(奇船)이 있었는데 그 배는 남만에서 온 배들이라고 했다.

히라달의 안내를 받고 대판의 거리를 하루종일 구경하고 돌아온 홍계남은 도깨비에 홀린것 같은 기분이 되어 입맛을 다셨다. 하늘아래 이런 나라가 있다는 것이 신기하기 짝이 없었던 것이다.

생명의 말씀
CITY-TV : 채 널 ₮9
케이블 7
일요일 8 : 30~9AM
MTV : 채 널 47
케이블 4
목요일 12 : 30~1PM

謹賀新年

즐거운 새해를 맞아 교민 여러분의
무한한 발전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송 의 섭 532—5394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주식회사 쌍 방 울

年末年始 중고생 脫線잦아

父母무관심속…"送年파티費用 아쉬워"

慈善가장 거리서 物品強賣

들뜬 분위기에 集團폭행도

겨울방학을맞은 일부 남녀중고교생들이 크리스머스와 연말연시를 앞두고 탈선하는일이 잦다. 많은 학생들이 모자라는 학력과 체력단련을위해 시간표를짜놓고 건전한방학을 보내고있지만 일부학생들이 사회와 부모의 무관심속에서 송년파티 비용을 마련한다는 구실로 물품을강매하는 행동을 서슴지않고있고 강·절도사건도 심심찮게 저지른다.

◇크리스머스와 연말연시를 앞두고 일부 중고생들이 유흥비를 마련하기위해 길거리에서 카드를 강매하는 모습이 자주 눈에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계없음】

男女학생 어울려 徹夜디스코 파티도

겨울방학은 여름방학과는 달리 大入학력고사와 高入연합고사가 끝났을뿐더러 졸업또는 기말시험도끝낸뒤라 해방감이 보다많고 크리스머스와 연말연시등 사회가 들뜬분위기여서 청소년들을 자극시키기쉬운 분위기이기 때문에 탈선이 쉬운것이다.

심한경우 어른들의 눈을피해 사복차림으로 대폿집이나 포장마차, 제과점이나 분식점, 공원등에서 남녀가 어울려 음주·흡연을하며 다방을 빌어 철야디스코파티도 벌이고있어 「관심이」 이끌린다.

지난18일 하오4시께 서울역지하도엔 B中 교복을입은 학생3명과 K高 교복을입은 남학생2명과 사복차림의 여학생1명등 4개팀이 지나는 사람에게 카드를 팔고 있었다. 이들은 자신들이 직접 카드를 만들거나 도매상에서 구입, 원가의 배로 팔고있는데 지나는 사람들에게 『양로원에 연탄보내려고 합니다』혹은『고아원에 위문가려고 합니다』는등의 말로 거의강매하다시피 떼를 썼다.

B中2년 金모군(16)은 『솔직히 말해 용돈을 마련하려고 카드를판다』고 털어놓고 『카드팔아 생긴돈을 선물도하고 친구끼리모여 파티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개 하오5시이후에 거리에 나와 행상을 시작하는 이들 학생들은 대개 밤10시까지 카드를파는데 파장무렵에는 남녀가 어울려 포장마차에도 출입한다.

서울九老區九老洞공단입구의 포장마차주인 安致英씨(42)는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카드행상을하는 남녀4명이 밤10시30분께면 꼭들러 한잔하고 간다고 전했다.

일부 중·고생들은 금품을 마련하기위해 집단폭행과 절도도 저지르고있다.

지난18일 서울鍾路경찰서에 구속된 J中2년 李모군(14)등 3명은 연말유흥비 마련을위해 서울鍾路區昭格洞149의2 崔美娥씨(29·상업)집 문을뜯고들어가 현금4만원을 훔친것을비롯, 지난5월부터 4차례에걸쳐 12만5천원을 털어왔다.

지난18일 江西경찰서에 구속된 서울K중퇴학생 盧모군(16)등 3명은 空港洞 에어포트호텔 근처에서 등하교길의 학생들로부터 금품을털어왔다.

또 일부학생들은 다방업주와 짜고 디스코파티 티킷을 팔아 유흥비를 마련하거나 1일 찻집을 열어 재미를보기도 한다.

지난20일하오9시40분께는 서울鍾路區鍾路3街13앞길에서 예인과광평을끼고가던 金모군(16·재수생)이 許모군(18·C高2년)등 2명과시비, 金군이 소주병으로 찔러 許군등에게 중상을 입히기도했다.

이같은 중·고생들의 탈선행위는 서울뿐만아니라 지방곳곳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있다.

▲지난18일 하오6시께 강원 原州市園洞 경로당 앞길에서 原州D高 1년 李모군(16)등 6명이 신문배달소년 黃지원군(17·Y高2년)에게 금품을 요구하며 마구때려 중상을 입혔고 같은날 하오7시께는 原州市鳳山洞 쌍다리 입구에서 6~7명의 청소년들이 신문배달소년 朴基永군(14·H중1년)에게 수금한돈을 내놓으라며 집단행폭을했다.

▲또 지난11일 새벽5시20분께 原州市中央洞 S상사에 D高2년 李모군(17)등 2명이 침입, 녹음기·전자계산기등을 훔쳐 달아나다 붙잡히기도했다.

▲또 順天市金谷洞에서도 지난17일 밤10시30분께 M高3년 柳모군(18)등 4명이 길을 가던 S高2년 諸葛모군(17)를 마구때려 전치4주의 중상을 입히고 입건됐으며 지난10일밤10시께는 順天市梅谷洞 수공아파트앞에서 M高2년 宋모군(18)등 3명이 용돈을 마련키위해 아파트관리 사무실앞에 세워둔 자전거 2대를 훔쳐달아나다 붙잡혔다.

▲또 19일 새벽2시20분께 裡里市中央洞1가17 裡里驛앞 역전휴게실(주인 金재현)에 崔모군(19·益山郡春浦面)과 黃모군(19·裡里市松鶴洞)등 2명이 손님을가장해 침입, 주인 金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털려다 金씨가『강도야』하고 소리치자 흉기로 金씨의 팔과 어깨등을 찔러 중상입히고 달아났다.

이들은 사건발생 2시간만에 경찰에검거됐는데 크리스머스에 쓸 용돈을 마련하기위해 범행했다고 말했다.

詐欺당한 「母國投資의 꿈」

在日동포가 6억들인 太陽熱주택건설會社 동업자에 橫領당해

"돈찾아준다" 4명이 또 詐欺

在日동포 金瀞道씨(59·서울鍾路區明倫洞1街1의11)가 6억여원의 재산을 반입, 태양열주택건설회사(유한회사)를 차렸다가 동업자로 세운 劉乙子씨(38·부산東萊區蓮山洞1122의3)에게 상당액을 횡령당했으며 劉씨를 구속시키고 재산도 찾아주겠다는 사기꾼 4명에게 다시 2천5백만원을 사취당했다.

警察, 사기한 4명 拘束·동업자 搜査

치안본부 수사대는 21일 裵八씨(52·馬山연초소매인조합장·경남昌原市昌谷洞325) 全錫千(43·馬山市石田洞248의5) 李東信(41·서울江西區內鉢山洞山34의15) 裵武亨씨(43·馬山市校原洞) 등 4명을 변호사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의하면 裵씨등은 지난10월초순 劉씨가 재일동포 金씨의재산 6억여원을 횡령했다는 얘기를 전해듣고 평소 고향이 같아 「형님」으로 통하는 金씨를 찾아가 劉씨를 구속시키고 재산을 되찾아주겠다면서 교제비조로 10여회에 걸쳐 2천5백만원을 받아 裵씨가 9백10만원, 全씨가 1천1백만원, 李씨가 90만원, 裵씨가 3백92만원을 나눠썼다는것.

한편 劉씨의 횡령부분에대해서는 서울시경이 수사중인데 劉씨는 79년10월 金씨가 6억3천만원을 투자, 부산시 南區廣安洞에 蓮興주택회사를 세우자 등기권리가 없는 金씨를 대신해 자신이 회사대표를 맡아 태양열주택25棟을 건립 판매하는 과정에서 金씨몰래 상당액을 횡령한것으로 알려졌다.

劉씨도 전평30평 안팎의주택을 건립, 싯가 1천7~8백만원짜리를 6~8백만원에 팔았다고 속여 차액을 횡령한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은 회사를 설립, 2년이 지났는데도 이익배당이 없자 金씨가 재무구조를 내사, 적어도 6억원가량의 횡령혐의가 잡자 수사기관에 고발함으로써 밝혀졌다. 金씨는 일본에서건축업을 하면서 번돈을 고국에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한것이다.

深夜다방서 불 3천여만원 被害

21일 새벽0시30분께 서울中區南橋洞150 삼호빌딩 2층 삼호다방(주인 趙鎭棠·30)에서 불이나 위층에 있는 미가도살롱등 내부 2백90평을 태워 3천여만원(경찰추산)의 재산피해를 낸뒤 3시간만에 꺼졌다.

이날불은 다방주방 쪽에서 번지기시작 했는데 3층살롱과 5층의 코스모스특수목욕장등에 있던 20여명의 종업원은 비상계단과 고가사다리차로 모두 대피,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방화지점으로 미루어 다방의 쓰레기통에 버려진 담배꽁초에서 불씨가 되살아나 불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다방내실에서 잠자던종업원 文淑姬양(22)등을 불러 정확한 화인을 조사중이다.

通勤버스에 코트자락 문에걸려 女工끌려가다 慘死

【釜山=聯】통근 버스에서 내리던 여공이 코트자락이 문에걸린채 4백여m나 끌려가던끝에 뒷바퀴에치여 그자리에서 숨졌다.

20일 하오6시25분께 釜山市海雲臺區盤如1洞 원동교앞에서 타일제조회사인 경남梁山郡機張面소재 주식회사「아그르브」여공 趙富子양(20)이 이회사소속 경남5아3175호 통근버스(운전사 張결식·47)에서 내리다 뒷바퀴에 치여 숨졌다.

趙양은 이날 퇴근길에 통근버스를 타고가다가 집앞에서 버스앞문으로 내리는순간 버스가 출발하는 바람에 코트자락이 문틈에끼어 4백30여m나 끌려가다 이같은 변을 당했다.

경찰은 21일 운전사 張씨를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SUN-LIFE
생명보험: 각종보험
B) 922-3111
R) 439-8885
MRS. 김신명

多富洞戰蹟碑제막

기념관 開館式도

국방부는 21일하오 6·25의 격전지였던 경북 漆谷郡架山面多富洞에 전적비와 기념관을건립, 제막식과 개관식을 가졌다.

한미군 고위장성, 金聖培경북도지사, 李鍾律경북도교육감등 2백여명의 내외인사와 지역주민들이 참석한 이날기념관 개관식및 전적비제막식에서 周永福국방부장관은 식사를통해『한국전사상 처음으로 한미연합작전이 전개돼 유엔군의 전차전과용단폭격이 감행되었던 多富洞전투야말로 당시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있던 중요한 전투였다』고 밝히고『이전투에서의 국군의승리는 개전이후 처음으로 국군이 공세작전을 취할수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6·25격전지인 경북漆谷郡多富洞 격전지에 세워져 21일 제막된 전적비. 【大邱=聯】

精薄兒·고아에선물 李順子여사

대통령영부인 李順子여사는 21일하오 서울恩平區鑑山洞 恩平天使園을 방문, 수용중인 정신박약아와 고아들을 위로하고 장난감등을 선물했다.

李順子 여사는 이어서울道峰區道峰洞의 仁江院과 水踰洞의 한빛육아원을 차례로 방문, 수용중인 고아들과 맹아들을 위로했다.

◇스님도 證言臺에

高淑鍾피고인(앞)의 알리바이에 관해 증언하기위해 법정에선 스님들.

漢陽住宅 사우디職員 1백명 방위성금 本社기탁

사우디아라비아에 진출중인 漢陽주택(株) 지잔현장직원 1백명은 방위성금으로 1백60달러를 모금, 21일 외무부를 통해 본사에 기탁했다.

聖誕節에 눈안내려

오는25일 성탄절에는 화이트·크리스머스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중앙관상대는 21일 우리나라가 중국上海부근에 중심을두고있는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을 받고있어 성탄절에 눈이 내리지 않겠다고 예보했다.

관상대는 또 지난주말의 예기치 못했던 폭설이후 전국적으로 혹한이 몰아칠것으로 예상됐던 우리나라날씨는 예년과 비슷한 기온분포를 보이겠다고 전망했다.

대설이 내린 다음날인 20일 서울지방의 최저기온은 영하4·4도로 예년보다 약2도가 높았으며 21일 아침최저기온도 영하5도로 예년과 비슷했다.

오는25일 성탄절에는 전국의 아침최저기온이 영하3도에서 6도의분포가 되겠다고 관상대는 내다보았다.

한편주말인 19일하오부터 갑자기내린 대설로 서울에서는 하룻동안 평일의 2배에 가까운 1백14건의 각종교통사고가 발생, 90명이 중경상을입었으며 20일에는 73건의 교통사고가발생, 82명의 중경상자를냈다.

男女混性 도박판 14명令狀

말썽생기면 解決士동원 暴力수습

서울 永登浦경찰서는 21일 서울九老區始興洞638 등 徐英子씨(47·여·서울江西區木洞409의176)등 남녀혼성도박단 14명을 붙잡아 徐씨등 4명에대해 도박장 개설혐의로, 吉俊鎬씨(58·경기安城郡安城邑)등 6명을 상습도박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도박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폭력을 휘둘러 수습하고 돈을 뜯어온 金相範씨(45·서울九老區始興洞638)등 속칭 해결사 4명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신청했다.

경찰에 의하면 이들은 20일하오 千勝元씨(40·서울永登浦區文來洞4街27)집에서 판돈3백64만원으로 도리짓고땡이등 화투놀음을 한것을 비롯, 지난18일부터 판돈5백여만원으로 3차례에걸쳐 도박을 해온 혐의를 받고있다.

현수교붕괴, 셋拘束

【西歸浦=聯】속보=天帝淵폭포현수교붕괴사고를 수사중인 西歸浦경찰서는 21일 다리가설공사를 맡았던 三星종합건설현장사무소장 吳成寅씨(53)와 공사하청업체인 宮鋼산업대표 金永澤씨(61)·공사감리책임자인 東明기술공단부사장 朴基淵씨(52)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혐의로 구속했다.

합의본 交通사고 「運轉者 형사처벌 면제」

새해 1일 發效

罰金 5백만원以下로 고쳐

운전자가 인사나 대물사고를 내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했을경우 운전자를 형사처벌하지않는다는 내용을 주요골자로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안」이 내년1월1일부터 발효된다.

이는 영업용택시나 오너드라이버, 버스, 화물트럭등 전차량운전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다만 인사사고로사망했을경우, 도주,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주취, 음주및 약물복용운전등 8개 주요사항을 위반했을때는 예외로 형사처벌을 받는다.

한편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에가입한 경우에도 피해자와 합의된것으로 간주한다는 부분은 6월이내에 대통령령으로 보완, 구체화할 것을 따로정하도록 했다. 그러나『전액보상하겠다』는 보증만해주면 피해자와 합의한것으로 처리할수 있도록했다.

이와함께 교통사고의 벌금도 현행『2백만원이하』에서 내년부터는『5백만원이하』로 인상 실시한다.

高女人알리바이 일부깨져

商店주인"상오T셔츠팔았다"증언

尹老婆 6회公判

尹景花씨 피살사건의 高淑鍾피고인(46)에 대한 제6회공판이 21일 상·하오에걸쳐 서울형사지법 합의14부(재판장 金彖武부장판사)심리로 대법정에서 열려 증인심문을 계속했다.

이날 검찰측 증인으로나온 皇甫영희씨(23·女·서울구치소교도관)는『지난8월24일 야간근무중 신입입소자들에대한 신체검사를하면서 高피고인에대해 검신을 한적이있다』고 말하고『이때 高피고인을 수갑을채우지 않은채 말의시켰는데 몸에서먹은 자국은 볼수없었다』고 증언했다.

이어 사건당일인 지난7월22일 高피고인에게 T셔츠를 팔았다는 유경영씨(37·서울지하상가424호 주인)는『지난7월22일 상표판매 출장과 금전등록기의 테이프를 자세히 살펴본결과 이날 상오에 7천5백원을 받고T셔츠1개를 판사실이 있다』고 말해 이날 하오8시~8시30분사이에 T셔츠를 샀다는高피고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변호인측 증인으로나온 金경란씨(46·女·高피고인과 고교및 대학동기동창)는『지난8월26일상오 검찰청 金基洙부장검사실에서 高피고인을 면회했을때 高피고인이 검찰조서를 받았는지 여부는 알수없었으나 高피고인이 경찰의 고문사실을 주장한뒤『나는 죄가없다』고 말했는데 이때 金부장검사가『왜 나한테 다말해놓고 여기서 딴소리를 하느냐』면서 高피고인의 말을 제지했다』고 증언했다.

金씨의 이날증언으로 高피고인은 지난8월26일 상오에 가족과 친구면회를하고 이날하오에 2차검찰심문을 받은것으로 밝혀져 2차검찰진술의 임의성은 일단 유력해졌다.

다음공판은 내년 1월11일 상오10시.

河刑事2회公判

서울元曉路 尹노파 피살사건을 수사중 예금증서 3장을 훔쳐 구속·기소된 전서울龍山경찰서 형사 河英雄씨(40)에 대한 업무상횡령사건 2회공판이 21일상오10시 서울형사지법 明世弘판사 심리로 211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정에는 河형사의 동료였던 龍山경찰서 李大榮경사와 예금증서를 넘겨받은 趙仁來씨등 7명이나와 증언했다.

결심공판은 내년1월11일.

KAWAI 피아노

●KAWAI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큰 회사중의 하나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일본 정부에서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읍니다.
●HILLCREST MALL ☎: 883-9407
●MARKHAM PLACE ☎: 881-8211
대표 : 윤호섭,
세일즈 매니저 : 알렌

SHANGHAI RESTAURANT

메 뉴 : 군만두, 찐만두, 짜장면, 우동
Open Hours : 화~금 11 : 30AM~12PM
일요일 11 : 30AM-11PM
(공휴일도 문 엽니다)
주 소 : 334 SPADINA AVE.
(NEAR KENSINGTON MARKET)
전 화 : 864-9347

Dukes Computer
SMALL BUSINESS SYSTEMS
— Computer에 관한 일반적인 전화문의 환영 —
●SPECIAL SALE
자녀교육및 Business겸용
Apple II Plus
●SOFTWARE SERVICE
General Ledger
Account Receivable
Inventory Control
Payroll 및 Word Processing
●PERIPHERALS
Printer, Games, Music, Graphics
826 FORESTWOOD DR., MISSISSAUGA, ONT. L5C 1G7
☎ 275-0702 오 영 림

오사까 하우스

각종 술을 써비스 합니다.
값싸고 맛있는 식당(초밥·국수류등)
부디 한번 찾아주세요(쓰끼야끼, 덴뿌라, 사시미)
※스토아시간 :
월~목 11 : 00AM~10 : 30PM
금요일 11 : 00AM~11 : 00PM
토요일 5 : 00PM~11 : 00PM
일요일 5 : 00PM~10 : 00PM
OPEN 7 DAYS
12 TEMPERANCE ST
☎ : 368-2470.
Queen Bay Temperance St. Ⓟ Yonge King

Grant Brown
새차및 81년도 데모카
특별세일(매출)
GMAC 이자율 14.2%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J2000.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거구장

회갑, 생일잔치, 동창회 및 각종 피로연
예약 환영.
영업시간 : 매일 오전11시~새벽2시
금, 토 : 오후8시30분~새벽2시
목, 금, 토, 일 : 오후8시30분~새벽1시
가수 : 박 소 영 출연
5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意安飯店
의 안 반 점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 4 시까지 영업
일류 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항상 신선한 랍스타, 게, 굴, 해삼, 전복등을 준비해 있읍니다.
영업시간 : 월~금 : 4 PM~4 AM
토~일 : 12PM
124 CHESTNUT
(171 Dundas St. W.와 Chestnut코너)
☎ : 977-9734

코리아 하우스
KOREA HOUSE
한식전문.
즉석불고기
정종, 맥주
666 BLOOR ST. W.
TORONTO, ONT.
*536-8666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렛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 인

출퇴근 하시면서 여아보아 주실분 구함
(스파다이나 블루어 써브웨이 옆)
☎ 921-8102

HELP WANTED
일본 음식점에 웨이트레스와 키친헬퍼구함.
☎ 977-9519 195 RICHMOND ST. W.
일본식당마사

RESTAURANT동업자 구함
BEER + WINE 라이센스가 있고 새 PLAZA내에 SETUP된 전망이 좋은 고급 식당입니다.
꼭 관심이 있는 분은
281-8218(오후2시~5시 사이만)
로 문의 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접시닦을 학생구함 주3일 근무
☎ : 421-6016

중역간부모집－어느정도 영어에 융통하고 용모단정한 분. 당회사는 기반이 잡혀있는 무역회사임.
☎ : 962-0019

남자 스토아 헬퍼구함
FULLTIME
☎ : 447-2116 MR. 윤

매매및 양도

이사관계로 급히 매매코저함. 짧은시간의(10 : 00AM~6 : 00PM)GIFT SHOP으로써 은종류, 크리스탈, 밥상보 등 여러종류 취급. ☎ : 낮(656-6660), 밤(224-2227)

성능좋은 2 DOOR POP을 급히 구매코자하니 연락바랍니다.
☎ : 239-7267 미세스 신

작은 그로서리 스토아 가정형편상 매매
이층방 포함 렌트 $650
☎ : 656-7753

도나스및 샌드위치 샵급매
토론토 근교에 위치 뉴 오픈 스토아, 장래성 있는 지역, 비데오 머신으로 렌트카바, 관심있는 분은 연락바람.
☎ : 1-576-1732, 745-3498
미스타. 고

몬트리얼이나 유럽에 있는 빌딩이나 회사를 사는데 투자하시기를 원하시면 연락바랍니다.
4521 PARK AVE. SUITE 320, MONTREAL, P. Q
MONTREAL MANAGEMENT SERVICES Co.
☎ : 849-0959, 7374~6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5000다운페이+스탁
☎ : 251-1397

사무실·점포 렌트

조용한 사무실 세놓습니다.
(DUPONT & DUFFERIN)
☎ : 533-2364

구 혼

구 혼 : 1957년생(25세), 키167cm,
직업 : 컴퓨터, 결혼할 여자구함.
☎ : 534-9660

구 혼 : 31세남, 유학생으로 현재대학원 재학중임 〈전공 : M. B. A.〉
☎ : (213) 383-2518 〈L. A. 저녁시간요〉

비자와 매스터카드로!
VISA
오시지 않고 광고를 내시는 편리한 방법이지요.
☎ : 533-2361

미 용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킴스 미용실
B)532-7094 R)248-2437(코리아하우스 뒤)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 751-9236, 757-2106 홍 진 표

매매 부동산

복덕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주택전문 ☎ : (B) 752-3111, (R) 298-2546
곽 석 용

보 석

다이아몬드·스타
공장가격으로 특별우대, 주문에 의해서 보증서 책임
신용본위 ☎ : 537-0432(B), 534-3346(R) MR. LEE

자동차 고장??
(한국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533-2361-4

시설및 수리

집수리·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 : 669-5784 미스타 심

TV 출장 수리
☎ : 431-0102 미스타 박

KIMBO ELECTRIC CO. :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보수, 가게신설, 용량증설, 전기일 일절 집, 가게, 공장
☎ : (B) 245-5544(PAGING)2790, (R) 255-2161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 : 438-3795 김 영 호

목공소 FineWoodwork
676•1173 769•9468 조 상 민
상점시설및 주택개조·사우나 설치
진열장·카운터·홈빠·책장등 가구제작

악 기 점

조율 수리 SOO PIANO SERVICE
SIMP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 : 222-4662 김 수 웅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 : (R) 636-1430, (B) 783-6871
1178 EGLINTON AVE. W. 이 상 철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양 장 점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 : 532-5394(B), 742-0737(R)

샘터의상실
숙녀복, 파티드레스, 웨딩드레스, 단체주문환영
☎ : 535-4441 606 BLOOR ST. W. 디자이너 MR. 김

이삿짐및 운송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라 운 수

인벤토리

INVENTORY
①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②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③ STORE 납세대비 INVENTORY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B)259-5622, 255-8301 (R)252-2963 MR. 오

INVENTORY —인벤토리—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에어콘·히팅·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판매·수리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환 명

Palmer's 시설·판매·수리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 : (B) 746-3840~1, (R) 493-9945 김 봉 균

센 츄 리 냉 동
원 종 성, 이 인 식
☎ : 221-5441

KIM'S 냉장고, 에어콘
시설, 수리일체
☎ : 749-3178 김 진 환

여 행 사

제 일 여 행 사
621A BLOOR ST. W.
535-2377 유지원

천 우 여 행 사
720 SPADINA AVE.
928-3335 김현두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536-2155 김창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페인팅, 토잉써비스
95 PORTLAND ST. ETOBICOKE.
☎ : 255-2111(B), 828-5001(R)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 :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 : B) 231-6951, R) 742-5408 오 세 호

ROGERS GARAGE 변 달 원
자동차 수리 일체).
20 ROGERS RD. ☎ : 651-9324(B) 226-5430(R)

라지에타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CITY WIDE RADIATOR CO
(B) 245-1978 (R) 248-6032 김용환

카펫·카텐

카펫 크리닝 : 카펫·소파·체어·자동차시트
☎ : 439-6277 박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펫·브라인드
2390 LAKESHORE BLVD. W.
☎ : (B)252-4857 (R)252-6602 유원덕

럭키 DRAPERY
4141 DIXIE RD.(딕시×버남돌프)
☎ : 625-0698 최 원 보

꽃 집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 751-5851 이 동 환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875 JANE ST. TOR.
＊생화, 조화, PLANTS ＊GIFT취급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 주문 배달함.
☎ B) 769-0609
R) 242-5194 여 정 용

꽃 집 크로스웨이(구 클레어리)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넘파·김

정 촌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꽃도매상 437 CARLAW AVE. TOR
＊각종 CUT FLOWER. 생화. HANGING PLANT. TREE.
＊꽃과 화분을 취급하는 스토어
＊개업인사. 각종파티. 사무실용. 방문
☎ : 465-8167 (MR. 김, MR. 곽)

한 방 원

침 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안 강 용 한 약 건 재 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진풍웅담●녹용●우황청심환●사향●경명주사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보제첩약및 각종병에 대한 처방약
6일영업 아침10시~저녁8시 (수요일 휴업)
차이나타운내(465 DUNDAS W.)
☎ : 363-3883, 363-2088 최 호 권

서 울 한 의 원
●30여년간 서울에서 한의원 경영
●대한한의사협회장의 한의학발전공로표창장10여회 수상
※진료과목 : 한방내과·신경과·부인과·침구과·산후보약
주소 : 10 Blackfriar Av #216 Weston, Ont.(Kipling×Dixon)
☎ : 247-9347 한의사 : 김 장 석 (왕진함)

태 권 도

손명수 태권합기도장 :
2186 BLOOR ST. W.(사범 : 손명수)
(AT RUNNYMEDE써브웨이) ☎ : 763-1155

박종수 태권도장(사범 박종수)
719 YONGE ST
☎ : 961-7100

임송학 태권도장
교포들에게 반액으로 봉사
1963 WESTON RD. (1층)
☎ : 247-7577 (웨스톤×로렌스) 로브로 앞

회계사무소

공인회계사 이 명 세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AUGA 전화 : 273-7300

R. I. A. 김 인 규
ACCOUNTING & TAX 844-0178

사 진

새한칼라 현상소
●결혼 ●돌사진 ●각종 증명사진 ●회갑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 : 535-7772 630 BLOOR ST. W. TOR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 촬영
○각종카메라·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증명사진
619 Bloor St. W. Tor. ☎ : 534-1085 김 춘 학

무지개 칼라－ 36 NEAPOLITAN DR. 438-4435
•VIDEO 촬영 •wedding
•commercial •wall decors

60 MINUTE PHOTO LAB
●1시간에 모든 현상이 가능
●교포께 특별히 10% 할인해 드립니다.
●프린트 싸이즈(4×6)품질보장
●KNOB HILL FARM DIXIE MALL ☎ : 274-4323
50 BLOOR ST. W. ☎ : 967-7121

기 타

PICTURE FRAME WAREHOUSE
각 종 액 자
82A REXDALE BLVD., REXDALE ☎ : 746-2120 조 혜숙

ZAP SUREKILLER 368-9018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통닭. 오뎅 한국인의 빈대떡, 통닭 전문 :
각종 샌드위치 주문환영
☎ : 537-0432 미스타 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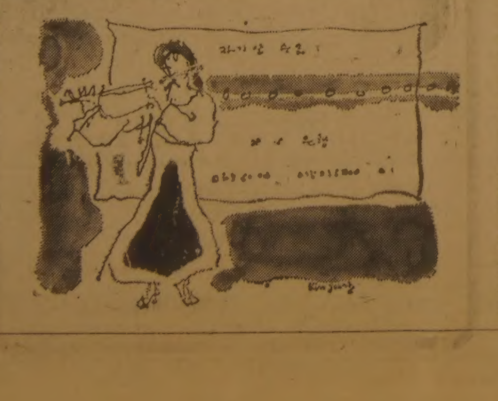
니폰·비데오 많은 한국테이프가 새로구입
주6일 오픈 1993 DANFORTH AVE. TOR.
☎ : 698-0633 하마구씨

아십니까?
안내광고란의 위력을

낭비없는 광고효과는 한국일보에서!!

바다에서 플룻을 <10>

金梁順 作
金鈴 畵



플룻을 버려둔지 얼마가 지났을까。

대학을 졸업할 즈음、그 대학조차 여러사람의 도움없이는 졸업하지 못했을 나에게는 빈에의 유학이란 비행기삯도 마련하지 못한 음악도의 허황된 꿈이었다。

나보다 안타까와했던 사람은 화강언니였다。광고회사의 카피라이터로 일하면서 내게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던 그녀에게도 역부족의 사태였다。

『분위기 괜찮은 살롱에서 연주를 해보도록 할래? 조금만 마음을 열면 도처에 길이 있단다。한 1년만 벌어서 여비라도 마련해 가지고 떠나면 뒤는 내가 밀어줄께』

화강언니의 제안이었다。

그때의 내겐 유학이 목표였다。다른 어떤 것으로도 그것을 대신할 수는 없었다。

나를 위한 목표였던가。목표를 위한 나였나? 자신을 돌보지 않는 집념은 오히려 자신을 파멸로 몰아갈 뿐인 것을。

화강언니의 현명을 누구보다도 잘알고 있었던 내가 막막한 미래를 앞두고 더이상 버린다는 것은 그녀에게도 리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그녀는 내게 어머니와 같은 존재였으며 친자매이상의 애정을 기울여 준 괴롭혀서는 안되는 여자였다。

나는 결국 그녀의 친구가 실내장식을 하였다는 고급술집에서 일주일에 한번씩、매주 화요일 밤마다 내 은빛 관악기를 불어야 했다。연주회용 드레스보다 노출이 심한 드레스를 입도록 종용받는 일에 차츰 길들여지면서 내 악기에는 술찌꺼기와 담배연기와 남자들의 탐욕과 세상잡사의 온갖 더러움이 덕지덕지 켜를 쌓아갔다。악기의 소리는 혼탁해지고 내 열정의 호흡은 쉬 지쳐갔다。

플룻은 어린시절부터、성장해서 화강언니를 만나기까지 내 생활의 한 중심이었다。그것은 내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는데 있어서 지켜져야 할 도덕성의 근원이었다。그것은 내 생활과 정신 전체를 지배해온 신성한 물건이었다。나는 그것으로부터 받은 사랑에 보답하겠다는 뜻으로 대학에서 플룻을 전공하였고 유학을 갈망하였다。

그러나 내가 음악을 전공한 것은 어쩌면 그것을 통해 구원받고 싶다는 더욱 이기적인 욕구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었을까?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술집 무대에 서면서부터 내 악기의 소리는 한정된 음만을 표현할 뿐이었으며 내 집념도 그와 함께 퇴색해가기 시작했다。마치 목적과 방법이 일치하지 않을 때의 그런 혼란이 나를 서서히 타락의 위기로 몰아가고 있었다

어느 화요일 밤、그 고급살롱엔 그 살롱 출입 고객중 가장 귀빈이 될만한 자의 방문을 받았다。그는 미국에서 경영학 학위를 갖고 돌아온 재벌총수의 후계자였다。

그 남자는 그날 손수 듣고 싶은 곡명을 적어 내게 보냈는데 그의 신청곡은 거액의 액면가 수표 뒷장에 적혀있었다。

그의 신청곡 〈돈 크라이 포미 아르헨티나〉의 연주가 끝나자 그는 나를 그의 자리로 초대해 술을 권했다。나는 그가 따라주는 술을 마셨고 그가 준 수표도 되돌려주지 않았다。그것은 내 악기가 치른 비싼 댓가、내가 당한 수모감의 보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 남자는 다음 주에도、그 다음 주에도 그곳에 와서 수표의 액면가를 늘려가며 똑같은 곡을 신청하고 내 술을 부어주었다。

중앙 AUTO SERVICE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TOR.
☎ : 532-3946 길창세

謹賀新年

지난 한해동안 저희 업소를
애용해 주신 고객 여러분들께
감사드리오며 교민여러분들.
모두가 희망찬 새해를 맞아
하시는 사업도 더욱 번창하
시기를 기원합니다.

SINCERE TRADING CO

주식회사 신 의 상 사

116 TYCOS DR. TORONTO, ONT.

789—7544~7

임직원 일동 배